World Economy Today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4년 5월 21일 Vol. 24 No. 7

ISSN 1976-0515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총괄책임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세계경제 전망 개관
2.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
3. 선진국 경제 전망
4. 신흥국 경제 전망

주요 내용

▶ [세계경제] KIEP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3.0%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연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 2024년에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한편, 유럽과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

- 미국은 예상보다 강건한 소비지출, 민간투자 회복, 정부지출 등이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면서 2024년 2.4% 성장(종전 전망치 대비 0.9%p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유로 지역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해당 지역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0.7%(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 조정) 성장에 그칠 전망임.
- 일본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에는 0.9%(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신흥국] 신흥국은 2024년에 인도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 및 여타 신흥국의 완만한 경기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일 것

- 2024년 중국정부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시장의 낮은 기대와 지속적인 경제 리스크,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와 소비 회복으로 2024년 6.8%(종전 전망치 대비 0.6%p 상향 조정)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함.
- 아세안 5개국은 대외수요 회복, 관광 증가, 정부지출 확대 또는 정상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4.5%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 러시아는 전시 상황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면서 2024년에도 지난 해와 유사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됨.
- 브라질은 고금리와 저조한 농산물 작황으로 1.8%의 성장이 예상됨.

1. 세계경제 전망 개관

가. 2024년 세계경제

■ [세계경제]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 대비 0.2%p 하락한 3.0%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세계경제는 '정책 초불확실성 여파로 차별화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한편, 유럽과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임.

- 미국은 예상보다 강건한 소비지출, 민간투자 회복, 정부지출 등이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면서 2024년 2.4% 성장(종전 전망치 대비 0.9%p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이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점차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대출액이 빠르게 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점 또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미국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보증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는 긍정 요인
- 유로 지역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해당 지역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0.7%(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 조정) 성장에 그칠 전망임.
  - 독일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긴축재정, 수출 감소 등으로 0.0%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무역이 성장을 이끌면서 0.6%, 이탈리아는 부진한 정부지출 대신 투자와 무역이 성장을 도와 0.7%, 스페인은 관광업과 투자 회복으로 2.4%, 영국은 정부지출 확대와 민간소비 개선으로 0.5%를 기록할 전망
- 일본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에는 0.9%(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녹색전환·디지털 전환·반도체 및 AI 등의 국내투자 확대정책, △완만한 고용상황 개선 등은 상방 요인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자원가격 변동성,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현 정권 지지율 하락 및 정책 추진동력 하락 가능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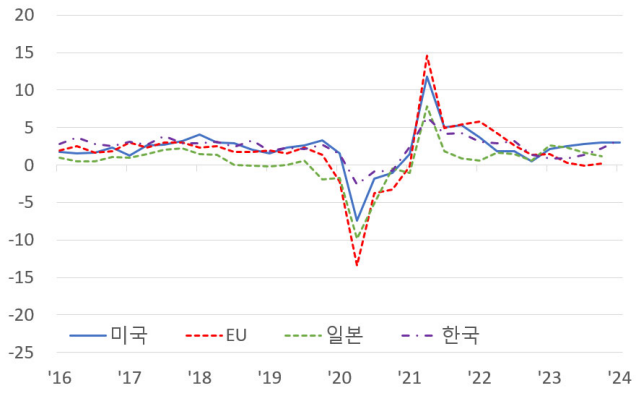
■ [신흥국] 인도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 및 여타 신흥국의 완만한 경기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24년 중국정부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시장의 낮은 기대와 지속적인 경제 리스크,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정부의 다양한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종전 전망치 대비 0.3% 상향 조정
- 인도는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2024년 6.8%(종전 전망치 대비 0.6%p 상향 조정)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함.
  - 인프라와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며, 물가안정과 농업 부문 회복으로 농촌지역 소비가 정상화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디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또한 기여

- 아세안 5개국은 대외수요 회복, 관광 증가, 정부지출 확대 또는 정상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종전 전망치와 유사한 4.5%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 인도네시아는 10월 취임 예정인 신정부의 지출 확대, 말레이시아는 수출 및 관광 개선, 필리핀은 인프라와 관광 개선, 태국은 정부지출 정상화 및 관광 호조 지속, 베트남은 제조업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성장
- 러시아는 전시 상황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면서 2024년에도 지난 해와 유사한 3.2%(종전 전망치 대비 2.2%p 상향 조정)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됨.
  - 군비지출 급증과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 등이 내수 주도 성장 흐름을 이끌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임금 상승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 브라질은 고금리와 저조한 농산물 작황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나 재정지출 확대,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8%(종전 전망치 대비 0.4%p 상향 조정)의 성장이 예상됨.
  - 2023년 말부터 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남부지역의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악화된 상황이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24년 4월 기준 10.75%로 여전히 높아 경제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그림 1-1. 선진국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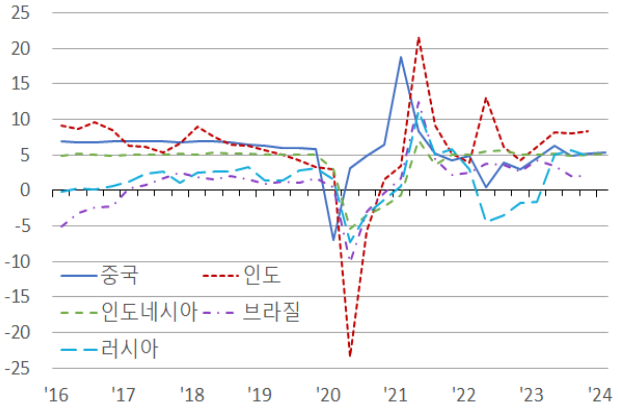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자료: CEIC(검색일: 2024. 5. 14).

그림 1-2.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4. 5. 14).

나. 2025년 세계경제

■ 202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하향세와 유로 지역의 회복, 인도의 선전 등으로 특징되며, 연간 3.2%를 기록할 전망임.

- 미국은 소비 둔화, 정부의 공급망 법안 내 지출 여력 소진 등에 따라 1.7% 성장률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트럼프 재집권 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임.
- 유로 지역과 영국은 2024년까지의 부진으로부터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각각 1.6%와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일본은 2025년에 각종 정책 효과가 감소함에도 견고한 임금과 물가 선순환이 구축된다는 전제하에 소득과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0%의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
- 중국은 2025년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적 측면에서 경제 흐름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4.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는 정부와 민간 소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며 6.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 아세안 5개국은 대외 환경 개선과 관광 유입, 정부의 정책 효과 등으로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함.
- 러시아는 전쟁의 여파, 투자와 소비 약화 등으로 2024년 대비 크게 하락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브라질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의 조세 간소화 개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2.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표 1-1. KIEP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11월 (A)]	[2024년 5월 (B)]		[2024년 5월]
세계[3]	3.2[1]	2.8	3.0	(▲0.2)	3.2
미국	2.5	1.5	2.4	(▲0.9)	1.7
유로 지역	0.5	1.1	0.7	(▼0.4)	1.6
- 독일	-0.1	1.0	0.0	(▼1.0)	1.3
- 프랑스	0.9	1.0	0.6	(▼0.4)	1.6
- 이탈리아	1.0	0.6	0.7	(▲0.1)	1.0
- 스페인	2.5	1.6	2.4	(▲0.8)	1.7
영국	0.1	0.6	0.5	(▼0.1)	1.5
일본	1.9	1.0	0.9	(▼0.1)	1.0
중국	5.2	4.5	4.8	(▲0.3)	4.5
인도	7.7	6.2	6.8	(▲0.6)	6.5
ASEAN 5[4]	4.2	4.6	4.5	(▼0.1)	4.8
- 인도네시아	5.0	4.8	5.0	(▲0.2)	5.1
- 말레이시아	3.7	4.4	4.2	(▼0.2)	4.5
- 필리핀	5.5	4.8	5.7	(▲0.9)	5.9
- 태국	1.9	3.7	2.5	(▼1.2)	3.5
- 베트남	5.0	6.5	5.8	(▼0.7)	6.2
러시아	3.6	1.0	3.2	(▲2.2)	1.6
브라질	2.9	1.4	1.8	(▲0.4)	2.2

주: 1) Oxford Economics(4. 24) 기준, 2) [ ] 안은 전망시점, 3) PPP 환율 기준, 4)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PPP 환율 적용 GDP 합 기준, 5) ( ) 안은 2024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2023년 11월과 2024년 5월 전망 사이의 조정치(B-A).

다. 주요 리스크 요인

■ 이번 전망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며,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함.

1)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 2024년 5월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전쟁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종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지금까지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또한 유지하고 있지만, 휴전 협상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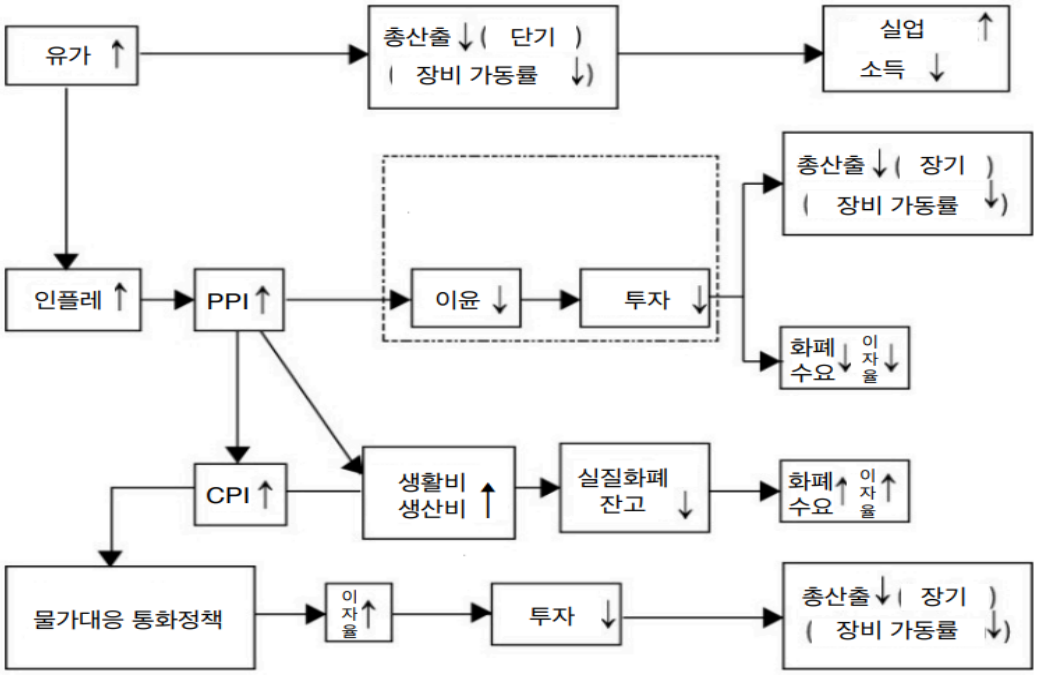
○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 등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하여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등 경제적 이슈들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한 지속되고 있는바,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 남부의 라파 지역을 탱크와 병력으로 포위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국제사회의 휴전 및 포로 교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 능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휴전 협상을 위한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분쟁은 서안 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1-3. 유가 충격의 파급 메커니즘



자료: Tang, W., Wu, L., and Zhang, Z..(2010), "Oil price shocks and their short- and long- term effects on the Chinese Economy," *Energy Economics*, 32, pp. 3-14(검색일: 2024. 5. 14).

■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유가와 원자재 가격 파동이 나타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임.**

- 지난 4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까지 가세하며 유가가 90달러 이상으로 오르는 등 유가 충격은 세계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의 금수조치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국제유가는 쉽게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가 부담과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세계경제는 다시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임.

- 유가 충격의 영향은 에너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교역 감소, 신흥국 경제 타격 등 전형적인 공급발 경기침체 시나리오 양상을 띠게 될 것임.

○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무역수지 악화, 통화가치 하락 등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운송 비용 상승에 따른 교역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세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임.

○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이미 7억 명 이상의 기아 인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개도국 내 식량 불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어, 유가와 식료품 가격 이중 충격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것임.

2)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 최근 고용과 물가 등에서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타 주요국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임.

- 미국의 GDP 증가율이 지난 1/4분기 속보치의 경우 전기비 연율 기준 1.6%로 2023년 4/4분기의 3.4%에 비해 둔화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강건한 소비 지출로 인해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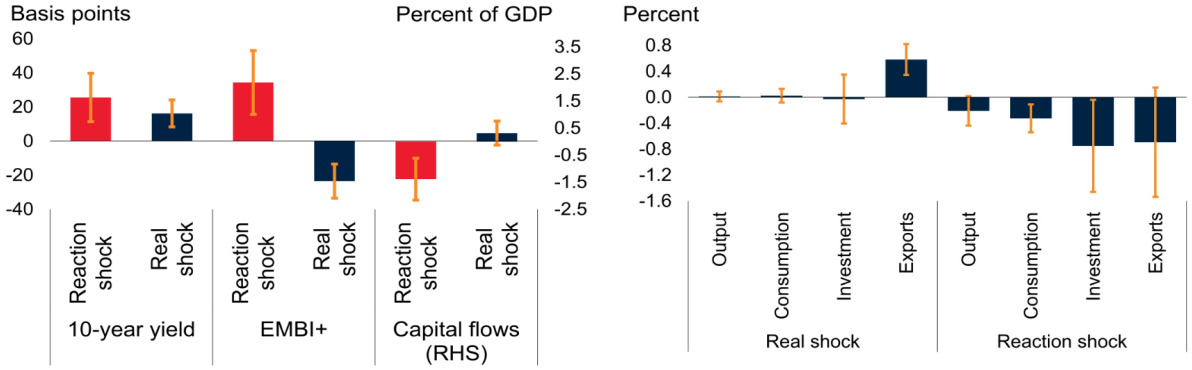
○ 2023년 하반기 기준 미국은 전년동기대비 2%대 후반에서 3%에 근접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유럽연합(EU)은 역성장을 하거나 0%대 초반, 일본은 1%대 중반 전후를 나타내는 데 그쳐 미국과 큰 차이를 보임.

○ 거대 신흥국 가운데서는 인도 정도만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4%대 후반에서 5%대를 기록, 과거 고성장기 대비 하향 안정세를 나타냄.

- 금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미뤄지고 그 횟수도 적게 전망되는 사이, 선진국 가운데 스위스와 스웨덴이 이미 금리 인하에 나섰고, 유로존(Eurozone) 또한 6월경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음.

○ 성장세 대비 물가가 안정되며 남미와 유럽 등지의 여러 신흥국들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음.

그림 1-4. 미국 이자율 상승 충격의 신흥국에 대한 효과



주: 1) 미국 이자율 상승에 따른 1분기 이후의 충격반응을 나타냄. 2) EMBI+는 국가부도위험의 대리변수임. 3)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식별된 충격 가운데 real shock은 미국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며, reaction shock은 미국 연준이 보다 매파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과 평가를 보여줌.

자료: Arteta, Carlos, Steven B. Kamin, Franz Ulrich Ruch(2023), "How do Rising U.S. Interest Rates Affect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It Depends(Englis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10258,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4. 5. 14).

■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이 남을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 있으며,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확률은 낮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 확대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시나리오하에서는 달러 강세와 자본 쏠림 심화가 지속되면서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미국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내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의 추가적 압력이 발생하고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 버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대외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

- 기타 국가 가운데 신흥국에서 나타날 금융 불안정과 실물 위축이 여타 선진국 대비 심각할 것임.

○ 미국 이자율 상승의 충격은 신흥국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국가부도 위험을 높이며 자본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고, 실물 부문에서는 통화 약세로 대미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글로벌 불균형 악화를 초래할 것임.

3)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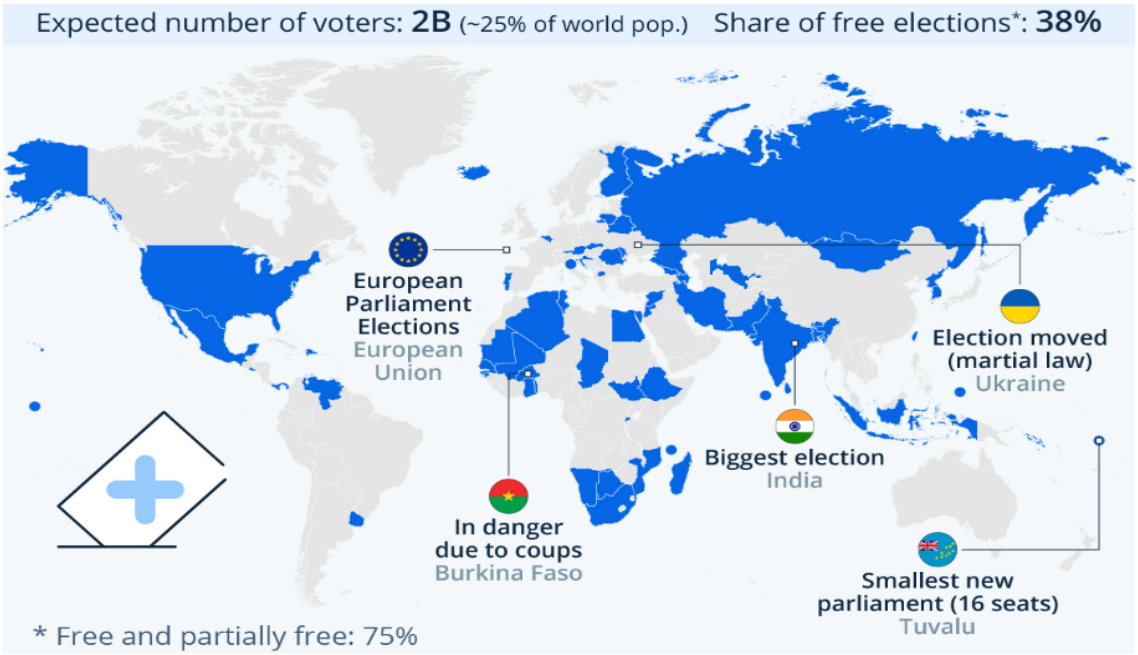
■ 2024년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열리는 해로 약 20억 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렀거나 치룰 예정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 미국,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구 대국에서 주목받는 선거가 있어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로 불리고 있으며, EU 27개국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등 초국가적 선거도 예정되어 있음.

- 이 가운데 민주주의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비중은 채 40%가 되지 않으며, SNS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작이나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선심성 정책 남발 등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브이뎀'이 2024년 전 세계 민주주의의 커다란 후퇴를 진단한 이면에는 미중 갈등, 팬데믹, 두 개의 전쟁, 경기침체 등의 배경이 있으며, 글로벌 정치 지형이 분열과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5. 2024년 글로벌 선거 지도



자료: https://www.statista.com/chart/31604/countries-where-a-national-election-is-was-held-in-2024/(검색일: 2024. 5. 14).

■ 선거 결과에 따라 대중영합주의적 경제정책이 대거 도입될 경우,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임.

-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의 선거 결과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이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다시 한 번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였으며, 전기차의 경우 현재 25%에서 100%까지 인상할 계획임을 밝힘.
  - ○ 중국은 이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며 강력 반발,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방향이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추가적인 대중 관세 인상이나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세계 교역과 생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임.
- 그 외에도 러시아의 푸틴은 30년 독재를 확정지었고, 6월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이 예상되는 등 주요 선거 결과가 자국 중심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글상자 1-1. 제10차 대외경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개요] KIEP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세계경제 성장, △주요 하방 리스크, △올해 미국의 최초 정책금리 인하 시점, △중국발 공급과잉 논란, △주요국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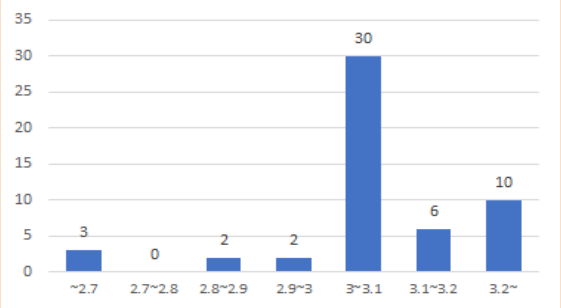
- KIEP는 2020년 세계경제 전망(2019. 11. 11 발간)부터 보다 객관적으로 세계경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기업 등 경제 및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계경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번 설문조사는 10회 차로, 조사대상 152명 중 53명(응답률 35%)이 응답함.
- 조사 대상은 국제거시, 국제금융,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인도·남아시아, 동남아·대양주, 러시아, 중남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경제 성장] 대외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의 중윗값은 3.0%(2024년), 3.1%(2025년)

-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53명 중 30명이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3.1% 수준으로 전망함.
  - ○ 이어 3.2% 이상(10명), 3.1~3.2%(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함.
- 2025년에 대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4년에 비해 높은 수준인 3.1~3.3%를 전망하는 응답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음.
  - ○ 이어 2.9~3.1%(16명), 3.3~3.5%(6명) 구간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성장률의 평균치는 3.1%로 2024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설문 1-1]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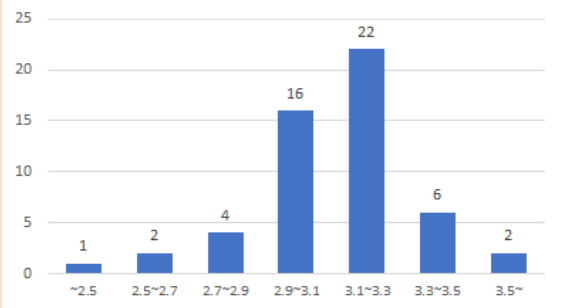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



주: 범위는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설문 1-2]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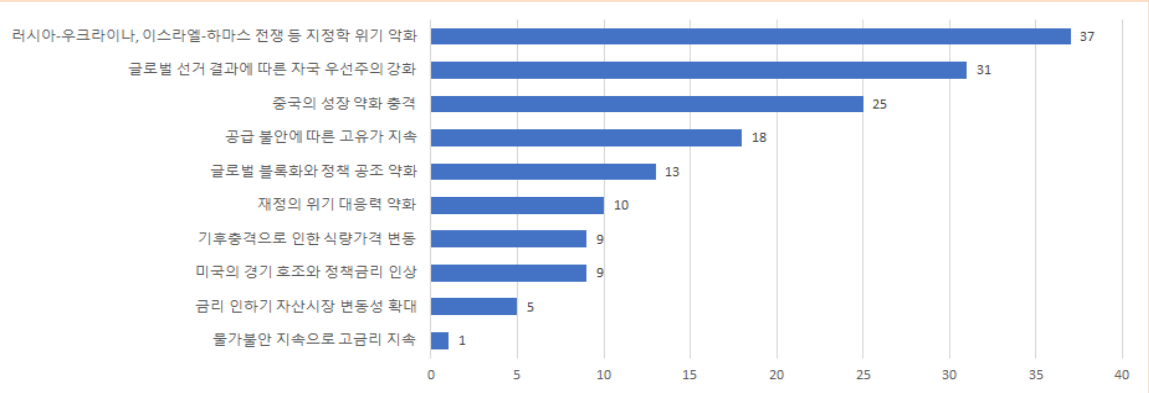
주: 범위는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주요 하방 리스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4년과 2025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 위기 악화'를 선정

- 전문가 53명 중 70%(37명)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 위기 악화를 세계경제의 가장 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함.
- 이와 더불어 글로벌 선거 결과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강화, 중국의 성장 약화 충격, 공급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이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58%(53명 중 31명), 47%(53명 중 25명), 34%(53명 중 18명)를 차지함.

[설문 2] 2024년과 2025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하방 리스크

(단위: 명)



주: 3가지 복수응답 허용. 단, 53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은 2가지만 선택함.
자료: 저자 작성.

■ [올해 미국의 최초 정책금리 인하 시점] 대외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미국의 최초 정책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9월'이라고 답하였으며, 인하 횟수는 1회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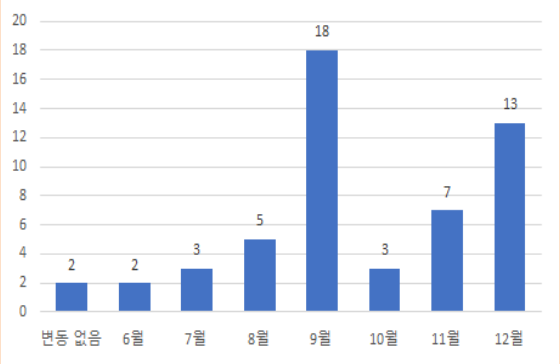
- 올해 미국의 최초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9월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총 18명으로 가장 많음.

○ 이어 12월, 11월, 8월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25%, 13%, 9%를 차지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전망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28명, 응답 비율은 53%를 차지함.
  - ○ 이어 두 차례로 응답한 전문가는 21명, 금리 변동이 없을 것(변동 없음)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2명임.

[설문 3-1] 올해 미국의 최초 정책금리 인하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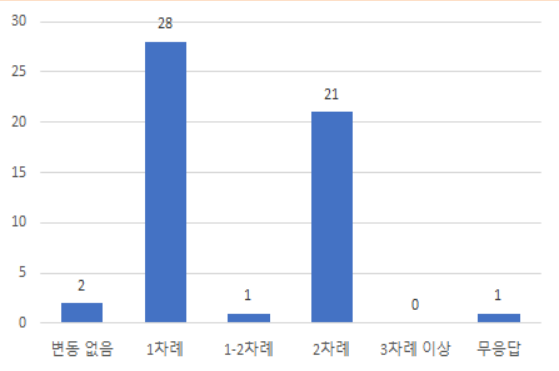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월)



주: '00월', '금리 변동 없음'으로 답한 응답들은 '변동 없음'으로 간주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설문 3-2] 인하 횟수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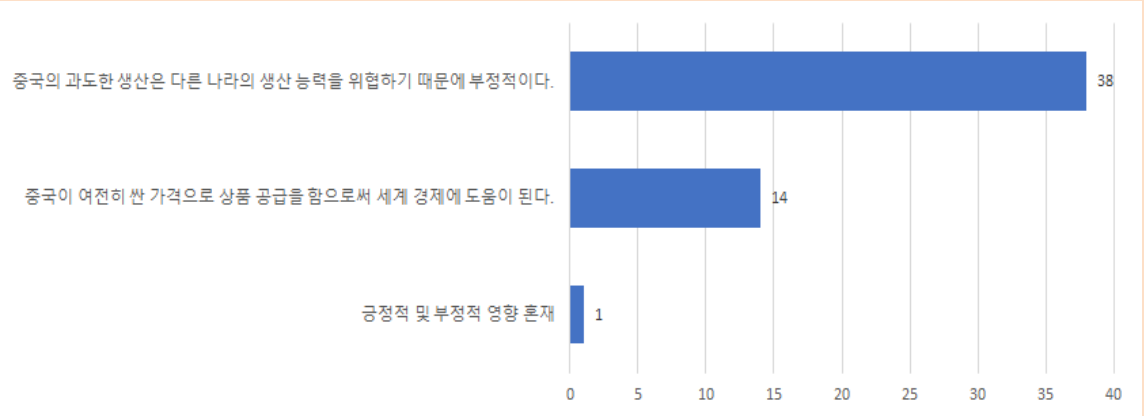
주: '00차례', '금리 변동 없음'으로 답한 응답들은 '변동 없음'으로 간주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중국발 공급과잉 논란] 대부분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중국발 공급과잉 논란에 대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은 다른 나라의 생산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53명 중 38명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은 다른 나라의 생산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 반면 중국이 여전히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는 14명임.
  - ○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혼재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1명임.

[설문 4] 중국발 공급과잉 논란에 대한 전문가 견해

(단위: 세로축 견해, 가로축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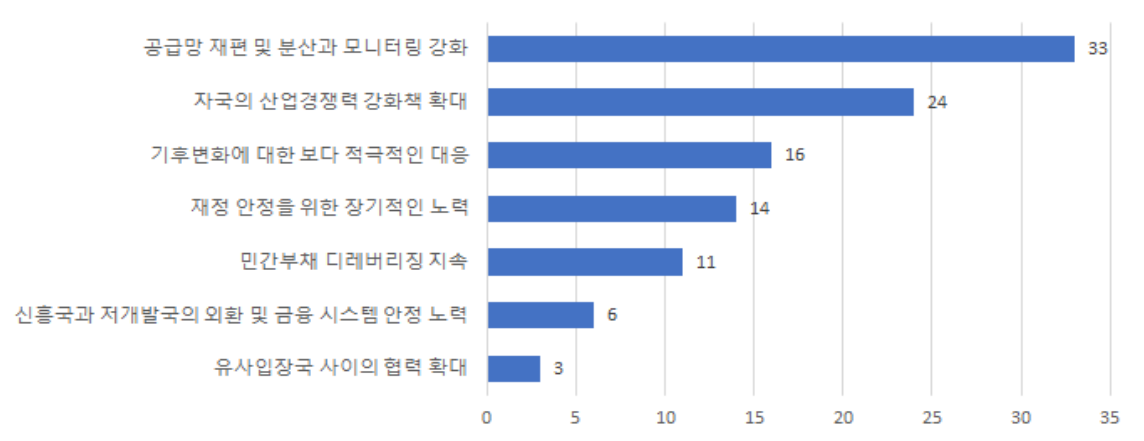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주요국 정부 정책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간 세계경제를 위해 현재 주요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급망 재편 및 분산과 모니터링 강화'를 선정

- 세계경제를 위한 정책과제 가운데 응답자 53명 중 62%가 '공급망 재편 및 분산과 모니터링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책 확대'(53명 중 45%)를 선택함.
-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53명 중 30%)에 의견을 모으면서도,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53명 중 26%), '민간부채 디레버리징 지속'(53명 중 21%)과,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외환 및 금융 시스템 안정 노력'(53명 중 11%) 등 역시 중요한 정부 정책과제로 인식함.

[설문 5]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부의 정책과제

(단위: 명)



주: 두 가지 복수응답 허용. 단, 53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은 세 가지를 선택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라. 세계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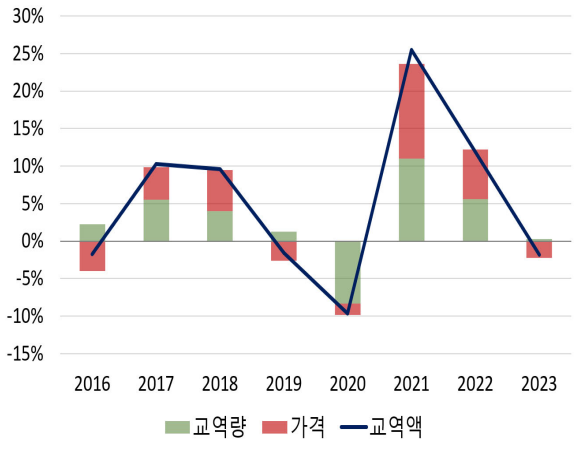
1) 2023년 동향

■ 2023년 세계 교역은 '상품-감소', '서비스-증가'로 0%대 성장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등세가 조기 완화되었고, 주요국 경기 침체, 세계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확대 및 장기화로 새로운 둔화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됨.

- IMF('24.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은 0.3% 증가, 이는 기존 전망치('23.10)를 0.6%p 하회함.
  - ○ 상품 교역량(서비스 제외)은 0.9% 감소, 상품 교역액은 1.8%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 상품 수출입 물가는 3.7% 감소하면서 2021년(+14.2%)과 2022년(+8.4%) 고조되었던 가격 상승 압력은 완화
  - ○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물가는 40% 이상 높은 수준이며, 농산물·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지속[1)]
- WTO('24.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상품 교역량은 전년대비 1.2% 감소, 이는 기존 전망치('23.10)보다 2.0%p 낮은 수치로 많은 부분 유럽에 대한 전망 불일치에 기인하며, 상품 교역액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중심으로 약 5% 감소함.
  - ○ 다만 전년도 3/4분기의 한시적인 교역량 증가를 감안한다면 2023년은 전반적으로 정체 추세이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6.3% 증가한 수준임. 한편 상업서비스 교역액은 전년대비 9% 증가하면서 상품의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함.
- 2023년 교역 침체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통화정책 지속,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수요적 요인과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 및 확대, 미-중 경쟁 심화, 무역제한적 조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가 지적됨.
  - ○ 중국의 수입 수요 약화는 동아시아 주변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의 상품 수출을 위축시켰으며, 더불어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진 반도체 하방 사이클 등 전자 산업의 부진 역시 교역 위축을 가중[2)]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하방 위험으로 상존, 나아가 에너지 등 원자재에 대한 세계 교역 패턴을 왜곡 및 변화시켰으며('러→EU'⇒'러→중국'),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이어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사태를 일으키면서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

그림 1-6.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



주: 교역량은 수출+수입, 교역액은 수출 기준.
자료: IMF WEO(2024. 4).

표 1-2. 세계 교역 및 가격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상품+서비스	교역량(volume)	-8.3	11.0	5.6	0.3
	교역액(value)	-9.6	25.5	11.9	-1.8
상품	교역량	-4.9	11.3	3.2	-0.9
	교역액	-7.2	27.0	11.1	-4.5
수출입 물가 (상품)	전체	-2.7	14.2	8.4	-3.7
	제조품	-3.2	6.6	10.1	-1.6
	석유	-32.0	65.8	39.2	-16.4
	기타 원자재	6.6	26.7	7.9	-5.7
	식품	1.7	27.0	14.8	-6.8
	농산원료품	-3.4	15.5	5.7	-15.6
	금속	3.5	46.7	-5.6	-2.8

주: 교역량은 수출+수입, 교역액은 수출 기준.
자료: IMF WEO(20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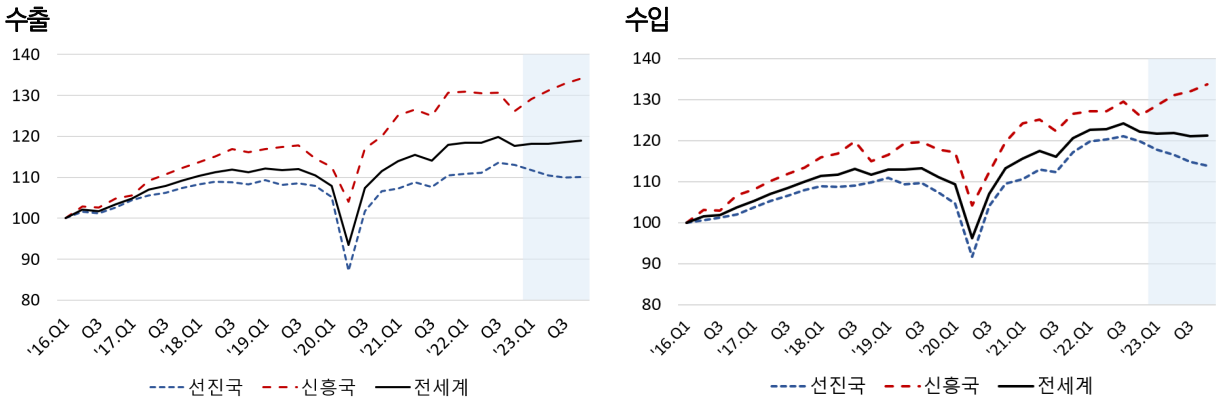
1) World Bank(2024. 1).
2) UN, DESA(2024. 1).

■ 분기별 세계 상품 교역량을 살펴보면 2023년 전반적으로 정체 양상이 나타났으나, 선진국-개도국 격차는 더욱 확대됨.

- 2023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수출입 모두에서 신흥국은 증가 추이, 선진국은 감소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임.
  - ○ 수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선진국이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신흥국이 0.4% 감소(중국 -1.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선진국이 2.9% 감소한 반면 신흥국은 4.0% 증가(중국 +7.4%)하면서 상반된 양상
  - ○ 수입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선진국이 2.5% 감소한 반면 신흥국은 2.1% 증가(중국 +2.1%)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선진국은 5.1% 감소, 신흥국은 4.0% 증가(중국 +4.0%)하면서 신흥국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짐.
  - ○ 중국의 경우 수출입 모두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다만 4/4분기 수출 증가(+9.9%)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3]
-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유럽은 수출입 모두 감소세가 지속됨.
  - ○ 유럽은 고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위축되었고, 동시에 대외 수출 여건도 부진[4]

그림 1-7.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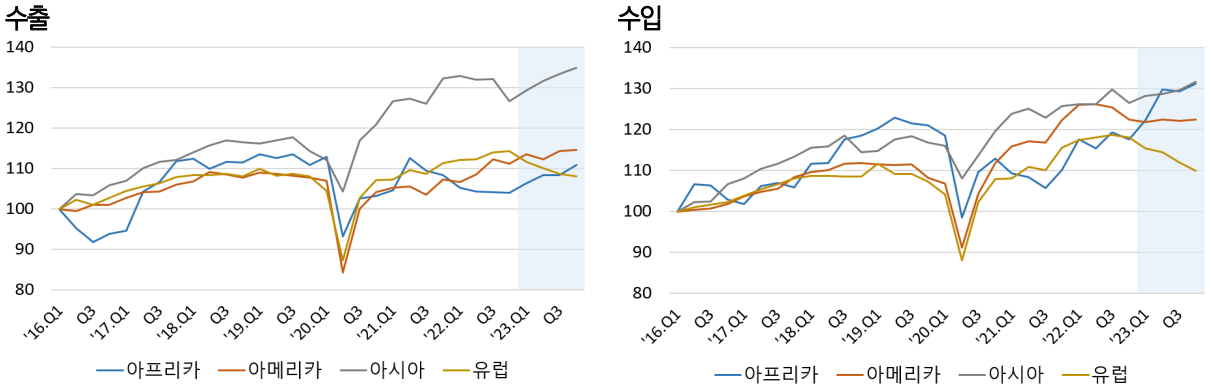
(단위: '16.Q1=100)



주: 교역량은 2005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계절조정값을 이용하여 2016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값으로 재조정한 것임.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EN/(검색일: 2024. 4. 11).

그림 1-8. 지역별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분기별

(단위: '16.Q1=100)



주: 교역량은 2005년 1분기를 100으로 하는 계절조정값을 이용하여 2016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값으로 재조정한 것임.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EN/(검색일: 2024. 4. 11).

3) 중국의 분기별 교역량('16.Q1=100, 계절조정값)
- 수출: ('22.Q1) 149.9 → ('22.Q2) 144.3 → ('22.Q3) 143.3 → ('22.Q4) 135.6 → ('23.Q1) 143.2 → ('23.Q2) 147.3 ('23.Q3) 150.4 → ('23.Q4) 149.0
- 수입: ('22.Q1) 135.3 → ('22.Q2) 128.1 → ('22.Q3) 130.8 → ('22.Q4) 131.2 → ('23.Q1) 133.8 → ('23.Q2) 135.1 ('23.Q3) 135.2 → ('23.Q4) 137.3

4) WTO(2024. 4)에 따르면 2023년 유럽의 수출입은 과거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였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 상기한 경제 상황적 측면 외에도 현재의 공식무역량통계가 최근 유럽에서의 상품가격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WTO(2024. 4),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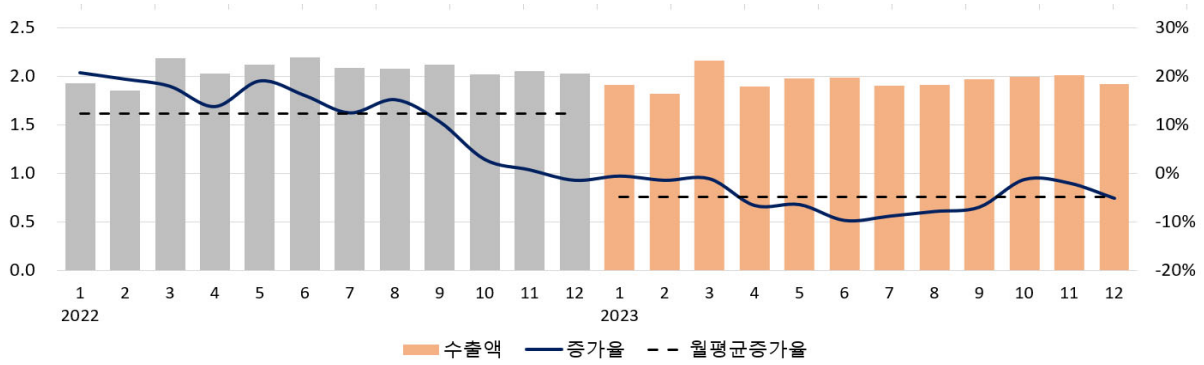
■ 월별 세계 상품 교역액(수출 기준)을 살펴보면 2023년 모든 기간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8%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며 크게 부진했고, 10월부터는 다시 감소세가 완화됨.

- 2023년 월평균 교역액은 1조 9,564억 달러로 전년도(월평균 2조 581억 달러) 대비 4.9% 낮은 수준이며, 다만 3월(2조 1,652억 달러)과 11월(2조 145억 달러)에는 2조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수준에 근접함.

○ 2023년 월평균 교역액은 과거 2018년(1조 6,156억 달러) 및 2021년(1조 8,406억 달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14.2%)과 2022년(+8.3%) 수출입 물가의 연이은 상승에 기인하며, 반면 2023년 상품 수출입 물가(-3.7%)는 오히려 전년대비 하락했고 교역량(-0.9%)도 감소함(표 1-2 참고).

그림 1-9. 세계 상품 수출액 증가율 추이: 월별

(단위: 조 달러, 전년동월대비 %)



주: 왼쪽 축은 수출액(막대), 오른쪽 축은 증가율(실선); 점선은 2022년(1~12월)과 2023년(1~12월) 각 월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단순평균임.
자료: IMF DOTS(검색일: 2024. 4. 4).

■ 주요 국가별·지역별 상품 교역액을 살펴보면 2023년 들어 거의 모든 주요국의 수출입이 전년대비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되었고, 2023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감 변화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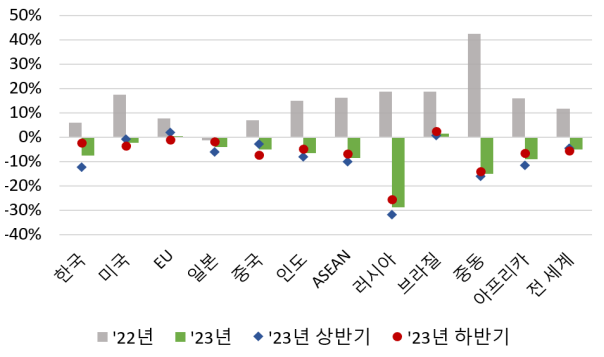
- 수출에서는 한국(-7.5%), 일본(-3.9%), 중국(-5.1%) 등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부진했고, 중동의 수출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수입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함.

○ 다만 수출에서는 브라질(+1.6%)과 EU(+0.4%)가 소폭 증가세, 수입에서는 중동(+6.9%)이 증가세를 보임.

- 2023년 상반기-하반기 간 변화는 수출의 경우 한국·일본·인도·ASEAN 등의 감소세가 하반기 들어 완화되었으며, 수입의 경우 미국·중국·인도·ASEAN 등의 감소세가 완화된 반면, 한국·일본·브라질 등의 감소세는 심화됨.

그림 1-10. 주요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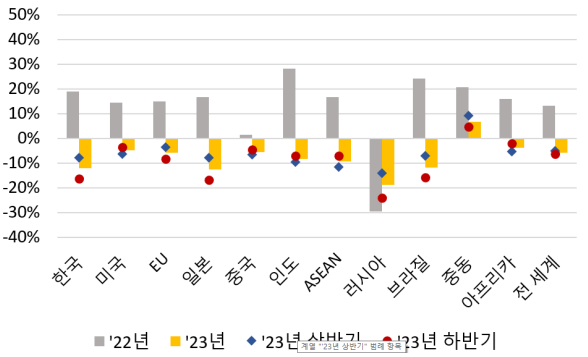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IMF DOTS(검색일: 2024. 4. 4).

그림 1-11. 주요국의 상품 수입액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IMF DOTS(검색일: 2024. 4. 4).

■ 품목별 세계 상품 교역액(수출입 평균)을 살펴보면 2023년 들어 농산물이 2% 감소, 광산물(에너지 포함)이 18% 감소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17%)와 기계(+4%)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부진하면서 5%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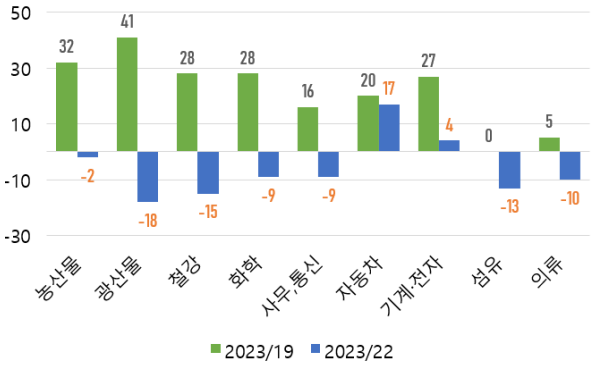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농산물은 32% 증가, 광산물은 41% 증가(에너지 +43%)에 달하며, 제조업 역시 철강(+28%), 화학(+28%), 사무·통신(+16%) 등 전년대비 부진한 품목들도 과거에 비해 교역액 규모가 커짐.
- 자동차(+17%)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 ○ 특히 중국의 승용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74% 증가해 독일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22년 6위) 수출국으로 부상[5]

■ 2023년 서비스 교역액(수출)은 전년대비 9% 증가했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서비스(+39%)가 크게 증가했고 상품관련서비스(+6%)와 기타서비스(+8%) 역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운송서비스(-12%)는 감소함.

- 여행서비스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평년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나 이후 큰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도 6%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함.
- 운송서비스는 2021~22년 운송 수요 확대와 운임 상승으로 인해 급증한 바 있으나, 2023년 들어서는 교역 침체와 공급망 압력 완화로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9% 높은 수치임.
- 기타서비스[6] 역시 전년대비 8% 증가(2019년 대비 +34%)하는 등 전체 서비스 교역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 국가별로는 중국의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대부분 증가세를 보임.[7]

그림 1-12. 품목별 상품 교역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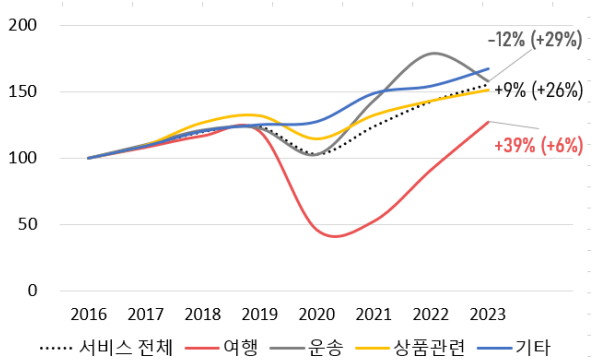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



주: 2023/19는 2019년(코로나19 이전) 대비 2023년의 증가율,
2023/22는 전년대비 2023년의 증가율.
자료: WTO(2024.4),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p. 17.

그림 1-13. 업종별 세계 서비스 교역액 추이

(단위: '16=100)



주 1) 교역액은 2016년을 100으로 하는 값.
2) % 수치는 상단부터 순서대로 운송, 전체, 여행에 대한 2022년(2019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 (검색일: 2024. 4.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중국의 최근 5년간 승용차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외) 수출[Trade map, https://www.trademap.org/(검색일: 2024. 4. 11)].
- 승용차(HS_8703, 억 달러): ('19) 86.3 → ('20) 99.3 → ('21) 243.9 → ('22) 446.9 → ('23) 776.6
- 전기차(HS_8703.80, 억 달러): ('19) 4.4 → ('15.8 → ('21) 86.0 → ('22) 200.9 → ('23) 341.3

6) 2023년 상반기 기준 업종별 서비스 교역액의 비중은 기타 59.8%, 여행 19.8%, 운송 17.0%로 기타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함. 기타서비스는 금융, 지적재산권, 보험·연금, 건설, 통신, 개인·문화·오락, 정보, 컴퓨터,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함.

7) 2023년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상업서비스 교역액 증가율[WTO(2024. 4),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p. 41].
- 수출: 미국 +7%, 영국 +16%, 독일 +4%, 아일랜드 +11%, 중국 -10%, 프랑스 +4%, 인도 +11%, 싱가포르 -3%, 일본 +21%
- 수입: 미국 +3%, 중국 +19%, 독일 +9%, 영국 +23%, 아일랜드 +9%, 프랑스 +12%, 네덜란드 +10%, 싱가포르 0%, 인도 0%, 일본 +8%

2) 2024년 및 2025년 전망

■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자국 중심의 산업·통상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세계 공급망의 분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 및 확대되면서 통상환경의 불안이 가중되는바, 2024년 및 2025년 세계 교역은 최근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며 성장세 역시 평균적인 추세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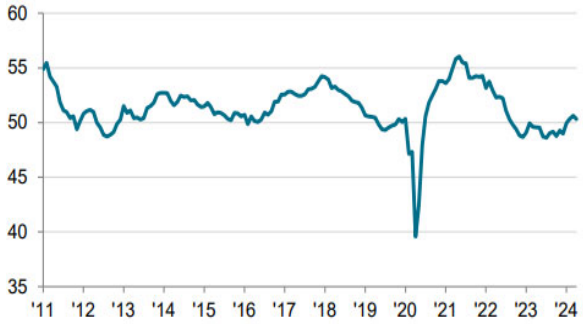
- 현재 세계 교역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그리고 여행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각국의 인플레이션 및 긴축통화정책 역시 점진적 완화가 전망되면서,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임.
-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이 점차 진행되고 세계적으로 무역제한적인 정책(보조금 등)이 만연하면서 공급망의 분절 및 국제무역의 근원적 둔화가 우려되며, 이외에도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과 엘니뇨 등 기상 이슈 등장 역시 세계 교역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함.
  - ○ 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무역제한조치(Harmful New Interventions)가 2019년 1,086건에서 2022년 3,132건 및 2023년 3,207건으로 증가했는데,[8]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선진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배출 저감 및 첨단기술 촉진을 위한 R&D 관련 산업정책과 관련이 깊음.[9]
- 세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ices)는 2023년 전반에 걸쳐 경기수축(50선 미만) 국면을 보였으나, 최근 2024년 3월(50.6)과 4월(50.3) 50선을 돌파하면서 경기확장이 기대됨.
  - ○ 교역의 선행지표인 신규수출주문(New export orders) 역시 3월 49.6에서 4월 50.5로 상승하여 50선을 돌파[10]
  - ○ 2024년 4월 국가별 제조업 PMI를 살펴보면 인도·브라질·그리스가 55 이상으로 높고, 주요국 중에는 러시아, 중국, 멕시코가 50 이상을 기록, 반면 독일·오스트리아가 45 미만으로 낮고, 한국·일본·호주 등도 50 미만을 기록
- 세계공급망압력지수(GSCPI: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는 2023년 5월 -1.56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1월 0.17로 상승하면서 평균값을 상회하였고, 최근에는 2024년 4월 -0.85로 다시 완화되고 있음.
  - ○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사태를 일으키면서 수에즈 운하 경로의 물류난이 발생, 이에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11]하면서 공급망 압력이 증가한 바 있음.
  - ○ 세계 해상 물류의 약 15%가 수에즈운하 경로를 이용하는데, 현재 이를 대체하여 희망봉 경로가 이용됨에 따라 운송비용 상승(+100%) 및 시간 지연(+30~50%)이 발생하며,[12] 특히 아시아-유럽 간 운송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평균 항해 거리가 55% 이상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17일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상황임.[13]
  - ○ 코로나19 직후 당시의 물류대란과 달리 현재의 글로벌 선복 공급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만약 이러한 비용 상승(+100%) 상황이 약 1년 간 지속된다면 5%p의 수입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14]

---

8) Global Trade Alert, https://www.globaltradealert.org/global_dynamics/area_all/year-from_2023/day-to_1201.
9) UN, DESA(2024. 1), pp. 37-40.
10) J.P.Morgan Global Manufacturing PMI℠(2024. 5. 2),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40276f0bd3a74edf878244eeebfb7c86.
11)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Shanghai Shipping Exchange)는 2023년 전반에 걸쳐 1,000선을 유지했으나 홍해 사태가 본격화된 12월부터 급상승하여 2024년 1월 2,000선을 돌파, 3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1,700선을 기록했으나, 4월 들어 다시 상승하면서 1,900선을 기록함. (https://en.sse.net.cn/indices/scfinew.jsp).
12) OECD(2024. 2), p. 9.
13) WTO(2024. 4), p. 34.
14) OECD(2024. 2), p. 9.

그림 1-14. 세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단위: 경기동향지수, 50 기준)



주: 지수의 기준값(50) 이상은 경기 확장, 미만은 경기 수축을 의미.
자료: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40276f0bd3a74edf878244eeebfb7c86(검색일: 2024. 5. 2).
(원자료: J.P.Morgan, S&P Global PMI)

그림 1-15. 세계 공급망압력지수(GSCPI)

(단위: 평균대비 표준편차)

주: 1997년부터의 평균값을 0으로 하는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공급망 압력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공급망 압력이 큰 것임.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검색일: 2024. 5. 9).

■ IMF('24.4)는 2024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이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치('23.10)를 0.5%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5년 세계 교역량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코로나19 이전 과거의 평균적인 증가세(2000~19년 +4.6%)를 하회하는 수치로 지난 2021년(+10.9%) 및 2022년(5.1%)의 고성장과도 대비되며, 향후에는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 2023년 세계 교역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0.6%p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는 2024년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023년과 동일한 하방 요인들에 의해 2024~25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 진영의 블록화와 무역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계 교역의 효율성 자체가 저하될 것임.[15]
- 2024년 세계 상품 교역량이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비스의 상대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 3.3%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상품-서비스 성장 격차는 완화될 것임.
- 국가 수준별로 살펴보면 2024년 선진국의 수출입 전망치는 모두 하향 조정되었으며, 신흥국의 경우 수출에서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수입은 상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 증가세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전망임.
  - ○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선진국의 회복세가 강세를 보인 바 있으나 2023년 들어서는 선진국의 수입이 약세로 반전되었고, 2024년부터는 수출입 모두에서 다시 신흥국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이전의 경향으로 돌아갈 전망임.

■ WTO('24.4)는 2024년 세계 교역량(상품)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치('23.10)를 0.7%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5년 세계 교역량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2024년 수출에서는 북미(+3.6%), 중동(+3.5%), 아시아(+3.4%)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유럽(1.7%)은 전년도에 이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에서는 아시아(+5.6%), 아프리카(+4.4%)의 수요가 회복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 아시아의 경우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겠으나, 기존 전망치보다는 수출 -1.7%p, 수입 -0.2%p 하향 조정된 만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업 강국들의 회복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15) IMF WEO(2024. 4), p. 24.

표 1-3.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전망치(2024~25년)

(단위: 전년대비 %)

발표 기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IMF (2024. 4)	교역량(상품+서비스)			-8.3	11.0	5.6	0.3	3.0	3.3
		수출	선진국	-8.8	9.9	5.6	0.9	2.5	2.9
			신흥국	-6.6	13.0	4.7	-0.1	3.7	3.9
		수입	선진국	-8.2	10.3	7.1	-1.0	2.0	2.8
			신흥국	-9.4	12.1	3.9	2.0	4.9	4.1
	교역량(상품)			-4.9	11.3	3.2	-0.9	2.8	3.3
		수출	선진국	-6.3	10.2	3.7	-0.6	2.2	3.1
			신흥국	-1.1	11.9	1.2	-0.1	3.6	3.7
		수입	선진국	-5.7	11.4	4.9	-3.2	1.5	2.6
			신흥국	-5.5	12.1	2.2	1.3	4.6	4.0
WTO (2024. 4)	교역량(상품)			-0.5	9.6	3.0	-1.2	2.6	3.3
		수출	북미	-9.2	6.4	3.8	3.7	3.6	3.7
			남미	-5.0	6.6	2.9	1.9	2.6	1.4
			유럽	-7.7	8.1	3.7	-2.6	1.7	2.8
			CIS	-1.0	-1.8	-2.1	-6.2	5.3	1.7
			아프리카	-7.2	4.2	-2.4	3.1	5.3	2.4
			중동	-6.5	-0.8	6.6	-1.6	3.5	2.2
			아시아	0.6	13.1	0.4	0.1	3.4	3.4
		수입	북미	-5.2	11.9	5.7	-2.0	1.0	3.3
			남미	-9.6	24.8	4.2	-3.1	2.7	3.4
			유럽	-7.2	8.8	6.0	-4.7	0.1	3.1
			CIS	-5.4	10.3	-6.1	18.8	-3.8	2.9
			아프리카	-15.5	7.4	8.8	-2.4	4.4	1.6
			중동	-9.7	13.8	14.1	9.8	1.2	2.1
			아시아	-1.0	10.5	-0.7	-0.6	5.6	4.7

자료: IMF WEO(2024. 4); WTO(2024. 4).

글상자 1-2. 세계 주요국 교역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 미-중 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측의 진영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대두되었으며, 세계 교역에서의 탈중국화 역시 핵심 이슈로 부상함. 아직까지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별 양상은 매우 상이함.

-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1~23년)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만 코로나19 직전(2018~19년)과 비교하면 대중국 비중 자체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 역시 일부분 감안한다면, 세계 교역에서의 탈중국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별 및 수출입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한국·미국·일본 등의 경우 대중국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 및 2021년 25.3%에서 2023년 19.7%로 크게 낮아짐.

○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2018년부터 대중국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018년 21.2%에서 2021년 17.8% 및 2023년 13.9%로 크게 하락했으며, 반면 수출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

○ 일본은 2020년 이후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의 비중이 비교적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만 2023년 수입에서는 다소 상승함.

- 반면 EU·인도 등의 대중국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유지, ASEAN·러시아 등의 대중국 비중은 증가 추이가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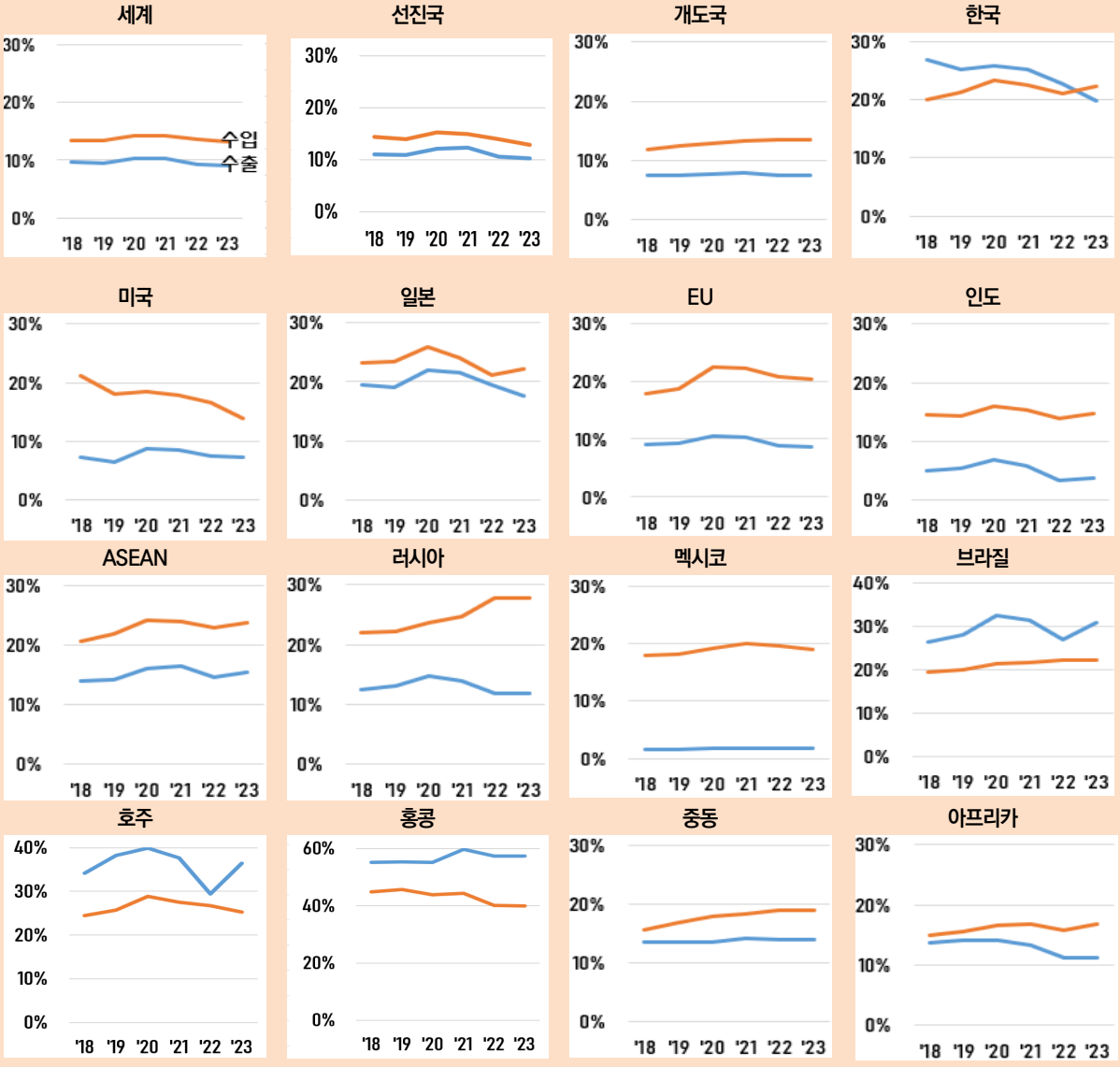
○ EU는 2021년부터 수출입 모두에서 대중국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입 비중은 소폭 상승함.

○ ASEAN은 최근 등락이 교차하고는 있으나 2018년 대비로는 대중국 비중이 수출입 모두에서 높아지는 추이임.

○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2022년까지 대중국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상기한 국가들과 더불어 브라질·중동·아프리카에서도 대중국 수입 비중은 증가 추이가 나타나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큼.

그림 1-16. 세계 주요국의 수출 및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주: 1) EU는 역내 교역(2023년 기준 약 61%)을 제외한 역외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
2) 홍콩은 '주요국-중국' 간 교역에서 '주요국-홍콩-중국' 간 교역으로의 이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국가임.
자료: IMF DOTS(검색일: 2024. 4. 4).

2.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

가. 금리

1) 2024년 동향

■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상승 곡선을 그리던 2023년 10월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각종 지표의 혼조와 이로 인한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예상으로 연초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미국] 연준은 '23년 7월 이후 9개월간 금리를 5.25~5.5% 수준에서 유지 중임. '24년 3월 20일 연준의 FOMC 이후 점도표를 통해 연준 위원 19명 중 10명이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내 금리 인하 2회를 예상하였음. 따라서 올 6월부터 세 차례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 미국의 근원물가는 작년 4월 5.5%를 달성한 이후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3% 상방('24년 3월 기준 3.8%)에서 횡보 중임. 4월 5일 발표된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대비 30만 3,000건 증가하며 12개월 월평균 증가 폭 21만 3,000건을 큰 폭으로 상회함에 따라 연내 세 차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함.

○ 3월 고용지표 발표 직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신고점을 갱신하여 4.4%를 돌파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음. 다만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이 뜨겁더라도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연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함.

○ 4월 10일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3.5%로 시장 예상치인 3.4%를 초과하였고,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국제유가 역시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로 한때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으나 이후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5월 7일 기준 84달러 정도로 하락한 상태임.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 물가 상승을 제외한 3월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전월과 같은 3.8%에 머물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짐.

○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8일 기준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91.2%, 9월 FOMC에서 한 차례 내릴 확률이 49%로 우세함. 그리고 12월에 한 차례 더 내릴 확률은 35.9%로 예측됨.

○ 물가상승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고, 3월 기준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기 역시 연초보다 늦어져 기준 금리에 민감한 미 2년 국채금리는 연초 4.1%대에서 5월 FOMC 직전 5.0%대로 상승함.

○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역시 4월 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립금리가 연준이 추정하는 2.5~2.6%보다 훨씬 높은 4% 이상일 가능성도 제기하며,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 필요성을 상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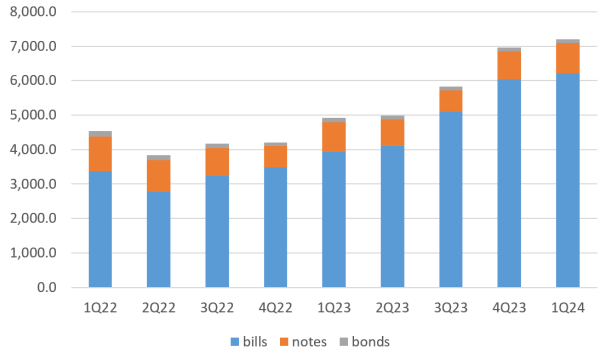
○ 하지만 미국의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대비 17만 5,000건 증가하여 3월의 30만 3,000건 대비 크게 줄어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되었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불어넣음.

○ 5월 FOMC를 통해 연준은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6월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QT) 속도를 완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연준의 월 QT 목표 금액은 6월부터 월 950억 달러에서 월 600억 달러로 줄어들 예정임.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채 공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6%에서 6.1%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미국채의 규모를 현재 28조 달러에서 10년 후 48조까지 늘릴 것으로 보임. 이는 지정학적 분쟁의 고조나 심각한 경기 침체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 장기 국채금리의 인상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미국 국채 발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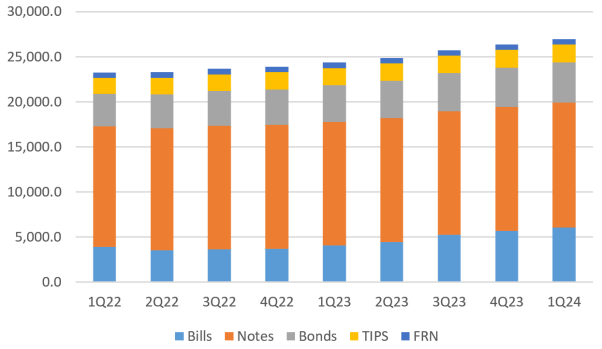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주: 1) Bills, Notes, Bonds는 각각 만기 1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 채권을 뜻함. TIPS는 물가연동채권, FRN은 변동금리부채권을 의미함.
2) 발행량은 Issuance Gross 기준임.
자료: 미국 증권산업 금융시장 협회(SIFMA)(검색일: 2024. 5. 7).

그림 2-2. 미국 국채 잔액

(단위: 십억 달러)



주: 1) Bills, Notes, Bonds는 각각 만기 1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 채권을 뜻함. TIPS는 물가연동채권, FRN은 변동금리부채권을 의미함.
2) 잔액은 Outstanding 기준임.
자료: 미국 증권산업 금융시장 협회(SIFMA)(검색일: 2024. 5. 7).

- [유럽] ECB는 기준금리를 2022년 7월 0.5%에서 10회 연속 올려 2023년 9월 4.5%에 도달한 이후 동결 중임. 이는 22년 만의 최고 수준임. ECB는 3월 7일 발표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2024년에 2.3%, 2025년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restrictive level)의 금리를 유지하여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함.

  ○ ECB는 11일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하였으나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큰 충격이 없다면 곧 제한적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함.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겸 ECB 정책의원 역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근원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고려하여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함. 6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ECB가 6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미국의 견조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유럽 국가의 10년 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하여 독일 10년 국채금리는 2023년 4/4분기 최고 3%에서 2023년 연말 1% 후반대로 떨어진 후 다시 2.5%대로 상승함. 영국의 국채금리 역시 같은 기간 최고 4.7%를 달성한 후 3.4%대로 내려왔다가 4.1%대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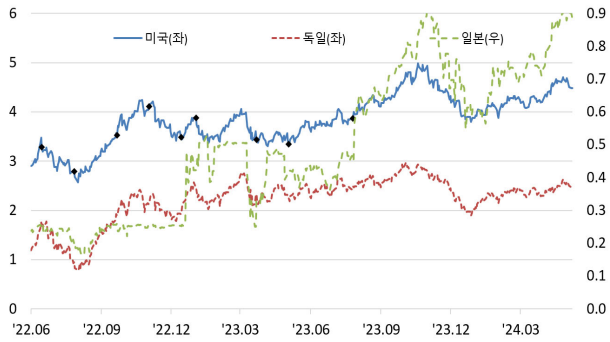
- [일본] 일본의 10년 국채금리 역시 완만하게 상승 중이나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임.

  ○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16년 2월에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여 단기 정책금리를 -0.1%로 유지하였으나, 2024년 3월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유도, 2016년 9월부터 금융 완화를 위해 설정하였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여 장기 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앰. 또한 엔화 약세를 유도한 아베노믹스를 통해 2010년부터 지속하던 ETF와 REIT 매입을 중단함.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2023년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1%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 발표한 대기업 임금인상률 중간집계 역시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5.28%대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일본의 작년 하반기 성장률이 -1.9%로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임.

그림 2-3. 주요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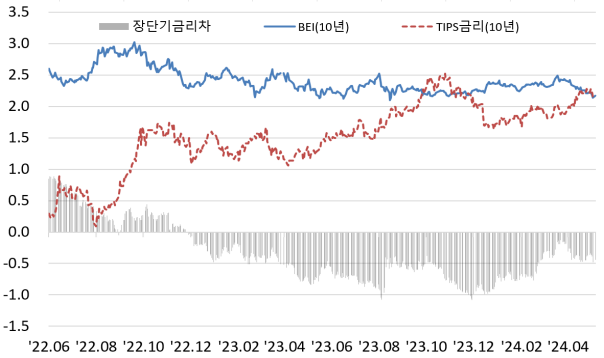
(단위: %)



주: ◆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일을 의미함.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그림 2-4.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및 장단기 금리차

(단위: %, %p)



주: 장단기 금리차는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간 차이임.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검색일: 2024. 5. 7).

표 2-1.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동향

선진국	2024년 조정 횟수	2024년 조정 폭(%p)	최근 조정일	현재 기준금리(%)	신흥국	2024년 조정 횟수	2024년 조정 폭(%p)	최근 조정일	현재 기준금리(%)
일본	1회	0.01	3/19	0.0	태국	(5회)	(1.25)	9/27	2.5
스위스	1회	-0.25	3/22	1.5	말레이시아	(1회)	(0.25)	5/3	3
대만	1회	0.125	3/22	2.0	중국	(2회)	(-0.2)	8/21	3.45
한국	(1회)	(0.25)	1/13	3.5	아랍에미리트	(4회)	(1)	7/26	5.4
스웨덴	1회	-0.25	5/8	3.75	폴란드	(2회)	(-1)	10/5	5.75
호주	(5회)	(1.25)	11/8	4.35	사우디	(4회)	(1)	7/26	6
노르웨이	(6회)	(1.75)	12/15	4.5	인도네시아	1회	0.25	4/24	6.25
유로 지역	(6회)	(2)	9/20	4.5	필리핀	(3회)	(1)	10/27	6.5
캐나다	(3회)	(0.75)	7/13	5.0	인도	(1회)	(0.25)	2/8	6.5
영국	(5회)	(1.75)	8/3	5.25	칠레	2회	-1.75	4/3	6.5
체코	3회	-1.5	5/3	5.25	헝가리	4회	-2.5	4/24	7.75
미국	(4회)	(1)	7/27	5.5	남아공	(3회)	(1.25)	5/26	8.25
뉴질랜드	(3회)	(1.25)	5/25	5.5	브라질	3회	-1.25	5/9	10.5
홍콩	(4회)	(1)	7/27	5.75	멕시코	1회	-0.25	3/22	11
					아르헨티나	4회	-50	5/2	50

주: 1)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은 IMF 기준을 따름.
2) 그룹 내 정렬은 현재 기준금리 오름차순.
3) 괄호 ( ) 안의 값은 2023년 기준임. 2024년에 금리 변경한 경우 녹색배경으로 표시함.
4) 이 외 튀르키예는 연중 금리 인상을 단행함.
자료: 국제금융센터; 각국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14).

■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는 10년물이 2023년 10월 30일 기준 4.33%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17%까지 떨어진 후 금리 인하 시점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5월 7일 기준 3.61%까지 반등하였음.

-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여 현재 3.5%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행 총재는 2월 금통위 직후 상반기 중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4월 12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발표함.

○ 한은 총재는 4월 금통위에서 유가가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 경로인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가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로 수렴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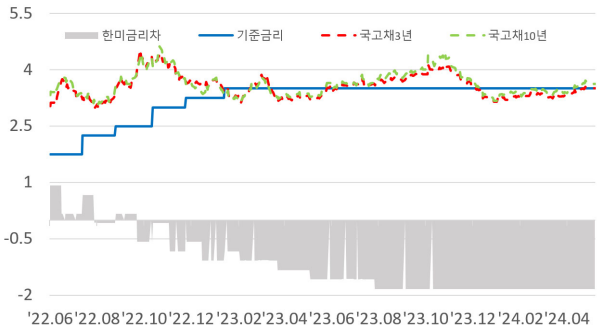
○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제자리걸음 중이며, 농축수산물 물가가 11.7%로 크게 상승함.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 미국의 경기 호조에 힘입은 유가의 상승 압력에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투자는 향후 미국 금리가 내려갈 경우의 원화 가치 절상에 따른 재정거래 유인으로 인해 순투자가 일어나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후퇴함에 따라 순매수도 정체함.

○ 가계 대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하여 860조를 경신하여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 대출 연체율 역시 0.51%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5.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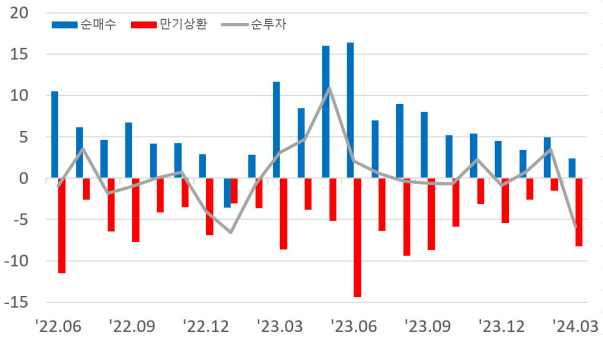
(단위: %, %p)



주: 한미 금리차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상한) 간 차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그림 2-6.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단위: 조 원)



주: 외국인 순투자는 '순매수-만기상환'으로 정의.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인국내투자동향」, 각 호(검색일: 2024. 5. 7).

2)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국채금리 하락 압력이 있으나, 느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변화 불확실성 등으로 국채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존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견조한 고용지표 흐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목표치에서 벗어난 근원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나, 물가상승률이 미국 연준 목표(2%)에 충분히 근접할 경우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호조가 내년까지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아 2025년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이나 미국 자체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미국 역시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데 망설임이 없을 것임.

- 유럽의 경우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세 둔화로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이전이라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표 2-2.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

(단위: %)

구분			2024 Q2	2024 Q3	2024 Q4
미국	기준금리[1] 중간값		5.50	5.25	5.00
	10년물 국채금리				
		중간값	4.4	4.25	4.10
		최고치	5.05	4.95	4.95
		최저치	3.75	3.39	3.00
독일	기준금리[2] 중간값		4.25	3.65	3.15
	10년물 국채금리				
		중간값	2.30	2.23	2.20
		최고치	2.45	2.40	2.50
		최저치	2.00	1.85	1.75
일본	기준금리[3] 중간값		0.00	0.00	0.10
	10년물 국채금리				
		중간값	0.80	0.90	0.95
		최고치	1.10	1.20	1.40
		최저치	0.62	0.73	0.75

주: 1) 연방기금목표금리(federal funds target range) 상한(upper limit) 기준.
2) ECB 재융자 금리[interest rate on the main refinancing operations (MRO)] 기준.
3) 일본은행 정책금리(Bank of Japan Policy Rate)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나. 환율

1) 2024년 동향

■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23년 4/4분기 연준의 금리인상 종결 시사와 피봇 기대로 감소하다가 '24년 1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4월 16일 연고점인 106.26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3년 연고점이었던 107에 근접한 수준임(5월 7일 기준).

- 연준은 '23년 12월, '24년 1월, 3월, 5월 FOMC에서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함. 3월 FOMC에서 기존의 ''24년 중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달러인덱스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3·4월 연이어 지속된 미국 노동시장 강세와 디스인플레이션의 부진으로 인해 강달러 추세가 두드러지고 달러인덱스는 5월 7일 105.17까지 상승함.

○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속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이 더디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위축되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

*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16]: ('23년 12월) 3.32% → ('24년 1월) 3.11% → (2월) 3.17% → (3월) 3.48%

**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17]: ('23년 12월) 3.91% → ('24년 1월) 3.87% → (2월) 3.76% → (3월) 3.80%

○ 미국 비농업고용의 전월대비 증가치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였으며, 이는 미 연준의 고금리 유지 기조에 힘을 더하여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금리 인하 폭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높임.

* 미국 비농업고용 상승폭(전월대비 고용증가 수)[18]: ('23년 12월) 29만 명 → ('24년 1월) 25.6만 명 → (2월) 23.6만 명 → (3월) 31.5만 명 → (4월) 17.5만 명

○ 이에 따라 '23년 말 경기둔화,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10년 장기 국채금리는 견조한 고용지표와 디스인플레이션의 더딘 진행으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4월 25일 연고점인 4.70%를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82bp 상승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9]: ('23년 11월 말) 4.33% → (12월 말) 3.88% → ('24년 1월 말) 3.91% → (2월 말) 4.25% → (3월 말) 4.20% → (4월 말) 4.68% → (5월 6일) 4.49%

○ 미국경제의 견조한 소비와 양호한 고용지표,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연 등으로 달러 인덱스는 '24년 1월 2일 102.20에서 4월 16일 연고점인 106.26까지 증가하여 '23년 4/4분기의 감소폭을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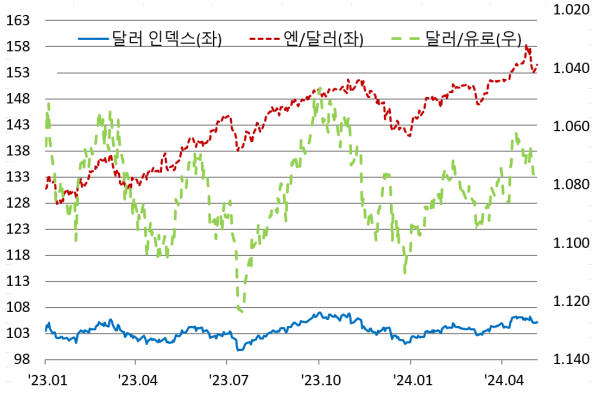
○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해 격화되는 중동 리스크도 글로벌 불확실성을 높이며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

○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모두 전년 말 대비 절하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반영

* 5월 7일 기준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은 미달러화와 비교하여 전년 말일 대비 각각 -2.46%, -8.74%, -1.37%, -3.13%, -6.90%, -7.24% 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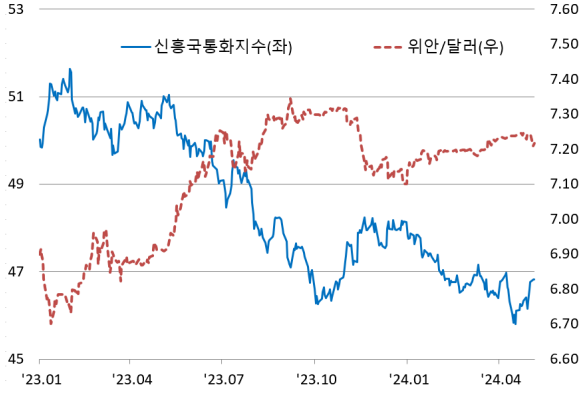
16) FRED,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All Items in U.S. City Average(검색일: 2024. 5. 7).
17) FRED,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in U.S. City Average(검색일: 2024. 5. 7).
18) FRED, All Employees, Total Nonfarm(검색일: 2024. 5. 7).
19) Bloomberg(검색일: 2024. 5.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2-7. 달러 인덱스*와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주: *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임(1973년 3월=100).
** 우측 달러/유로 축은 상하 반전되어 상향 이동이 유로화 약세를 의미.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그림 2-8. 신흥국 통화지수*와 위안/달러 환율 추이



주: * JP모건지수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10개 신흥국(브라질, 칠레, 중국(CNH), 헝가리, 인도,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튀르키예, 남아공)의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에 대비하여 나타낸 것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 [유로화]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23년 4/4분기 동안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어 강세를 보이다가 '24년 1월부터 다시 약세로 전환, '23년 12월 29일 1.10달러/유로에서 '24년 5월 7일 1.08달러/유로로 -2.46% 절하됨.

  * 미국-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bp)[20]: ('23년 10월 말) 213bp → (11월 말) 188bp → (12월 말) 186bp → ('24년 1월 말) 175bp → (2월 말) 184bp → (3월 말) 190bp → (4월 말) 210bp → (5월 6일) 202bp

  ○ ECB는 1, 3, 4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0%로 연속 동결했지만 '24년 1월 이후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강달러로 인해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1.06에서 1.09 사이에서 약보합세(5월 7일 기준)

  ○ 유로 지역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4.0%에 교착되었지만, 임금 상승세 완화, 에너지난 및 공급 병목 등에 의한 공급 충격 영향 감소로 유로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

  * 유로 지역[21] 소비자물가상승률(HICP, 전년대비)[22]: ('23년 12월) 2.9% → ('24년 1월) 2.8% → (2월) 2.6% → (3월) 2.4% → (4월) 2.4%

- [엔화] 엔/달러 환율은 '23년 4/4분기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라 '24년 1월 1일 달러당 140.89엔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엔화 약세 지속으로 4월 26일 기준 달러당 158.33엔까지 상승하여 '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수정 기대감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어 '23년 11월 13일 달러당 151.72엔에서 '24년 1월 1일 달러당 140.89엔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를 저점으로 강달러 추세와 함께 다시 상승세

  ○ 일본은행은 3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수익률곡선 제어(YCC)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종료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발표, 17년 만에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일본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10년물 국채금리가 3월 말 0.72%에서 4월 30일 0.87%로 15bp 상승에 그침.***

20) Bloomberg(검색일: 2024. 5.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1) 유로 지역은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핀란드까지 총 20개 국가를 포함.
22) Eurostat(2024. 4. 30), "Euroindicators," '24년 4월 통계치 2.4%는 추정치(estimate).

*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로 변경하여 0.0~0.1%로 유지하기 위해 당좌예금 초과지준 잔액에 대해 0.1%의 금리를 부과하였고, 장기금리(10년물)의 상한 목표치(1.0%)를 삭제

** 일본 10년물 국채금리[23]: ('23년 10월 말) 0.94% → (11월 말) 0.67% → (12월 말) 0.61% → ('24년 1월 말) 0.73% → (2월 말) 0.70% → (3월 말) 0.72% → (4월 말) 0.87% → (5월 6일) 0.90%

*** 동 기간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8bp, 29b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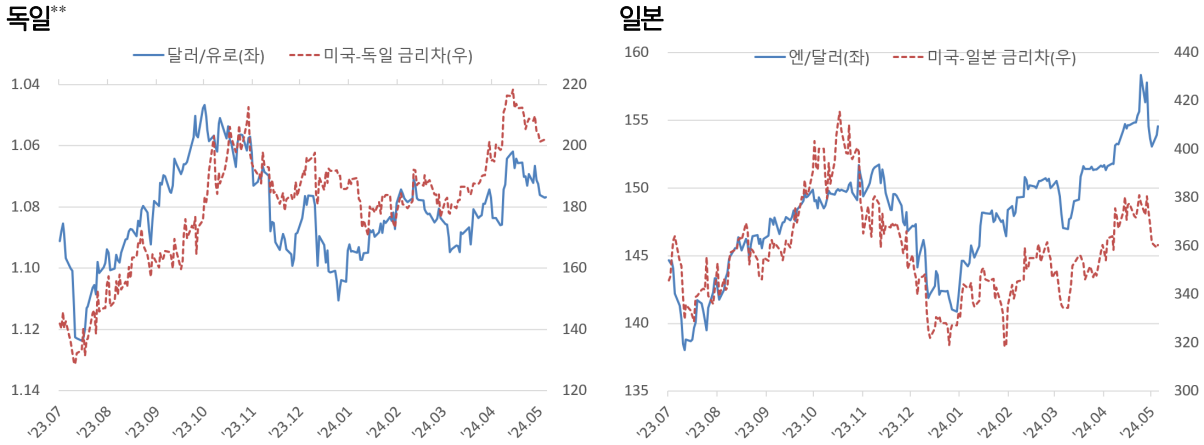
○ 3월 춘계 임금협상에서 임금상승률*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서비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2%의 물가목표**가 안정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

* 3월 15일 기준 임금인상률 중간집계치는 5.28%로, 이는 '91년(5.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24]

** 근원CPI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 ('23년 10월) 2.9% → (11월) 2.5% → (12월) 2.3% → ('24년 1월) 2.0% → (2월) 2.8% → (3월) 2.6%[25]

○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3월 19일 긴축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였으나, 4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3월 정책을 유지하고 완화적 금융정책 기조를 시사하여 엔저 압력이 지속

그림 2-9. 미국 달러 대비 환율 및 금리차* 추이



주: * 미국-독일, 미국-일본의 금리차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해당 국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제한 basis point 단윗값.
** 좌측 달러/유로 축은 상하 반전되어 상향이동이 유로화 약세를 의미.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 [위안화] 위안/달러 환율은 '23년 10월까지 달러당 7.3위안대를 횡보하다 11월 중순 하락세를 시작하여 '24년 1월 1일 7.10위안까지 하락, 이후 이를 저점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며 5월 6일 기준 달러당 7.21위안을 기록함.

○ '23년 11월 중순 위안화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따라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약세

* '24년 3월 11일 무디스가 완커(중국 2위 부동산업체)의 투자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Baa3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강등하는 등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추세이고, 국내 유효 수요 부족,[26] 높은 청년실업률, 고용시장 부진 등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미·중 금리차**를 확대시키면서 위안화 약세를 압박

23) Bloomberg(검색일: 2024. 5.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4)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제 1회 답변 집계 보도자료(검색일: 2024. 4. 23).
25) 일본 통계청(검색일: 2024. 4. 26).
26) 중국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2024. 4. 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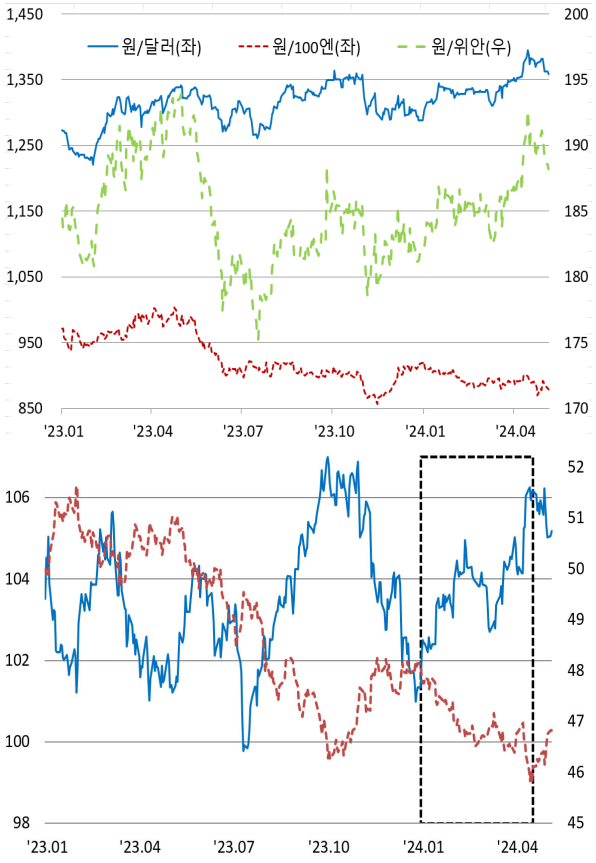
* 인민은행은 '24년 2월 5일 대형은행(10.5% → 10.0%)과 중소은행(7.5% → 7.0%)의 지급준비율을 0.5%p씩 각각 인하하였고, 2월 20일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4.2%에서 3.95%로 0.25%p 인하

** 미국-중국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bp): ('23년 10월 말) 224 → (11월 말) 164 → (12월 말) 132→ ('24년 1월 말) 148 → (2월 말) 190 → (3월 말) 191 → (4월 말) 237 → (5월 6일) 218[27]

- [신흥국 통화지수] 신흥국 통화지수는 '23년 10월 5일 46.26을 저점으로 미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23년 12월 19일 48.18을 고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4년 4.30일 기준 46.16으로 지난 상승폭을 반납함(JP모건 신흥국 통화지수 기준).

○ 전년 말 대비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 평가절하된 가운데, 특히 튀르키예 리라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태국 바트화, 칠레 페소화가 미 달러 대비 -8.55%, -8.15%, -7.13%, -5.55%의 평가절하율을 기록(5월 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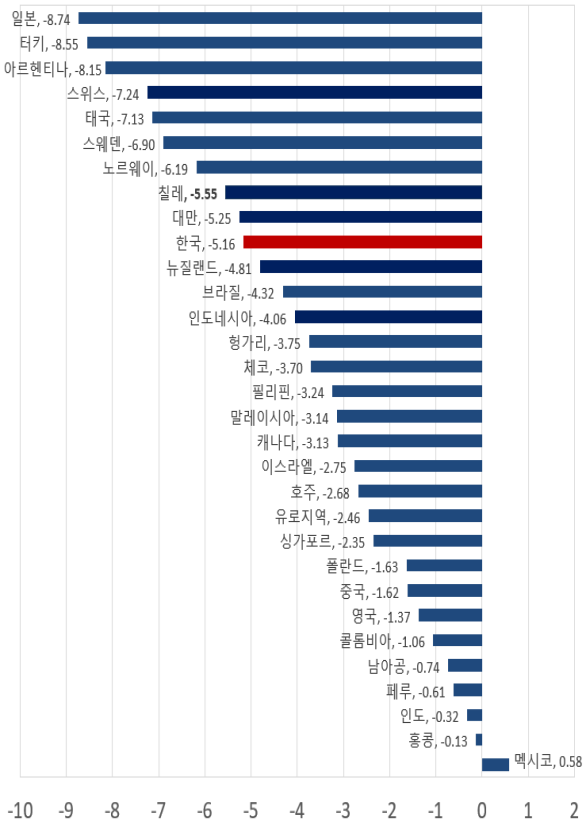
그림 2-10.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그림 2-11. 주요 32개국[1]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2]

(단위: %)



주: 1) IMF(2020), AREAER 기준 변동(Floating) 및 자유변동(Free Floating)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 중 28개 주요국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포함.
2) 2023. 12. 29 대비 2024. 5. 7 환율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저자 계산.

27) Bloomberg(검색일: 2024. 5.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미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된 '24년 1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24년 초부터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와 디스인플레이션의 더딘 진행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다시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절하됨.
  - ○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24년 1월 1일 1,288.10원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월 16일 연고점인 1,394.65원까지 급등
  - ○ 이는 미 달러화와 비교하여 전년 말 대비 -7.64%까지 절하된 것이나, 동 기간 주요국 환율 연고점(일본 엔화 -10.92%, 스위스 프랑 -8.48%, 스웨덴 크로나 -8.63%)의 절하 정도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5월 7일 기준)
  - ○ 2023년 말 대비 원/엔 환율은 -4.26% 하락하여 원화 대비 엔화 약세를 보였으며, 원/위안 환율은 3.50% 상승하여 원화 대비 위안화 강세(5월 7일 기준)
  - ○ 대한국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의 경우 '23년(12.7조 원)에 이어 '24년에도 현재까지 총 19.9조 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고, 채권은 '23년 91조 원의 순유입 이후 '24년 현재까지 17.4조 원의 순유입을 시현[28]
  - ○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자금[29]은 '23년 한 해 동안 주식 0.4억 달러, 채권 12.9억 달러 감소한 이후, '24년 2월까지 주식 30.8억 달러*, 채권 29.2억 달러 증가**
    - * 내국인 해외주식투자 증가 추이(억 달러): ('23년 10월 말) -4.8 → (11월 말) -10.6 → (12월 말) 8.6 → ('24년 1월 말) 18.4 → (2월 말) 12.4
    - ** 내국인 해외채권투자 증가 추이(억 달러): ('23년 10월 말) -31.9 → (11월 말) -22.2 → (12월 말) -18.0 → ('24년 1월 말) 16.2 → (2월 말) 13.0

2) 2024년 및 2025년 전망

■ 디스인플레이션의 더딘 진행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년 상반기까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금리 여파에 따른 미 노동시장 지표 및 성장률의 둔화가 가시화되는 경우 달러화는 약세 전환될 전망임.

- 미국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둔화 징표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될 전망임.
  - ○ '24년 1/4분기 미국 GDP 증가율이 1.6%(4월 25일 속보치)로 전기대비 둔화되고, 4월 비농업고용 지표가 시장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미 노동시장 균형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
  - ○ 디스인플레이션의 진행이 더딘 가운데 미국 고금리 기조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며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 지역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어 금년 6월부터 ECB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될 경우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금리차 확대와 함께 유로화 약세 압력이 우세할 전망임.
  - ○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와 글로벌 경제 부진 등으로 유로 지역의 경기 흐름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여 ECB의 금리 인하는 미 연준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
  - ○ ECB의 금리 인하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릴 경우 유로 지역 성장률 등 펀더멘털의 회복 여부에 따라 유로화 강세 크기가 결정될 전망
- 일본 엔화 가치는 금년 중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시점부터 약세 압력이 점차 완화될 전망임.

---

28) 금융감독원(2024. 5. 7), 「일일 금융시장 동향」.
2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4. 4. 29), 「국제수지」.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로 엔화 약세 압력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나, 미 연준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엔화 강세로의 전환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위안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부터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경기 확장정책 시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중국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서 완만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라 제조업 투자·생산이 활성화되어 경기회복을 뒷받침

○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미약한 내수 개선세,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은 중국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을 더하여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경기회복을 위한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미·중 금리차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

■ **미 통화정책 완화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고환율을 보이다가,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점부터 하락세(원화 강세)로 전환될 전망임.**

- 미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 모두 절하된 가운데, 원화도 달러화 강세 여파로 달러화 대비 약세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기조가 더딘 디스인플레이션 및 견조한 고용지표로 가시화되어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되고,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부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우세

○ 반도체, IT 경기 반등, 미국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수출이 회복되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입은 감소하면서 '24년도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망되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2024년 2/4분기 1,370원, 3/4분기 1,350원, 4/4분기 1,33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2024년 5월 7일, 중간값 기준)하고 있음.

표 2-3.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구분	원/달러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24Q2	'24Q3	'24Q4	'24Q2	'24Q3	'24Q4	'24Q2	'24Q3	'24Q4	'24Q2	'24Q3	'24Q4
Barclays	1,335	1,310	1,280	1.07	1.05	1.06	150	148	145	7.25	7.30	7.20
BNP Paribas	1,410	1,400	1,390	1.05	1.05	1.06	155	154	153	7.45	7.45	7.40
Citigroup	1,300	1,317	1,314	1.06	1.04	1.02	150	148	146	7.27	7.31	7.34
ING Financial Markets	1,330	1,280	1,320	1.08	1.10	1.10	150	143	138	7.27	7.18	7.12
JPMorgan Chase	1,400	1,385	1,345	1.05	1.05	1.09	155	154	153	7.30	7.30	7.25
Nomura Bank International	1,375	1,325	1,300	1.06	1.07	1.07	150	145	143	7.32	7.30	7.30
Prestige Economics LLC	1,330	1,310	1,295	1.11	1.13	1.14	148	144	142	7.20	7.18	7.16
Wells Fargo	1,380	1,380	1,370	1.05	1.04	1.05	155	156	153	7.26	7.28	7.25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1,370	1,350	1,330	1.07	1.07	1.09	152	149	146	7.25	7.22	7.2
평균값	1,371	1,349	1,332	1.07	1.08	1.08	152	149	147	7.25	7.24	7.2
선물 환율	1,355	1,349	1,342	1.08	1.09	1.09	153	151	149	7.09	7.08	7.05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다. 국제유가

1) 2024년 동향

■ 유가는 최근(2024년 1분기)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2022년 4분기부터 1년 반 동안 70~90달러(WTI 기준)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4년 1분기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측 요인(중동 긴장 고조)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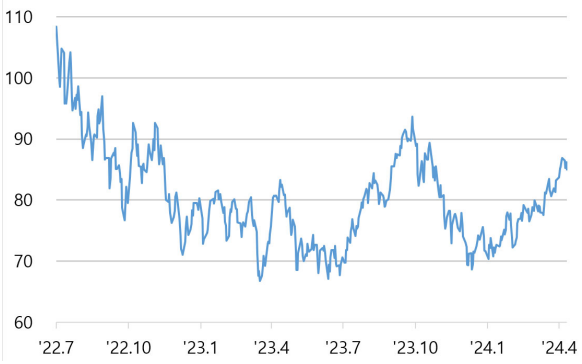
- 직전 전망시기인 2023년 11월 초 약 80달러였던 유가는 12월 중순 60달러 후반까지 하락하였다가 반등, 2024년 4월 5일에 5개월 고점인 86.91달러에 도달함.
- 2023년 4분기 유가의 하락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 증가 둔화와 비OPEC+가 주도하는 원유 생산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초과 공급 발생).
- 최근 중동 분쟁 전개 양상은 중동 파트 참조

■ 공급은 OPEC+의 계속되는 감산을 비OPEC+, 특히 미국의 생산량 증대가 상당 부분 상쇄하는 형국이며, 수요는 2023년의 급격한 상승 추세가 둔화되는 양상임.

- 202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OPEC+ 국가는 220만 배럴/일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당해 1분기를 넘어 2분기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함.[30]
  - ○ 이는 시장이 예측했던 사항으로, 유가에 이미 반영됐던 것으로 추정
  - ○ 작년 11월 OPEC+는 공식적으로 200만 배럴/일의 감산에 합의, 위의 자발적 감산은 이와 별개
  - ○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규모는 100만 배럴/일,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규모는 47만 1천 배럴/일
  - ○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규모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파괴와도 연관된 것으로 추정

그림 2-12. WTI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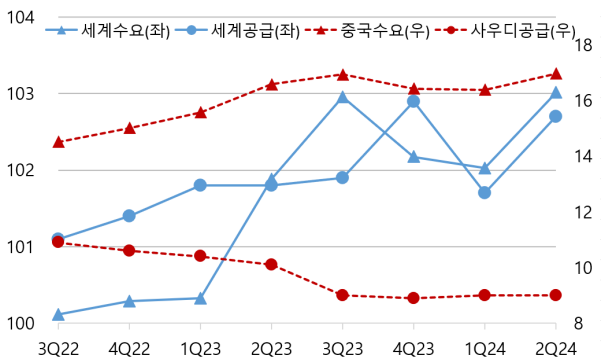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자료: 블룸버그(검색일: 2024. 4. 14).

그림 2-13. 원유의 수요와 공급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블룸버그(검색일: 2024. 4. 14); IEA(2024. 4. 14).

30) CNBC(2024. 3. 3), "Saudi Arabia, Russia and several OPEC+ producers extend voluntary crude supply cuts until end of June" (검색일: 2024. 4. 27).

- 사우디의 감산은 충분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우디의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흔히 8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네옴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비전 2030'의 추진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사실 그보다 훨씬 높은 90~1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31]

○ 그러나 지속적인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90달러 미만 수준을 유지하면서(2023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약 82달러) 2023년 사우디는 -0.9% 성장률의 역성장을 기록

- 반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3년 12월에 역대 최고치인 1,330만 배럴/일을 기록함.[32]

○ 이후 2024년 1~3월에는 다소 꺾인 모습을 보이나, 연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EIA)[33]

※ 1~3월 생산량은 각각 1,250만, 1,310만, 1,320만 배럴/일이며, 23년과 24년의 생산량은 각각 1,290만, 1,320만 배럴/일

○ 미국은 6년 연속(2018~23) 최대 원유 생산국

※ 2023년 기준 미국>러시아>사우디 순

○ 2023년 10월, 엑슨모빌은 셰일가스 생산업체 파이어니어를 595억 달러에 인수하고 셰브론은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헤스를 53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거대 석유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생산성을 확대

- 앙골라의 OPEC 탈퇴 역시 OPEC+의 유가 상승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임.

○ 2023년 12월 앙골라는 OPEC+의 감산 쿼터에 불만을 제기하며 OPEC 탈퇴, 앙골라의 탈퇴로 OPEC 회원국은 12개국으로 감소

○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은 110만 배럴/일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앙골라의 증산 자체가 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카르텔 결속의 약화를 시사

- 중국이 견인한 2023년 1~3분기의 원유 수요 증가는 역시 중국의 수요 감소에 따라 2023년 4분기부터 주춤하는 형태이며, 원유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증가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 3분기 수요량 차이(3분기 - 1분기)는 세계 수요의 경우 263만 배럴/일, 중국 수요의 경우 135만 배럴/일로, 중국 증분의 비율이 약 52%

○ 중국의 석유화학부문(나프타, LPG, 에테인) 수요는 2023년 3분기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 190만 배럴/일 증가

○ 2024년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IEA는 4월 Oil Market Report에서 3월 전망치(130만 배럴/일)를 하향 조정하여 120만 배럴/일로 발표

※ 2023년의 해당 수치는 230만 배럴/일, 2025년 예측치는 2024년 예측치보다도 낮은 110만 배럴/일

○ 수요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IEA는 팬데믹 이후 회복의 완료, 그리고 연료 효율 개선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적

※ 단 2024년 1분기에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 역시 둔화(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직전분기대비 15.2% 감소)[34]

2) 2024년 및 2025년 전망

■ 단기적으로는 중동분쟁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임

- 상황이 악화될 경우 100달러 돌파도 가능하며(세계은행),[3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 기준) 120~130달러도 전망함.[36]

---

31) WSJ(2023. 4. 3), "Saudi Arabia's Oil Production Cuts Reflect Cost of Reshaping Economy"(검색일: 2024. 4. 27).
32) Reuters(2024. 3. 13), "US raises domestic crude production growth forecast for 2024"(검색일: 2024. 4. 28).
33) https://www.eia.gov/dnav/pet/pet_crd_crpdn_adc_mbblpd_m.htm(검색일: 2024. 4. 28).
34) Cox Automotive(2024. 4. 11), "EV Sales Growth Slows; Market Leader Tesla Stalls"(검색일: 2024. 4. 28).
35) 세계은행(2024. 4. 25), "Global Commodity Prices Level Off, Hurting Prospects for Lower Inflation"(검색일: 2024. 4. 29).

○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란, 사우디, UAE 등은 원유 가격 인상, 생산 축소, 수출 금지를 단행했고, 그 결과 유가는 2.90달러에서 1974년 1월 11.65달러로 네 배 폭등, 단 OPEC이 전 세계 원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의 절반 정도에서 현재 27%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

- 현재로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확전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단정짓기 어려우며,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이스라엘군이 2개 여단 병력의 가자지구 배치를 준비 중(2024년 4월 24일)[37]

■ **중동분쟁 요소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70~90달러 구간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사우디는 유가의 지나친 하락을 막는 형국임.

○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임(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알래스카 신규 유전 개발 승인 등, 친환경 정책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임).[38] 즉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러한 추세가 유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단 미국의 전략비축유 재고는 여전히 고점 대비 절반 수준(55.7%)이어서, 유가 폭등 시 2022년처럼 전략비축유 방출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장기 추세는 수요 성장 둔화와 비OPEC+의 생산 증대에 따라 완만한 하향세일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예측치를 제시한 KIEP, IMF와 달리 EIA는 2024년에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수치가 담긴 2024년 4월 Short-Term Energy Outlook(p. 2)에서 그 이유로 세계 원유 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위험을 강조

○ IEA의 예측에 따르면 원유 공급에서 비OPEC+의 비중은 OPEC+의 비중을 2023년 0.88%p, 2024년 3.21%p, 2025년 4.21%p 넘어섬.

표 2-4. 세계 원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류	2023년	2024년	2025년
수요(A)	102.0	103.2	104.3
공급(B)	102.1	102.9	104.5
OPEC+	50.6	49.8	50.0
비OPEC+	51.5	53.1	54.4
초과수요(A-B)	-0.1	0.3	-0.2

자료: IEA(2024. 4. 14).

표 2-5. 주요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유종	2023년	2024년	2025년
KIEP (2024. 5)	WTI	77.63	76.99	71.48
IMF (2024. 4)	3종 평균	80.59	78.61	73.68
EIA (2024. 4)	WTI	77.58	83.78	82.48
	Brent	82.41	88.55	86.98

자료: IMF(2024. 4. 18); EIA(2024. 4. 18).

36) CNBC(2024. 4. 14), "Oil prices could see 'super spike well above $100' if conflict escalates after Iran's attack on Israel"(검색일: 2024. 4. 29).
37) 연합뉴스(2024. 4. 24), 「라파 공격 예고 이스라엘군 "2개 여단 가자지구 투입 준비"」(검색일: 2024. 4. 28).
38) 연합뉴스(2024. 1. 1), 「美 원유생산 역대 최고…친환경 지지 필요한 바이든은 "쉬"」(검색일: 2024.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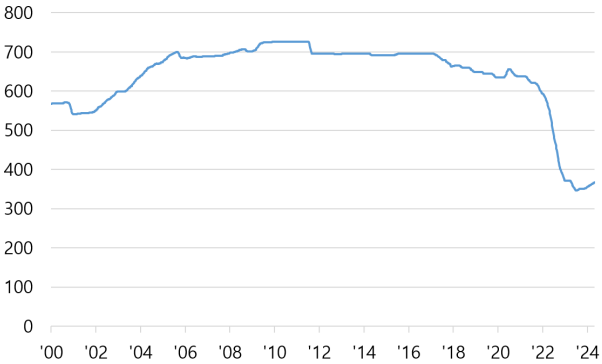
그림 2-14. 미 원유 생산량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EIA(검색일: 2024. 4. 27).

그림 2-15. 미 전략비축유 재고

(단위: 백만 배럴)



자료: 블룸버그(검색일: 2024. 5. 9).

라.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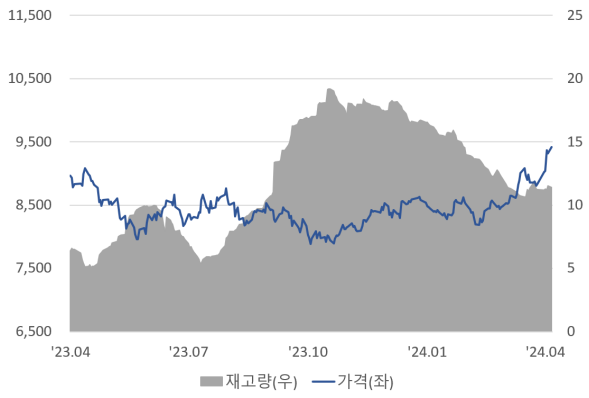
1) 2024년 동향

■ 2024년 비철금속 가격은 △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증설, 친환경 정책 강화로 수요 증가, △ 주요 생산국의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임.

-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증설,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로 전선의 필수 원자재인 구리 수요가 증가함.
  - ○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은 460테라와트시(Twh),[39] 참고로 2022년 한국 전력소비량은 547Twh[40]
    ※ 구글 검색은 건당 0.3Wh인 반면, ChatGPT는 건당 2.9Wh가 필요해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41]
  - ○ 미국 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약 4배 많은 구리를 사용
    ※ 구리 사용량: 내연기관차(22kg), 하이브리드차(39kg), 전기차(83kg), 전기버스(369kg)[42]
- 반면 구리 공급은 남미 주요 생산국의 대규모 광산 폐쇄 및 생산량 감소, 중국의 제련소 가동 축소 등으로 감소함.
  - ○ 파나마의 Cobre 광산은 법원의 구리광산 개발 승인법 위헌 판결로 잠정 폐쇄, 칠레의 Codelco 광산은 장비 노후화 및 국지성 폭우 등으로 생산량 감소, 페루의 Las Bambas 광산은 상시적인 노조 파업, 영국 다국적기업 Anglo American은 '24~'25년 구리 생산 목표량 18~20% 감소
  - ○ 타이트한 구리 정광 수급과 제련능력 향상으로 인해 급락한 제련수수료(90달러대 → 10달러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구리 제련업체들은 생산 감축을 합의
    ※ BHA사의 칠레 Escondida 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정광이 중국 국내에서 제련수수료(TC) 12달러에 거래됨.[43]
- 중국의 견고한 알루미늄 수입,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및 거래 금지조치 등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됨.

그림 2-16. 구리 가격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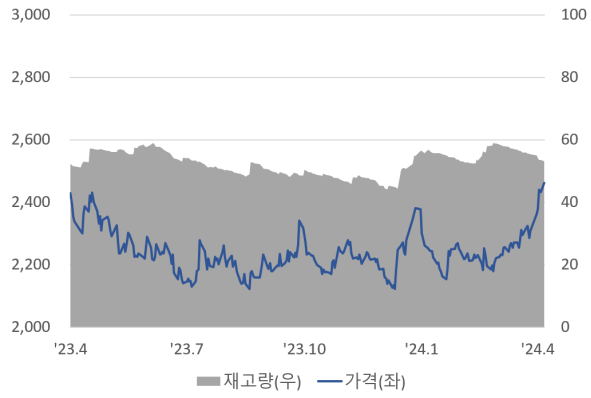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3개월.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4. 4. 9).

그림 2-17. 알루미늄 가격 및 재고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3개월.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4.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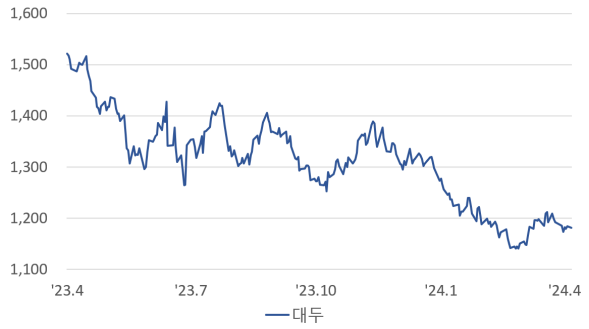
39) IEA(2024),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 p. 31.
40) 한국전력공사,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2.do?menuCd=FN430102/(검색일: 2024. 4. 15).
41) IEA(2024),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 p. 34.
42) 미국 구리개발협회. https://copper.org/environment/sustainable-energy/electric-vehicles/(검색일: 2024. 4. 15).
43) Korea PDS, https://www.koreapds.com/mipds/kp_news/news_class03_view.php?seq=183387/(검색일: 2024. 4. 15).

■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곡물 생산 호조, 높은 재고율,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곡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

- 슈퍼엘니뇨와 라니냐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남미 일부 국가의 곡물 생산은 호조세를 이어감.
  - 로사리오 곡물거래소(BCR)는 23/24시즌 아르헨티나의 대두 및 옥수수 생산량을 각각 5,200만 톤, 5,900만 톤으로 상향 조정[44]
  - 미국은 곡물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여 대두 기말 재고량 전망치가 857만 톤(23/24 3월)에서 926만 톤(23/24 4월)으로 상향 조정[45]
- 러시아 소맥수출량 상향 조정: 4,750만 톤(22/23시즌) → 5,100만 톤(23/24 3월) → 5,200만 톤(23/24 4월)[46]
- 참고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24년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함.
  -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곡물(-2.6%)과 설탕(-5.4%)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유지류(8.0%), 육류(1.7%) 및 유제품(2.9%)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47]

그림 2-18. 대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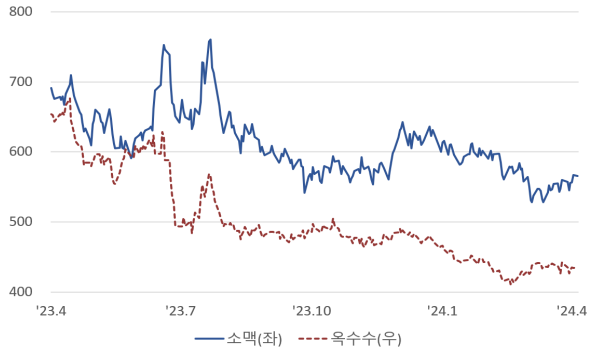
(단위: 센트/부셸)



주: CME(CBOT).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4. 4. 9).

그림 2-19. 소맥 및 옥수수 가격

(단위: 센트/부셸)



주: CME(CBOT).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4. 4. 9).

2) 2024년 및 2025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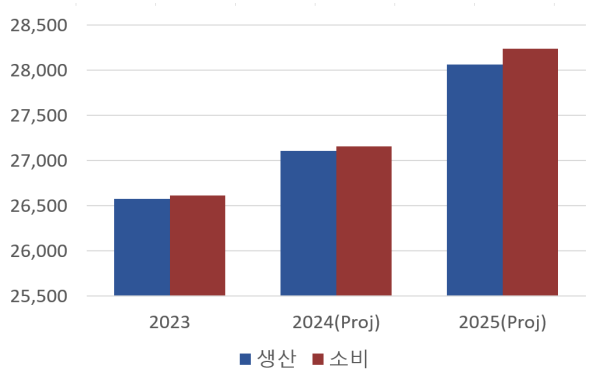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에 대한 국가 주도의 인프라투자 확대로 구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태양광 발전산업의 급속한 성장, △EU의 전기 및 수소 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2025년까지 100만 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등은 구리 수요를 촉진할 것임.
- 그러나 주요 광산업체의 생산량 감축,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여건 악화, 환경 규제 강화, 정치 및 사회적 불안, 중국 제련소 가동 축소 등으로 비철금속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44) Korea PDS(2024. 2. 26), 「주간 농산물 보고서」, p. 4.
45) USDA(2023.4. 11),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WSADE)," p. 28.
46) *Ibid.*, p. 19.
47) UN FAO,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검색일: 2024. 4. 19).

그림 2-20. 구리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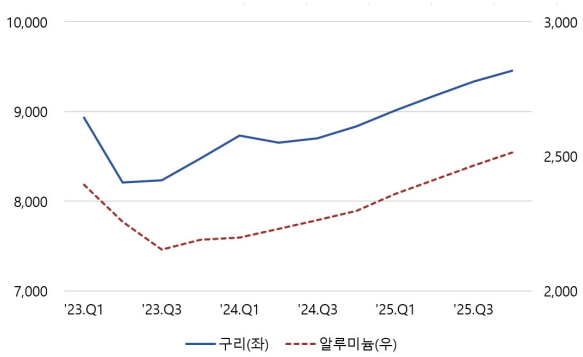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주: 정련구리 생산(Refined Production).
자료: EIU, "Commodity forecast: World"(검색일: 2024. 4. 1).

그림 2-21. 구리 및 알루미늄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주: '24. Q1 이후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4. 4. 24).

■ 주요 곡물 가격은 북미 및 남미 지역의 생산 증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

- 국제곡물이사회(IGC)는 2024/25년도 주요 곡물 소비량이 24억 3,000만 톤으로, 2023/24년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소맥의 소비량은 -0.4% 감소, 옥수수와 대두의 소비량은 각각 0.9%,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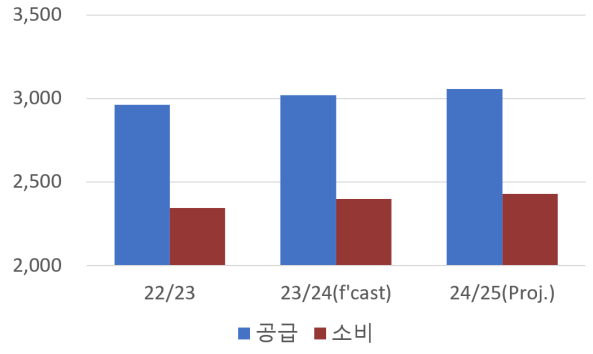
-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북미 및 남미에서의 생산 증대로 2024/25년도 전 세계 공급량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 IGC는 2024/25년도 주요 곡물 공급량 30억 5,600만 톤, 생산량 24억 3,600만 톤, 재고량 6억 1,900만 톤, 교역량 5억 4,500만 톤으로 각각 2023/24년도에 비해 1.2%, 1.4%, 0.4%, -1.0% 증감할 것으로 전망

- 기상여건 악화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그림 2-22. 주요 곡물 수급 전망[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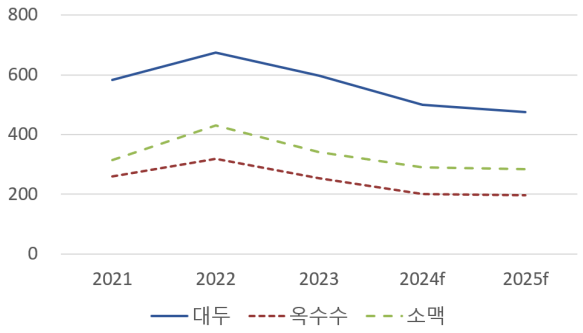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주: 2023/24는 예측치, 2024/25는 전망치.
자료: IGC, "Grain Market Report"(검색일: 2024. 4. 18).

그림 2-23. 주요 곡물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주: 연평균 가격. 2024, 2025년 예측치.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검색일: 2024. 4. 25).

48) 소맥, 옥수수, 대두의 합산. 공급량은 기재고량과 생산량의 합산.

3. 선진국 경제 전망

가. 미국

1) 거시경제 현황

■ [실물동향] 개인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1/4분기 미국 경제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함.

- [소비지출] 견조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 부담의 영향으로 소비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음.
- [민간투자] 비주거용 투자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투자도 크게 늘어나며 민간투자는 4분기 연속 성장함.
- [수출입] 수출 둔화와 수입 확대로 순수출은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로 전환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2분기 연속 확대
- [정부지출] 2024년 1/4분기 연방정부가 국방비 등 지출을 줄이면서 전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됨.
- [물가] 근원 PCE는 2022년 3/4분기 이후 점차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서비스 부문의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표 3-1. 미국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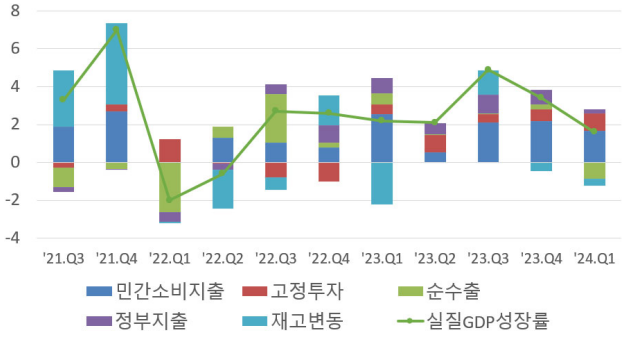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Q1	Q2	Q3	Q4	Q1	Q2	Q3	Q4	Q1
실질GDP	5.8	1.9	2.5	-2.0	-0.6	2.7	2.6	2.2	2.1	4.9	3.4	1.6
소비지출	8.4	2.5	2.2	0.0	2.0	1.6	1.2	3.8	0.8	3.1	3.3	2.5
민간투자	8.7	4.8	-1.2	0.2	-10.6	-7.6	3.4	-9.0	5.2	10.0	0.7	3.2
수출	6.3	7.0	2.6	-4.6	10.2	16.2	-3.5	6.8	-9.3	5.4	5.1	0.9
수입	14.5	8.6	-1.7	14.7	4.1	-4.8	-4.3	1.3	-7.6	4.2	2.2	7.2
정부지출	-0.3	-0.9	4.1	-2.9	-1.9	2.9	5.3	4.8	3.3	5.8	4.6	1.2
근원 PCE	3.6	5.2	4.1	5.5	5.2	5.2	5.1	4.8	4.6	3.8	3.2	2.9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계절조정), 근원 PCE는 전년동기대비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검색일: 2024. 4. 25).

그림 3-1. 미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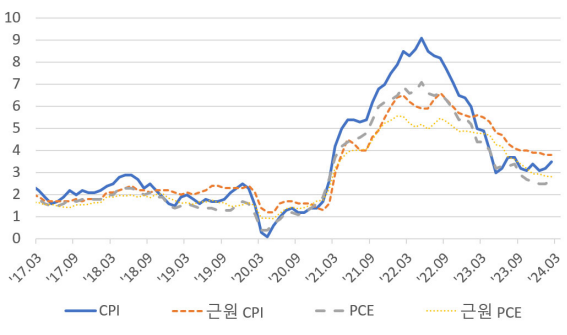
(단위: %p, 실질GDP 성장률은 %)



주: 계절조정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검색일: 2024. 4. 25).

그림 3-2. 미국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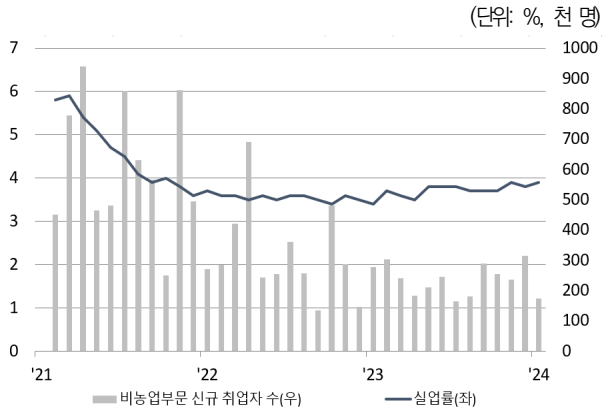


주: '근원'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검색일: 2024. 4. 26).

■ [고용시장] 미국 노동시장은 큰 폭의 변화 없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등)는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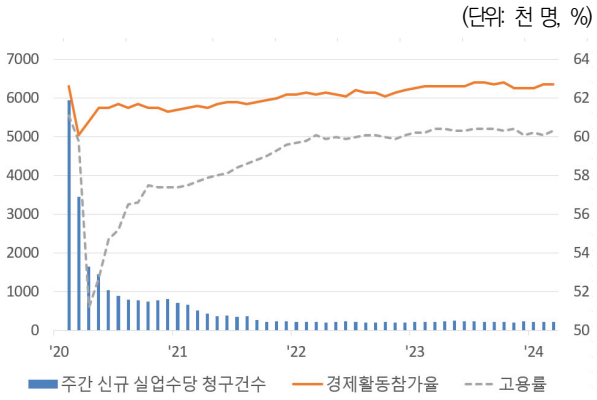
- 실업률은 2023년 8월 이후 일정 수준(3.7~3.9%)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던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 증감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검색일: 2024. 5. 3).

그림 3-4.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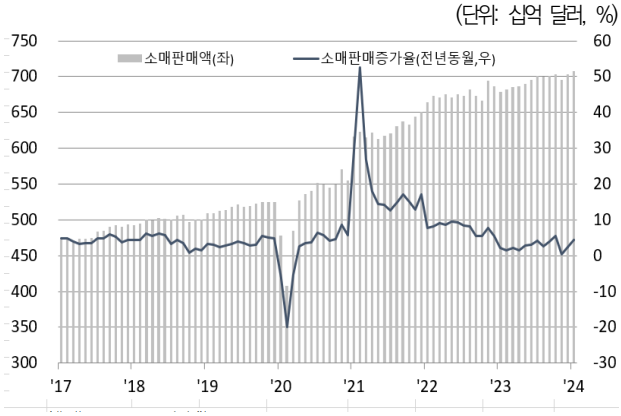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월 마지막 주 기준.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검색일: 2024. 5. 3).

■ [민간소비] 양호한 고용증가와 함께 견조한 소비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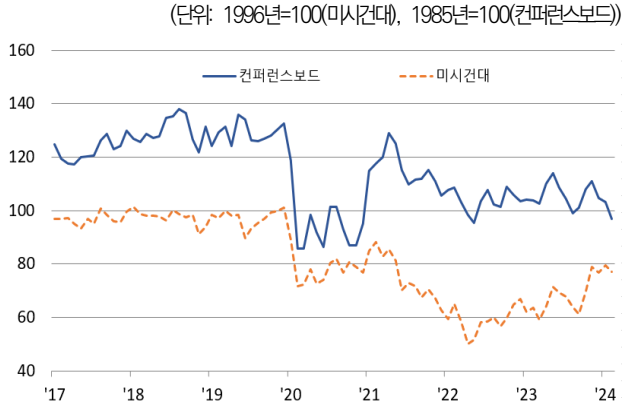
- 고물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는 2024년 1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함.
-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높아진 물가와 고금리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림 3-5. 미국 소매판매지수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검색일: 2024. 4. 15).

그림 3-6.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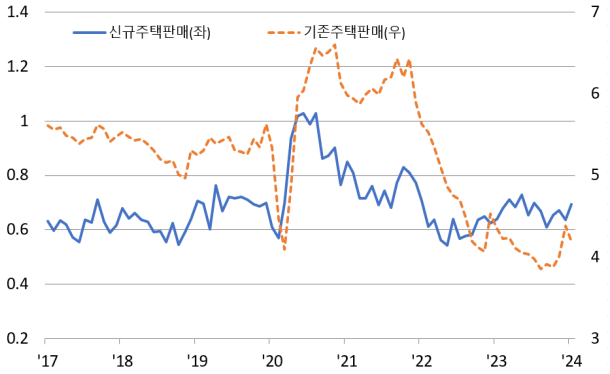
자료: 미시건대학교, 컨퍼런스보드(검색일: 2024. 4. 5).

■ [주택시장] 2023년 10월 이후 하락하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였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 건수는 다소 하락함.

- 2023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주택가격은 양호한 고용시장, 고금리로 인한 지속적 주택 부족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자, 2023년 4/4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던 주택 판매도 하락함.

그림 3-7. 미국 주택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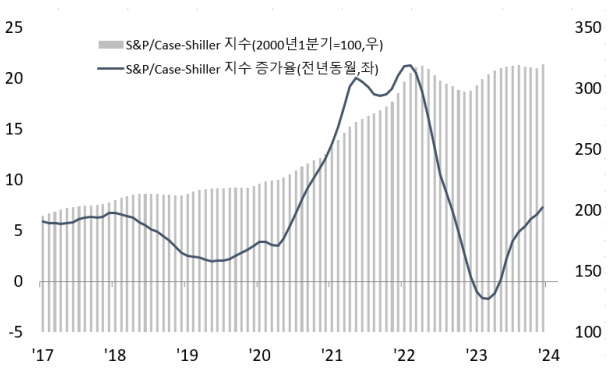
(단위: 백만 채)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미국 인구조사국(검색일: 2024. 4. 18).

그림 3-8. S&P/Case-Shiller 미국주택가격지수

(단위: 2000.1=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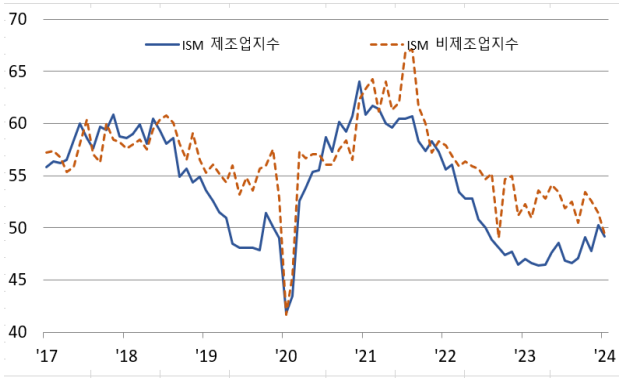
자료: Case-Shiller(검색일: 2024. 4. 30).

■ [제조업] 수축되던 제조업 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다소 위축되던 산업생산 활동도 2개월 연속 증가함.

- ISM 제조업지수는 2024년 3월 50.3을 기록하며 2022년 10월(50.0)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자동차 관련 부품, 가정용 가전기기와 같은 내구재가 산업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소비여력이 있음을 시사함.

그림 3-9. 미국 ISM 제조업지수 및 서비스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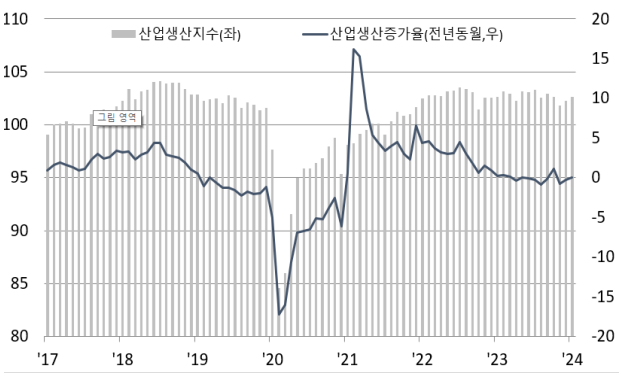
(단위: 지수)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미만은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검색일: 2024. 4. 1).

그림 3-10. 미국 산업생산활동지수

(단위: 2017년=100, %)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검색일: 2024. 4. 16).

2) 거시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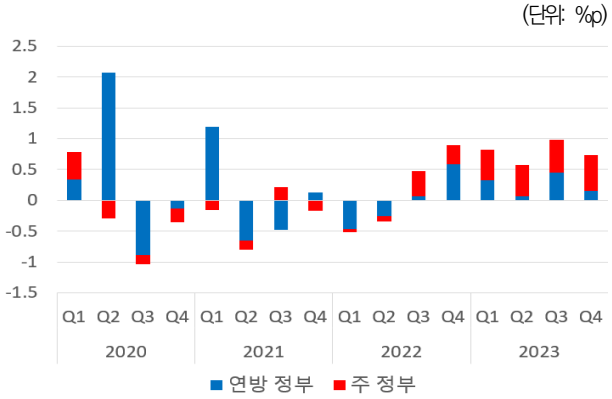
■ [통화정책]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나 강한 경제성장, 견조한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음.

- 시장에서는 연초 6~7회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양호한 경제성장,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 등으로 금리 인하 횟수가 1~2회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49]
  - ○ 3월 양호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주택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자동차 보험 포함) 등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음.[50]
  - ○ 헤드라인 소비자물가(CPI)의 월간 상승률은 2024년 1월 3.1%를 기록한 이후 2월과 3월 각각 3.2%, 3.5%로 상승
- 특히 주거비 상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51]
  - ○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3년 말 6.71%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24년 4월 26일에는 7.29%를 기록[52]
- 한편 2024년 3월 FOMC 이후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3회[53]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음을 밝히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 3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성장률(1.4%→2.1%)과 근원 개인소비지출(2.4%→2.6%)은 상향, 실업률(4.1%→4.0%)은 하향 전망

■ [재정정책] 2023년 연방과 주 정부 모두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되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3년 들어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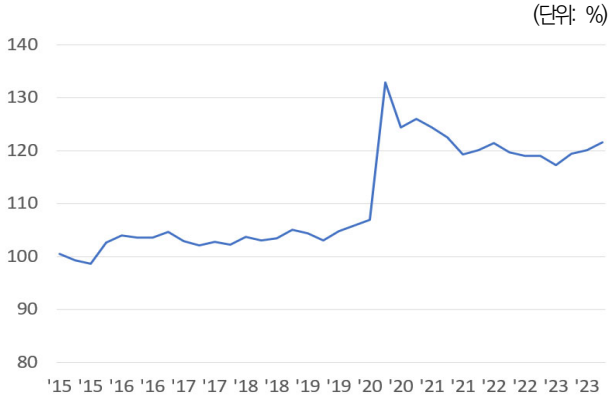
- 코로나19 시기에는 GDP 성장률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여가 높았으나, 2023년에는 임금지출과 투자확대를 통한 주정부 역할이 중요했음.
- 확대되는 재정지출로 인해 미국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3년 들어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음.

그림 3-11. 정부지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검색일: 2024. 3. 25).

그림 3-12. 미국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검색일: 2024. 4. 12).

49) Financial Times(2024. 4. 8), "Investors lose hope of rapid US interest rate cuts this year"(검색일: 2024. 4. 26).
50)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4. 4. 10), "Consumer Price Index - March 2024"(검색일: 2024. 4. 26).
51) Reuters(2024. 4. 5), "Fed's Goolsbee says housing price pressures pose biggest inflation risk"(검색일: 2024. 4. 26).
52) Bloomberg DB(검색일: 2024. 5. 7).
53)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4. 3. 20),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검색일: 2024. 4. 26).

3) 핵심 이슈

■ [노동시장]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증가,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던 자발적 퇴사자 수, 노동시간 지표들도 2개월 연속 상승으로 반전하며 노동시장 과열 가능성을 시사함.

- 2024년 3월 실업률은 3.8%로 전월(3.9%) 대비 0.1%p 하락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3.9%)[54]를 하회하는 수치임.
-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2023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25만 명을 상회함.
  - 파월 연준 의장은 2022년 11월 인구수 증가를 고려한 적절한 취업자 수 증가폭을 10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음.[55]
- 점차 감소하던 민간 부문의 자발적 퇴사자 수는 2023년 12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함.[56]
- 2024년 1월 34.2시간이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2월과 3월에는 각각 34.3시간, 34.4시간으로 증가함.[57]
  - 345만 명('23년 10월) → 332만 명('23년 11월) → 324만 명('23년 12월) → 319만 명('24년 1월) → 319만 명('24년 1월)
- 연준은 경제활동 인구수 증가와 같은 공급 측면의 개선으로 고용이 둔화되지 않고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망 회복과 이민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힘.[58]

■ [선거와 경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가 열리는 2024년과 새로운 4년의 행정부가 출범하는 2025년의 정치적 요인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현직 대통령 바이든은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의 플래그십 정책들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BIL)」,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의 집행과 실적 홍보가 필요함.
  - [공공투자] 바이든 행정부는 BIL(2021. 11)과 IRA(2022. 8)를 활용해 공공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분야에 2024년 1/4분기까지 4,800억 달러가량을 투자했는데,[59] 이는 한 해 미국의 정부투자 부문 명목 GDP와 비견될 수 있을 규모(2023년: 9,925억 달러)로서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가 정부 지출 성장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BIL로 5,500억 달러가량의 지출이 5년 간(2026년까지) 발생할 예정이었으며(총 1.2조 달러),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3,940억 달러의 지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예산이 소모된 상황이지만 추가 투자의 여력이 있음.
  - 또한 「반도체와 과학법」의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해 총 390억 달러의 제조 인센티브 중 291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기업들이 투자 금액을 증액하고 있음.[60]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재집권 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친환경 투자를 못박고, 경기 진작을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보조금을 활용해 민간 투자까지 활성화할 유인을 갖고 있음.
- 2025년에는 2024년 대선(2024. 11. 5) 결과 트럼프와 바이든 중 승자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54) Investing.com(2024. 4. 8), "U.S. Unemployment Rate"(검색일: 2024. 4. 11).
55)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2. 11. 30), "Inflation and the Labor Market"(검색일: 2024. 4. 11).
56)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4. 4. 2),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Table 4. Quits levels and rates by industry and region, seasonally adjusted"(검색일: 2024. 4. 11).
57)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2024. 4. 5), "Average Weekly Hours of All Employees, Total Private"(검색일: 2024. 4. 11).
58) Bloomberg(2024. 4. 6), "Worried About the Labor Market Overheating? Relax"(검색일: 2024. 4. 11).
59) The White House, "Investing in America," invest.gov(검색일: 2024. 4. 13).
60)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450억 달러로 증액하고, TSMC는 400억 달러→650억 달러로 증액함.

표 3-2. 2024년 대선 관련 바이든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주요 정책 예상

분야	바이든 재선	트럼프 재선
산업정책	· 기존의 미국 산업경쟁력 강화 3법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중심으로 공공투자 및 보조금 지급정책 집행 · 일각에서 CHIPS2(반도체와 과학법 2탄) 제정을 주창하고 있음.	[바이든과의 차이점] · 화석연료 채굴 강화 방향으로 투자 확대 · 연비규제(CAFE 규제) 철폐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수요 강화 및 전기차 전환 억제 [바이든과의 공통점] ·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임.
통상	· IPEF를 비롯한 기존 소다자 협의체 계승	· 미국 일방주의 정책(보편관세 10%, 상호관세) 집행
대중국정책	·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세 배 인상 필요성 제기 · 다자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통제 유효성 강화	· 대중국 25~60% 관세 부과 · 수출통제를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 강화
기타 정책		· 달러화의 가치 절하('플라자 합의 2탄')에 대한 구상 중

주: 트럼프 통상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김영귀 외(2024. 4. 24),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4-06을 참고 바람.
자료: The White House(2024. 4. 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트럼프의 경우 Agenda 47과 미국 보수진영의 정책 제언집 등을 참고함.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미국 경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4%,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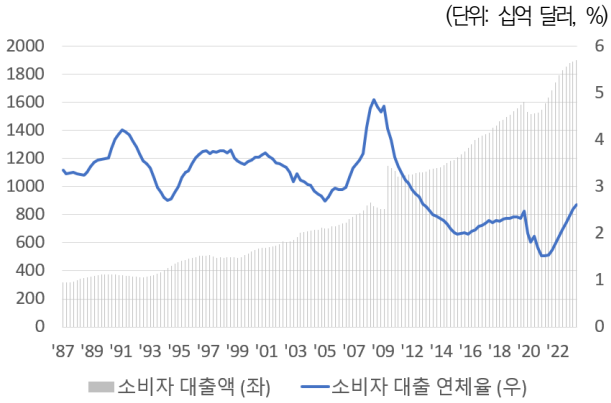
-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되며, 기존 KIEP 전망(1.5%에[61]) 비해 전망치를 0.9%p 상향 조정함.

○ 예상보다 강건한 미국 소비지출에 힘입어 각 기관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인 가운데, 소비지출 외에도 민간투자가 2023년에 비해 회복되고, 정부지출이 2024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장의 중요한 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2024년에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 기조의 지속이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2024년에서 2025년에 이르기까지 소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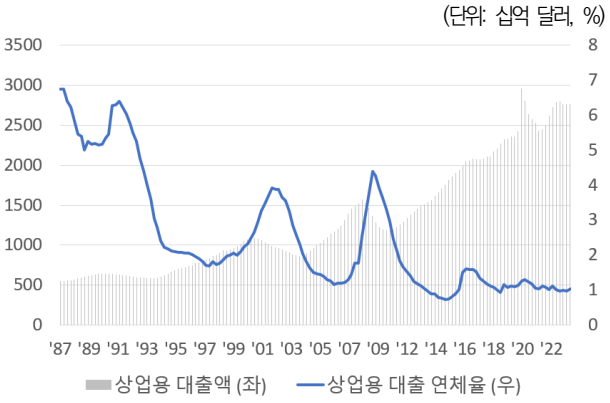
○ 또한 소비자 대출액이 상업용 대출액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해 가계 대출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은 소비 지출이 2023년만큼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그림 3-13. 소비자 대출액과 연체율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검색일: 2024. 3. 25).

그림 3-14. 상업용 대출액과 연체율 추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검색일: 2024. 4. 12).

61) 안성배 외(2023. 11. 14), 「2024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3-14.

- [민간투자] 고금리 기조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보증에 힘입은 민간투자 확대와 2023년 주거용 투자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24~25년에는 2023년(-1.2% 성장)에 비해 민간투자가 대폭 회복될 것으로 보임.
  - ○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1,000억 달러)과 마이크론(1,250억 달러)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되고 TSMC(400억→650억 달러), 삼성전자(170억→400억 달러)를 비롯한 기업들이 기존 투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연방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투자 확대 및 개시가 반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 또한 비교적 건전한 상업용 대출 상황은 2023년 부진했던 민간투자를 2024~25년에 회복하는 데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부진했던 주거용 투자가 회복세를 따는 것도 2024~25년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요인임.
- [정부지출] 정부지출은 2024년에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각종 공급망 법안 내 지출 여력이 소진되면 2025년에는 2024년만큼 경제를 견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순수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은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위험요인] 2025년은 트럼프 재집권 시 친환경 투자를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지출 방향이 전환될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2024년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3-3.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KIEP [2024. 5]		FED [2024. 3]		IMF [2024. 4]		OECD [2024. 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미국	2.4	1.7	2.1	2.0	2.7	1.9	2.6	1.8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이며, FED는 전년 4분기 대비 변화율이고 나머지 기관은 직전 연도 대비 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유럽

1) 거시경제 현황

■ [성장률] 유로 지역 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내수와 대외여건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2023년 0.4%의 미미한 경제성장세를 보임.

- [유로 지역] 2023년 4/4분기 투자가 전기대비 1.0% 상승했음에도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유로 지역의 성장이 정체됨.
- [독일] 0%대 성장에 머물러 있던 경제성장률이 4/4분기에 전기대비 역성장하면서 2023년 -0.3%를 기록함.
  - ○ 고금리 영향으로 건설투자, 장비투자 등이 감소함에 따라 2023년 4/4분기 투자가 전기대비 -1.9%를 기록함.
- [프랑스] 2023년 3/4분기, 4/4분기 모두 전기대비 0%대 성장을 보임에 따라 2023년 0.7% 경제성장에 그침.
  - ○ 2023년 4/4분기의 민간소비가 정체되었고, 투자가 전기대비 0.9% 역성장함.
- [이탈리아] 2023년 2/4분기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3/4분기, 4/4분기 각각 전기대비 0.2%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 0.9%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표 3-4. 유럽 주요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실질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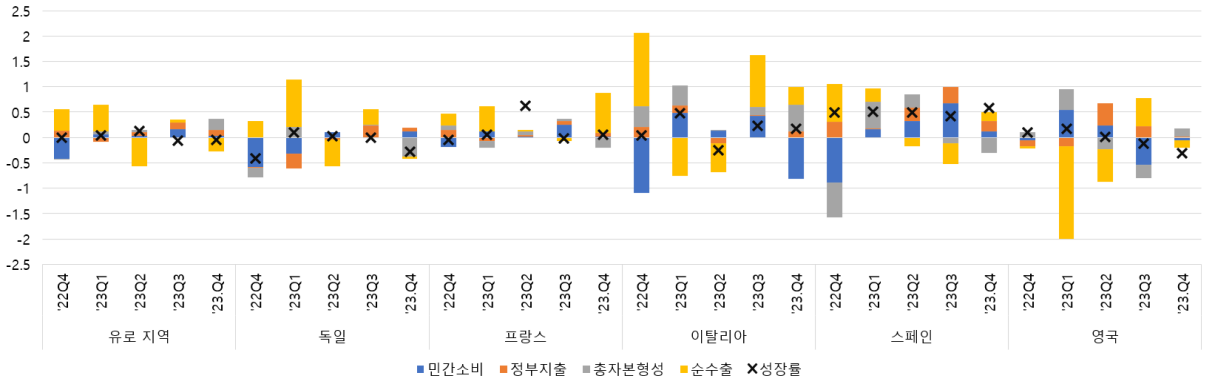
지역	2022	2023					2024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유로 지역	3.4	0.0	0.1	-0.1	0.0	0.4	0.3
- 독일	1.8	0.1	0.0	0.0	-0.3	-0.3	0.2
- 프랑스	2.5	0.0	0.6	0.0	0.1	0.7	0.2
- 이탈리아	4.0	0.5	-0.2	0.2	0.2	0.9	0.3
- 스페인	5.8	0.5	0.5	0.4	0.6	2.5	0.7
영국	4.3	0.2	0.0	-0.1	-0.3	0.1	0.6

주: 1) 유로 지역은 2023년 기준 20개국임. 2) 계절조정 자료. 3)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임. 4) 2024년 1/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유로 지역: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output, expenditure and income) 분기자료 [namq_10_gdp] 연간자료 [nama_10_gdp]"; 영국: ONS,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UK: January to March 2024"(검색일: 2024. 5. 13)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정부지출에 기인한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2023년 4/4분기 투자가 전기대비 2.4% 성장했으나, 민간소비가 1.4% 역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함.
- [스페인] 2023년 4/4분기에 전기대비 0.6%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2023년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 2024년 1/4분기에도 0.7% 성장을 기록, 2024년 들어 정부지출은 1.0% 역성장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역성장을 보였던 투자가 기저효과로 강한 반등세(2.6%)를 보였고, 수출 또한 전기대비 2.4% 성장함.
- [영국] 2023년 3/4분기, 4/4분기 각각 전기대비 -0.1%, -0.3%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침.
  - ○ 2024년 1/4분기는 투자 감소에도 순수출, 가계소비, 정부지출 확대로 0.6% 성장함.

그림 3-15. 유럽 주요국 및 유로 지역의 GDP 주요 지출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단위: 기여도 %p, 실질GDP 성장률 %)



주: 1) 유로 지역은 2023년 기준 20개국임. 2) 계절조정 자료. 3)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임.
자료: 유로 지역: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output, expenditure and income) 분기자료 [namq_10_gdp]"; 영국: ONS, "Quarterly National Accounts, Q4 (Oct to Dec) 2023"(검색일: 2024. 4. 6)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비자물가상승률] 유럽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4년 3월 2~3%대로 개선됨.

- 유로 지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대비 각각 0.2%p씩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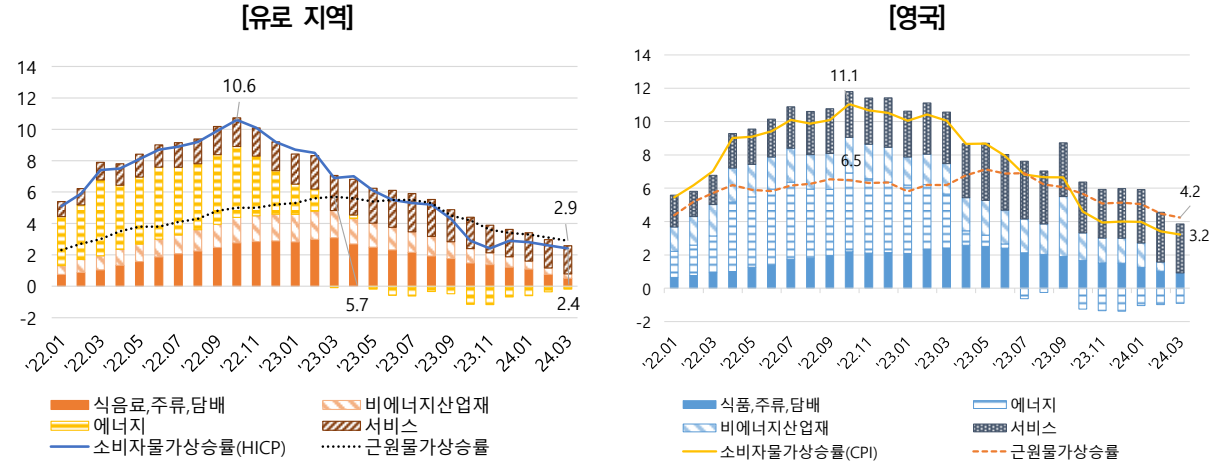
○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서비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23년 1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4%의 상승폭을 유지함.
※ 2023년 3월 유럽 주요국 물가상승률: 독일 2.3%, 프랑스 2.4%, 스페인 3.3%, 이탈리아 1.2%

- 영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 근원물가상승률은 4.2%로 전월대비 각각 0.2%p, 0.3%p 하락함.

○ 상품은 2024년 3월 전년동월대비 0.8%(전월대비 0.3%p), 서비스는 동 기간 6%(전월대비 0.1%p)의 상승폭을 보임.[62]

그림 3-16.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주: 1) 유로 지역(2023년 기준 20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 부문별 기여도는 해당 기간의 부문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산정(유로 지역 참고: "HICP - item weights [prc_hicp_inw], 영국은 영국자료 참고). 3)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유로 지역: "Harmonis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prc_hicp_manr]"; 영국: "Consumer Price Inflation"(검색일 2024. 4. 5) 바탕으로 저자 작성.

62) 영국통계청(2024. 4. 17),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rch 2024,"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latest(검색일: 2024. 5. 8).

■ [교역량] EU 및 유럽 주요국의 2023년 수출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수입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냄.

- 내수부진으로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된 2023년 EU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냈던 2022년과 대조됨.

○ EU의 2023년 역외 수입액이 2022년 대비 16% 하락하면서 무역수지 흑자전환이 나타났는데, 이는 에너지 상품(-34%)과 재료로 분류된 제조품(-21%)의 수입가격과 수입량이 복합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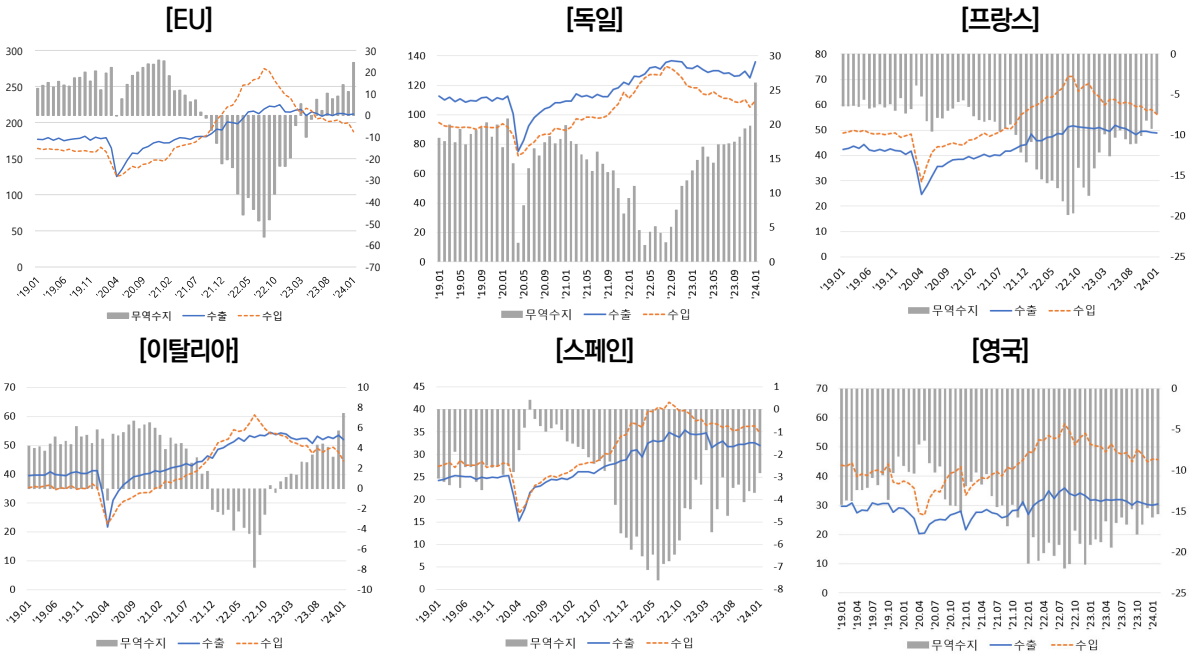
* 2023년 4/4분기 기준 EU 에너지 제품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수입액(-34.2%)과 수입량(-11.7%) 모두 감소함.[64]

- 영국은 2023년 기준 전년대비 수출액(-4.2%), 수입액(-8.2%) 모두 감소한 가운데, 무역적자폭이 개선됨.

○ 주요 수출품인 기계·운송장비 수출액이 전년대비 13% 증가했음에도 연료 가격 하락이 수출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3-17. 유럽 주요국의 대(對)전 세계 상품교역 추이

(단위: 유로 지역 - 십억 유로, 영국 - 십억 파운드)



주: 1) 계절조정된 자료임. 2) 왼쪽 축은 수출·수입을, 오른쪽 축은 무역수지를 의미함. 2) EU 자료는 2020년부터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함. 3) 영국의 교역액은 귀금속제품을 제외한 명목가격임.

자료: EU: Eurostat, "EU27 (from 2020) trade by SITC product group [ext_st_eu27_2020sitc]"; 회원국: Eurostat, "Member States trade by BEC product group since 1999 [ext_st_27_2020msbec]"; 영국: ONS, "UK trade: goods and services publication tables"(검색일: 2024. 4.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202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ECB)은 2023년 9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7개월 연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2024년 2/4분기에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됨.

63) Eurostat(2024. 3. 24), "EU registered trade in goods surplus of 38 euro bilion in 20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40327-3(검색일: 2024. 4. 9).

64) Eurostat(2024. 3. 22), "Continued drop in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40322-2(검색일: 2024.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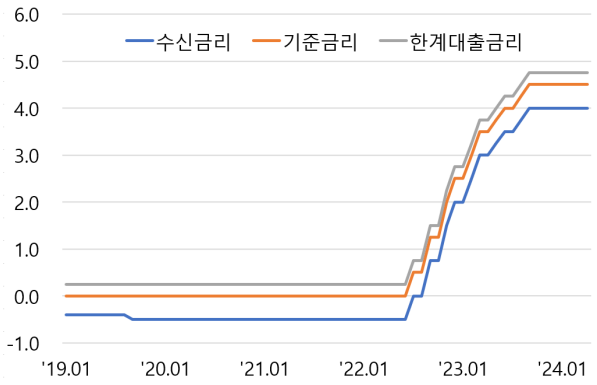
- ECB는 2023년 9월 기준금리 4.5%, 한계대출금리 4.75%, 수신금리 4%로 설정한 이후 중기적 정책 목표치(2%) 달성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고자 금리 인하를 실시하지 않음.

○ 다만 ECB 운영 이사회의 3월 회의록으로 미루어볼 때, 2024년 6월에 금리 인하 발표 가능성이 있음.[65]

- ECB가 자산매입프로그램(APP)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를 중단하여 APP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으로 매입한 만기증권의 납입원금은 2024년 상반기까지 재투자할 계획이나, 하반기에는 월 평균 75억 유로씩 줄여나가 2024년 말에는 PEPP 포트폴리오 재투자를 중단할 계획임.
- 2023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한 영국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에도 2%의 중기적 목표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한 고금리 상태를 지속시켜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밝힘.

그림 3-18.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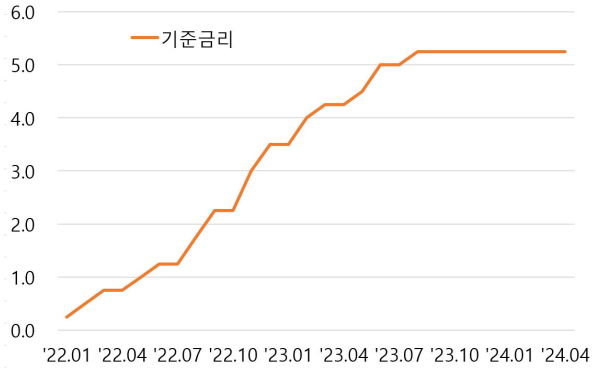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CB DB(검색일: 2024. 4. 5).

그림 3-19. 영국중앙은행의 정책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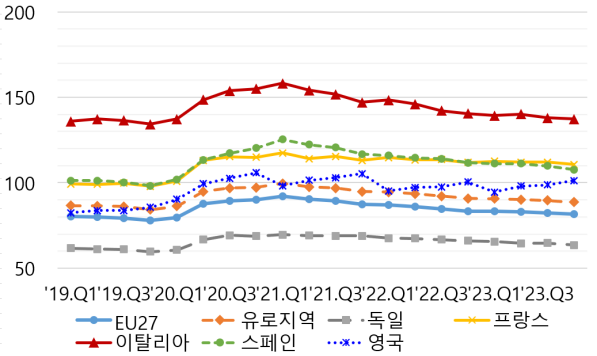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Bank of England DB(검색일: 2024. 4. 5).

그림 3-20. 유럽 주요국의 정부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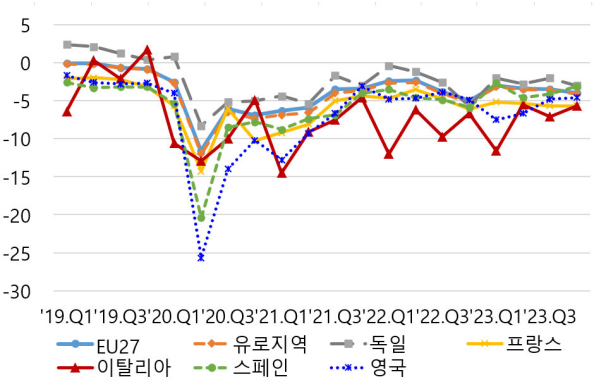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및 ONS database(검색일: 2024. 4. 26).

그림 3-21.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율

(단위: GDP 대비, %)



주: 양수는 재정 흑자를, 음수는 재정 적자를 의미. 이탈리아는 계절 및 달력조정 미적용.
자료: Eurostat 및 ONS DB(검색일: 2024. 4. 26).

■ [재정정책] 유럽 주요국의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예되었던 EU의 재정준칙(fiscal rules)이 2024년 재시행되었고 유연성을 부여한 재정준칙의 개정 또한 진행됨.

65) European Central Bank, "Meeting of 6-7 March 2024," https://www.ecb.europa.eu/press/accounts/2024/html/ecb.mg240404~b79e424115.en.html(검색일: 2024. 4. 5).

- 유럽 주요국의 정부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고점 대비 개선되었으나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했고, 재정적자 또한 개선되었으나 모든 유럽 주요국이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EU와 유로 지역의 2023년 4/4분기 정부부채는 각각 GDP 대비 81.7%, 88.6%로 주요국 중 독일만 유일하게 GDP 대비 63.6%를 기록, 다른 국가들은 모두 GDP 대비 100%를 상회했고, 재정수지는 EU와 유로 지역이 각각 GDP 대비 -4%, -4.1%로 주요국 중 독일이 GDP 대비 -3%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기존 재정준칙보다 투자 친화적이면서 유연해진 'EU 재정준칙 개정안'이 유럽의회에서 승인됨(2024. 4. 23).[66]

○ EU 회원국에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부채 GDP 대비 60% 이내라는 재정준칙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 시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인 과다 재정적자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적용을 받음.

○ 개정된 재정준칙에 따르면 GDP 대비 90% 이상의 과다부채 보유 회원국과 60~90%에 해당하는회원국은 각각 연평균 1%와 0.5%씩의 부채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적자 보유 시에는 지출 완충장치 구축 차원에서 GDP 대비 1.5% 수준까지 감축하도록 하나, 부채와 적자의 조정기간은 4년을 기준으로 회원국별 사정에 맞게 추가 3년까지 연장 가능함.

※ EDP가 적용된 회원국에는 적자 감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EU 이사회의 평가가 있을 때까지 6개월마다 전년도 GDP 대비 0.05% 이하 규모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음.

3) 핵심 이슈

■ [노동시장] 유럽 주요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성장이 약화되었음에도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의 견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유로 지역 및 영국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회복되고 있음.

○ 유로 지역의 2024년 2월 실업률은 6.5%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하락하여 유로화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2023년 4/4분기 61.4%로 증가세를 보임.

○ 영국의 2024년 3월 실업률은 3.9%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은 75%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유럽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4/4분기 기준 코로나19 직전을 상회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의 구인수는 감소하고 있어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업의 고용 전망은 경제 전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 2023년 4/4분기 결원율(Vacancy rate)은 2.7%로 2022년 2/4분기(3.2%)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며, 특히 건설부문(3.8%)에서 높게 나타남.[67]

○ 유로 지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4년 3월 96.3으로 장기평균 100 이하이나, 고용기대지수는 102.6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경기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으로 나타남에도 고용부문은 긍정적으로 나타남.[68]

---

66) European Parliament, "New EU fiscal rules approved by MEP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419IPR20583/new-eu-fiscal-rules-approved-by-meps(검색일: 2024. 4. 29).

67) 결원율은 건설부문에서 크게 나타남. 노동력 부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학적 변화,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 일자리 수요 확대, △도전적인 근무 환경이 제시됨(https://www.statista.com/topics/11864/labor-and-skills-shortages-in-europe/#topicOverview).

68)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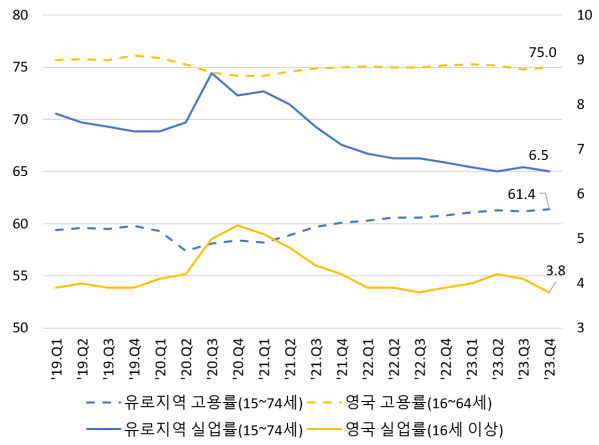
○ 2024년 4월 노동저장지표(Labor Hoarding Index)는 10.6%(전월대비 +0.2%p)로 장기평균(9.7%)보다 높은데, 이는 기업 관리자가 기업의 생산 감소 예상에도 해고 대신 현 고용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많음을 의미함.[69]

- EU 집행위원회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 소외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 △ 기술개발·교육훈련 제공, △ 근무환경 개선, △ EU 외부 노동력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2024. 3. 20.)을 발표함.[70]

- 한편 유로 지역은 2023년 4/4분기 명목임금상승률이 3.4%, 영국은 2024년 1월 6.1%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정점(유로 지역 2022년 4/4분기 5.9%, 영국 2023년 7월 7.9%)을 나타낸 뒤 하락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초과수요 완화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3-22. 유로 지역의 노동시장 주요 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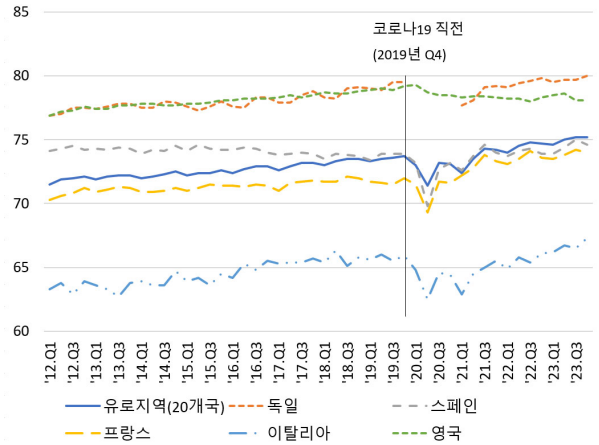


주: 1) 고용률 및 실업률 측정 대상 나이는 유로 지역과 영국에 차이가 있어 그림에 표기함. 2)유로 지역은 2023년 기준 20개국 기준임.

자료: 유로 지역: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quarterly data [lfsi_emp_q]", "Unemployment by sex and age - quarterly data [une_rt_q]"; 영국: 영국통계청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검색일: 2024. 4. 29).

그림 3-23. 유럽 주요국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주: 1) 유로 지역 및 유로 사용 국가의 측정 대상 나이 15~64세, 영국은 16~64세 2) 독일은 '20.Q1~Q4 자료 부재.

자료: 유로 지역: Eurostat, "Activity rates by sex, age and citizenship (%) [lfsq_argan]"; 영국: 영국통계청, "LFS: Economic activity rate: UK: All: Aged 16-64(%): SA"(검색일: 2024. 4. 29).

■ [유럽 내 주요 선거] 2024년 6월 6~9일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 이후 11월경 차기 EU 집행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영국 총선도 2024년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임.

- 최근 유럽 국내 정치에서 '극우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 확대'는 전통적으로 유럽의회 최다 의석을 확보해온 중도우파 성향의 EPP(유럽국민당)와 중도좌파 성향의 S&D(사회국민당)의 지지율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양대 정당의 유럽의회 정치 주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EPP의 최다의석 확보 시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現 EU 집행위원장의 연임이 유력하며, 연임 시 기존의 유럽 그린딜을 계승하고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EU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69) European Commission(2024. 3), "Business and consumer survey results for March 2024,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e8d6a4bf-e2a9-4a3f-8d99-9a188d068e1c_en?filename=bcs_2024_03_en.pdf(검색일: 2024. 4. 15).

70) European Commission 보도자료(2024. 3. 20), "Commission sets out actions to tackle labour and skills shortag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507(검색일: 2024. 4. 29).

표 3-5. 유럽의회 2대 정당의 주요 선거 공약

EPP(European People's Party)	S&D(Socialists & Democrats)
1. 유럽안보 구축: 우크라이나 지지, 자체 방위 능력 확보, 단일 유럽으로서의 대응, 불법 이주민으로부터의 국경 보호, 테러리즘 및 조직적 범죄 대응, 여성에 대한 폭력 저지, 온라인/오프라인 위협 대응 2. 사회적 시장경제 지향: 유럽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유 및 공정 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에의 기여, 에너지 확보, 기후보호 추진, 유럽 전 지역의 생활수준 제고, 디지털화/인간 중심적 AI 선도, 식량안보 확보 3. 유럽의 생활 방식(European way of life) 고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정책 추진, 민주주의/문화 풍요/다양성 보존, 가정·취약계층 보호, 고령층 지원·보호, 보건안보 확보, EU 확대 지지	1. 양질의 일자리 확보: 양질의 보수가 많은 일자리 로드맵 추진, 실업/빈곤/사회적 배제 대응, 노동조합 권리 보호, 유럽노동청 강화 등 2. 사회적/생태학적 정책이 포함된 새로운 그린딜 구축: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에너지 시장 개혁 등 3. 강력하고 개방된 유럽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 추진, 녹색/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 추진, 긴축 반대 등 4. 공정한 세제: 대기업/대형 오염유발자/부자에 대한 과세 등 5.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마련 6. 보건, 돌봄, 의약품 접근성 개선 7. 공공서비스 강화 및 개선 8.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보: EU 공동 농업정책에서의 농업지원 강화, 생물다양성/동물복지 강화 등 9. 안보 강화 10. 도시/지역 간 연대 및 개발 확대: 결속정책 강화, 루마니아/불가리아의 완전한 쉥겐 가입 추진 등 11. 민주주의 및 법치 수호 12. 유럽의 페미니즘 지원 13. 유럽 내 차별 지양 14. 난민 및 이민 관리 개선: 공정하고 존중받는 절차 제공, EU 국경 강화 등 15. 젊은 층 지원 확대 16. 세대 간 연대 강화: 고령층 지원 17. 사람 중심의 AI 통제 및 온라인 권리 강화

자료: EPP, "EPP Manifesto 2024," https://www.epp.eu/papers/epp-manifesto-2024; PES(Parties of European Socialists), "PES adopts manifesto for 2024 European elections," https://pes.eu/pes/manifesto-for-2024-european-election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5. 7).

- 영국은 2024년 4월 기준 노동당 지지율(45%)이 수낵(Sunak) 現 총리가 소속된 보수당(20%)보다 앞서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벌어진 양당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71]
- 정치적 이변이 없으면 차기 독일 연방총선은 2025년 10월 이전에, 차기 프랑스 대선과 이탈리아 총선, 스페인 총선은 모두 2027년에 치러질 예정임.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유로 지역 경제의 약 28%를 차지하는 독일 경제 전망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으로 2024년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부터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유로 지역]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무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2025년에 이르러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긴축재정, ECB의 통화긴축 등과 함께 특히 독일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에너지 집약적 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2024년 낮은 경제성장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2025년에는 무역과 투자의 반등으로 경제성장률 개선을 기대함.
- [프랑스] 저점을 지난 프랑스 경제는 투자 감소에도 무역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면서 2024년에 낮지만 양(+)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2025년에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모두 개선되어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임.
- [이탈리아]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를 지닌 이탈리아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24년은 투자와 무역이 경제성장을 견인, 2025년에는 무역, 특히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함.

71) YouGov., "Voting Intention: Con 20%, Lab 45% (23-24 Apr 2024)," https://yougov.co.uk/politics/articles/49241-voting-intention-con-20-lab-45-23-24-apr-2024(검색일: 2024. 4. 26).

- [스페인]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에도 관광업 확대와 투자 회복을 중심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겠으며, 2025년에도 유럽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회복이 경제성장의 주축을 형성할 전망임.
- [영국] 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투자 및 수출 감소에도 정부지출 확대와 민간소비 개선으로 양(+)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위축되었던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무역 확대, 민간소비 증가 및 투자 회복으로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표 3-6. 유럽 주요국의 2023년 및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KIEP [2024. 5]		EU 집행위원회 [2024. 2]		OECD [2024. 5]		IMF [2024. 4]		Oxford Economics [2024. 4]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유로 지역	0.7	1.6	0.8	1.3	0.7	1.5	0.8	1.5	0.8*	1.8
- 독일	0.0	1.3	-0.4	1.1	0.2	1.1	0.2	1.3	0.0	1.3
- 프랑스	0.6	1.6	1.0	1.2	0.7	1.3	0.7	1.4	0.5	2.0
- 이탈리아	0.7	1.0	0.9	0.8	0.7	1.2	0.7	0.7	0.7	1.1
- 스페인	2.4	1.7	2.2	1.9	1.8	2.0	1.9	2.1	2.4*	1.8*
영국	0.5	1.5	-	-	0.4	1.0	0.5	1.5	0.6	2.0

주: 1) 전년대비 실질경제성장률, 주요 기관 중 전망치가 없는 경우 '-'으로 작성함.
2) Oxford Economics의 *는 2024년 5월 발표 전망치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OECD, IMF, Oxford Economics 최신자료.

다. 일본

1) 거시경제 현황

■ 일본경제는 2023년 3/4분기 -0.8%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대비 다소 위축되었으나, 4/4분기에 소폭 회복하여 2023년 연간 성장률은 1.9%를 달성함.

- 2023년 3/4분기 내수와 외수 모두 부진했으나, 4/4분기의 경우 개인소비가 침체된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입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냄.
  ○ 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감.
- 2023년 실질 GDP는 558.9조 엔으로, 과거 최대치였던 2018년의 554.8조 엔 수준을 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된 모습을 보임.

표 3-7. 일본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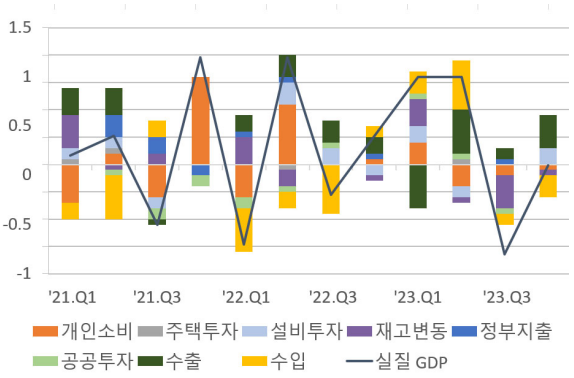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1년	'22년	'23년	2022년		2023년			
				Q3	Q4	Q1	Q2	Q3	Q4
실질GDP	2.6	1.0	1.9	-0.2	0.4	1.0	1.0	-0.8	0.1
개인소비	0.8	2.2	0.6	0.0	0.2	0.8	-0.7	-0.3	-0.3
주택투자	-0.3	-3.5	1.1	0.4	0.7	0.3	1.8	-0.6	-1.0
설비투자	0.5	1.9	2.1	2.0	-1.3	2.0	-1.4	-0.1	2.0
정부지출	3.4	1.7	0.9	0.1	0.7	0.1	-0.1	0.3	-0.2
공공투자	-1.8	-9.6	2.8	1.1	0.1	2.0	2.2	-1.0	-0.8
수 출	11.9	5.3	3.0	2.1	1.4	-3.5	3.8	0.9	2.6
수 입	5.1	7.9	-1.3	4.8	-0.8	-1.6	-3.6	1.0	1.7

자료: 內閣府(검색일: 2024. 4. 4).

그림 3-24. 일본 GDP 구성항목별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실질, %)



자료: 內閣府(검색일: 2024. 4. 4).

■ [개인소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던 개인소비는 2023년 이후 모멘텀을 잃고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2월 실질소비활동지수는 95.97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평균 101.56)을 하회함.
  ○ 이는 펜트업 수요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식료품 등의 각종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2024년 2월 기준 역대 최장 기간인 2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72] 소비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임.
  ○ 2024년 1월과 2월의 경우, 일부 자동차 생산기업의 품질인증 부정 취득 문제로 인한 자동차 생산 중단 및 따뜻한 겨울 날씨 등이 개인소비의 일시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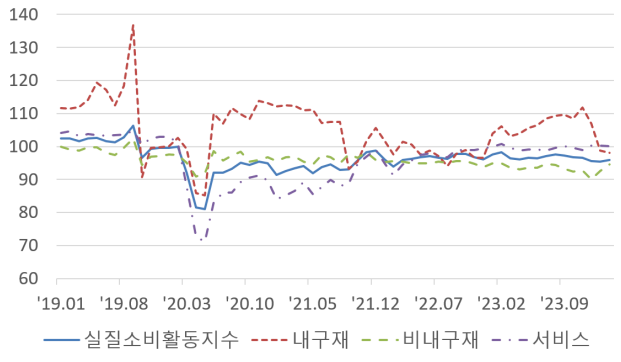
■ [기업활동] 원활한 반도체 부품 공급으로 인한 자동차 증산, 인적교류 제한 완화로 인한 인바운드 수요 증가, 엔저 현상 등에 힘입어 2023년 일본기업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호조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확대되는 추세임.

72) 厚生労働省, 「毎月勤労統計調査」(검색일: 2024. 4. 11).

- 2023년 4/4분기 매출액은 전기대비 0.9%(제조업 1.0%, 비제조업 0.8%) 증가했으며, 특히 수송용 기계와 식료품 부문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경상이익은 2023년 상반기 급격하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한 뒤 3/4분기와 4/4분기 연속 감소(전기대비 각각 -0.5%, -2.6%)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간 기업 실적 호조에 비해 다소 정체되어 있던 설비투자는 2023년 4/4분기에 전기대비 10.4%(제조업 11.7%, 비제조업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줌.

그림 3-25. 일본 소비활동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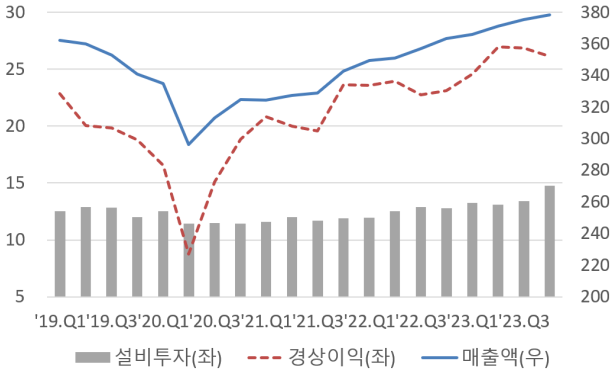
(2015년=100)



주: 소비활동지수는 인바운드 소비를 제외하고 아웃바운드 소비를 포함한 지수를 활용(旅行収支調整済).
자료: 日本銀行, 「消費活動指数」(검색일: 2024. 4. 12).

그림 3-26.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경상이익,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엔)



주: 경상이익 및 매출액은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 통계(계절조정치), 설비투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금액(계절조정치).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調査」(검색일: 2024.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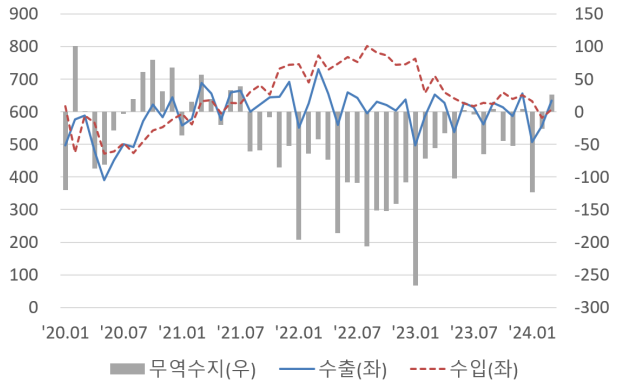
■ [무역·경상 수지]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대됨.

- 2024년 3월 수출액은 634억 달러(전년동월대비 -3.0%), 수입액은 608억 달러(-14.4%)로 3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26억 달러)가 발생함.[73]
  - ○ 수출의 경우, 원동기·금속가공기계 등의 일반기계(-6.1%), 철강 등의 공산품(-7.4%)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수입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가운데, 특히 비철금속·금속제품 등의 공산품(-22.6%), 석탄·액화천연가스 등의 광물성 연료(-20.1%), 의료품 등의 화학제품(-17.7%)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2024년 2월 경상수지의 경우, △ 상품수지 적자 개선, △ 방일 여행객 증가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 본원소득수지 흑자 축소 등을 종합하면 흑자폭이 전년동월대비 확대됨.
  - ○ 2024년 2월 경상수지는 2조 6,44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439억 엔 증가함.
  - ○ 2024년 2월 여행수지 흑자는 4,171억 엔으로 2023년 12월(4,363억 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73) 엔저 현상으로 인해 엔화 기준 2024년 3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3% 증가 및 5.1% 감소함.

그림 3-27.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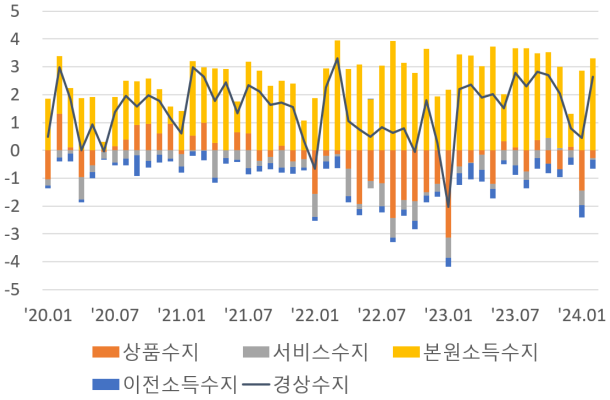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JETRO, 「ドル建て貿易概況」(검색일: 2024. 5. 7).

그림 3-28. 일본 경상수지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財務省, 「国際収支の推移」(검색일: 2024. 4. 12).

■ [소비자물가] 근원 CPI(신선식품 제외 CPI) 상승률은 2023년 1월 4.1%의 기록적인 수준 달성 이후 점차 안정되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CPI도 2023년 7~8월(4.3%)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근원 CPI 상승률은 2024년 2월 전월대비 상승한 후 3월 다시 소폭 하락(1월 2.0% → 2월 2.8% → 3월 2.6%)한 모습을 보임.
  - ○ 이는 일본정부의 에너지 부담 경감정책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3월 식료품 가격과 숙박료 등의 전월대비 상승세 둔화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임.[74]
-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CPI는 서비스 물가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식료품 가격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2024년 3월 2.9%의 성장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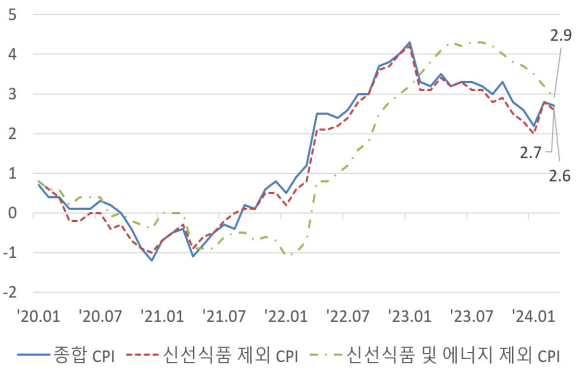
■ [고용] 실업률 감소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고용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유효구인배율)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23년 실업률은 2.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178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명 감소함.
  - ○ 2024년 1~3월 실업률은 2.4~2.6%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 2023년 유효구인배율은 1.31배로 전년대비 0.03p 상승했으나, 2019년 수준(1.6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월별 유효구인배율의 경우, 2023년 1월에 최고치(1.35배)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24년 3월 소폭 회복됨.
-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4만 명 증가(3년 연속 증가)한 6,747만 명으로, 이는 2019년 수준(6,750만 명)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음.
  -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각각 18만 명, 2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선호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75]
  - ○ 월별 취업자 수를 보면 2024년 3월 기준 2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74)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4), 「消費者物価（全国24年2月）－サービス価格の上昇率はさらに高まる可能性」.
75) 日本経済新聞(2024. 3. 4), 「あえて非正規」若者で拡大 処遇など新たな設計必要」.

그림 3-29.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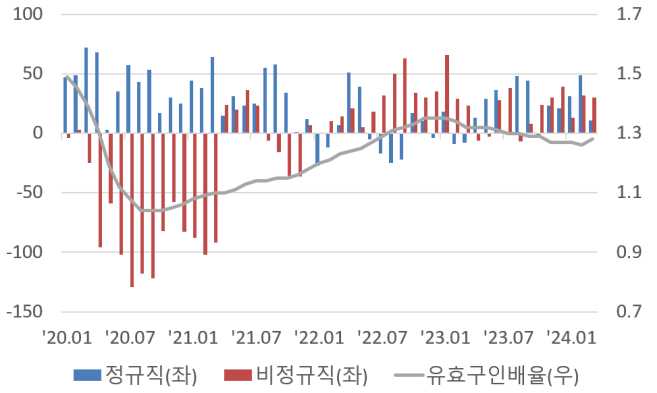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総務省, 「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검색일: 2024. 4. 19).

그림 3-30. 일본 고용형태별 고용자 수 변화 및 유효구인배율

(단위: 만 명, 배)



주: 1) 유효구인배율은 계절조정치.
2) 고용자 수 변동은 전년동월대비 수치.
자료: 総務省, 「労働力調査」,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職業安定業務統計)」(검색일: 2024. 5. 7).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3월 18일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장단기 금리조절 운용 및 일부 위험자산 매입 종료 등을 결정하며 정책 정상화를 위한 단계에 돌입함.

- 일본은행은 3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장·단기 금리조절(YCC: Yield Curve Control) 운용을 폐지하고, 단기금리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며 ETF, J-REIT 등 일부 위험자산의 매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표 3-8 참고).[76]
  - ○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책목표를 본원통화 확대 → 장·단기 금리조절로 변경하고, 장기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을 병행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해 왔음.
- 2024년 3월 15일 발표된 춘투 1차 협상 결과 5%가 넘는 명목임금 인상률이 기대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임금-물가의 선순환에 대한 전망을 근거로 정책 변경에 착수함.[77]
  - ○ 우에다(植田) 일본은행 총재는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져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밝힘.[78]

* 일본은행은 "임금상승을 동반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해 왔음.

- 한편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환경 유지라는 기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79]
- 그러나 4월 3일 우에다 총재가 "(2024년) 여름~가을에 걸쳐 올해 춘투의 결과가 물가에 반영되는 가운데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 점, "엔화 약세가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통화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76) 日本銀行(2024. 3. 19), 「金融政策の枠組みの見直しについて」, pp. 1~2.
77)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2024), 「33 年ぶりの 5%超え!有期・短時間・契約等労働者は一般組合員を上回る~2024 春季生活闘争 第 1 回回答集計結果について~」.
78) 日本銀行, 「総裁記者会見(2024年3月18日)」.
79) 日本銀行(2024. 3. 28), 「金融政策決定会合における主な意見(2024年3月18、19日開催分)」, p. 2.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 볼 때, 실질임금 회복 추이 및 엔달러 환율 동향에 따라 일본은행이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80]

○ 일본 내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 이르면 7월이며, 인상 횟수는 1~2차례임. 또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수준은 0.1~0.25% 정도임.[81]

표 3-8. 일본은행 금융완화정책의 주요 변화 비교

정책 수단	변경 전	변경 후
YCC	단기금리: -0.1% (일본은행 당좌예금 일부) 장기금리: 0% 유도	YCC 폐지, 단기금리: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로 변경 (0.0~0.1%)
위험자산 매입	ETF, J-REIT, CP, 회사채 매입	ETF, J-REIT: 매입 종료 CP, 회사채: 1년 뒤 매입 종료 예정
포워드 가이던스	"임금상승을 동반한 물가상승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금융완화 추진"	좌측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자료: 日本銀行.

그림 3-31.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엔)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4. 10).

■ [재정정책] 기시다 내각은 고물가 대응 등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결과 2025년도 재정흑자화 목표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졌으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채 비용 상승이 예상되어 향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음.

-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의 재정건전화 목표[82]를 견지하면서 세출 억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및 고물가 대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1조 6,231억 엔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2023년에도 13조 1,992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5%('22) → 5.1%('23)까지 악화됨.

○ 일본 정부는 2022~2023년 2년 동안 편성한 추경 44조 8,223억 엔 중 약 77%인 34조 4,279억 엔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함.[83]

○ 고물가 대응을 위해 일본정부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한시 지급 등의 정책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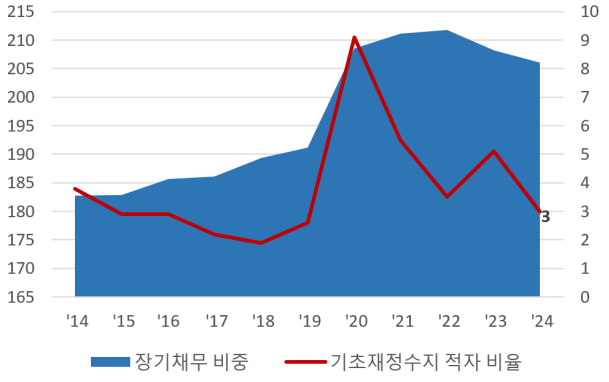
- 2023년 6월 발표된 내각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23(骨太の方針: 골태방침)'에서는 "긴급한 때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재정건전화의 취지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정건전화 목표에 임할 것"이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재정흑자 목표 달성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4년 1월 발표된 내각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024년부터 연평균 실질 GDP 2% 성장을 이뤄나간다 하더라도 2025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4%로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짐.[84]

80) 「植田日銀1年の振り返り ~ここまでは順調だが、真の正常化への道のりは長い~」, 明治安田総合研究所, (2024. 4. 5) 및 「1~3月期GDP、年率0.54%減へ下方修正―日銀の利上げ、約5割が年内1回予想」,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2024. 4. 10).
81) Bloomberg, 「日銀の利上げペース、市場想定より速まる可能性も－物価予想通りなら」(2024. 5. 2).
82)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 아베 전 총리 시절 재정건전화 계획은 ① 2025년도에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② GDP 대비 정부부채의 안정적 인하임.
83) 財務省, 「予算·決算」, 연도별 자료.

- 한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8~19일 금융완화정책의 일부 운용을 종료하면서 정책 정상화에 돌입하였는데, 향후 금리 인상이 빨리 진행될수록 국채 관련 비용이 세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정부의 재정 구조상 재정 리스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성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2027년도 일본 국채 관련 비용은 2024년도의 약 1.6배인 15.3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85]

그림 3-32.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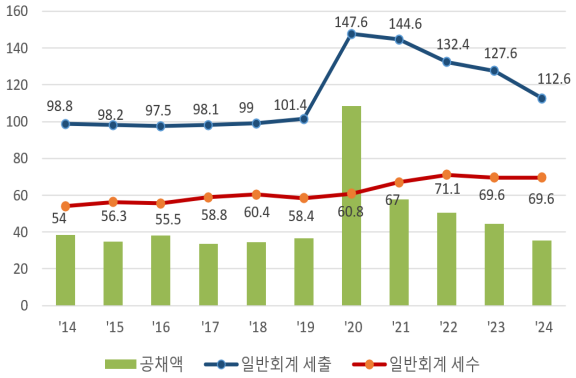
(단위: %)



주: 1) 연평균 실질 GDP 2% 상승을 전제로 함.
2) '23년, '24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内閣府.

그림 3-33. 일본정부의 세수, 세출총액 및 공채액 추이

(단위: 조 엔)



주: 공채액은 세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로 조달되는 수입을 의미함.
자료: 財務省(검색일: 2024. 4. 10).

3) 핵심 이슈

■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의 해소(청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미·일 금리차 유지 전망 등으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역시 단기간 내 청산되지 않고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월 18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포함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착수하면서 향후 엔화 강세 국면에 대한 예상과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Yen-Carry-Trade)*의 청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저금리 통화인 엔을 차입하여 고금리 통화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른 수익을 얻는 거래를 의미[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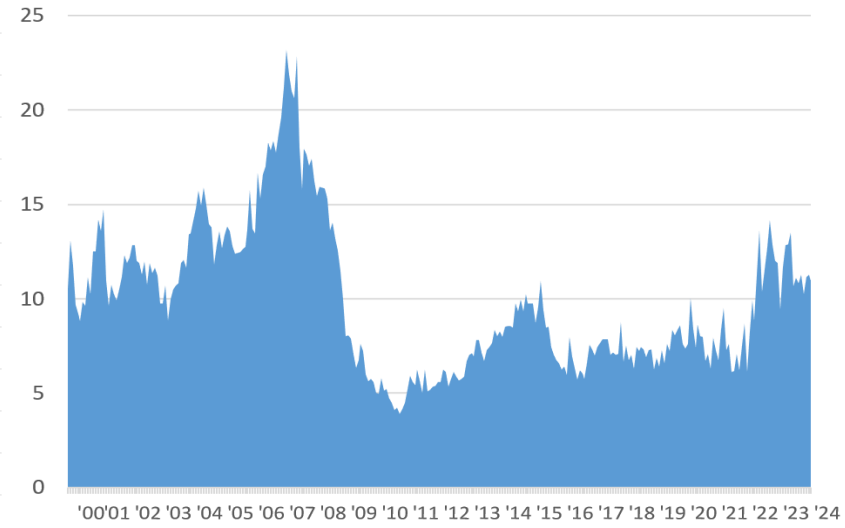
-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2022년 초반 약 6조 엔 정도였으나, 미일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2024년 2월 말 잔액 기준으로 약 11조 엔 수준까지 증가함(그림 3-34 참고).
  - 과거 2007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을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거래규모가 23조 엔에 육박하였다가, 이후 2008~09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국면에서는 그 규모가 5조 엔 수준까지 하락하고 엔화 강세가 진전됨.
- 그러나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 이후에도 엔화 매도세가 크게 진행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84) 内閣府(2024. 1. 22),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1月22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p. 20.
85) 「企業や家計・政府は利上げに耐えられるか影響どこまで マイナス金利解除データで読む日本経済⑤」(2024. 3. 22), 『日本経済新聞』.
86)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엔화 매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 원동력이 되기도 함. 반대로 거래가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엔화 매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

○ 4월 9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매매동향을 나타내는 비농업 부문의 미국 달러 대비 엔화 매도 규모가 2007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엔화 매도세는 4주 연속 지속되고 있음.[87]

그림 3-34. 엔캐리 트레이드 추이

(단위: 조 엔)



주: 일본은행 '외국은행 재일지점의 주요자산' 월말 평균잔액 기준.
자료: 日本銀行(검색일: 2024. 4. 24).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일본 경제성장률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1.9%)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4년 0.9%, 2025년 1.0%로 전망함.

- 2024년의 경우 안정된 물가와 예상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 등에 기반하여 개인소비와 기업투자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노토반도 지진 및 자동차 산업의 품질 인증 부정 문제 등 일시적인 요인들로 인해 1/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존 전망치(1.0%)보다 소폭 하향 조정함.

○ 개인소비는 감세정책(6월부터 연수입 2,000만 엔 이하 1인당 소득세 등 연간 4만 엔↓) 및 소득 개선(실질소득 증가율 7~9월 플러스로 전환 전망)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임.

○ 기업활동을 보면, 국내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와 높은 투자의욕에 기반한 투자 확대가 기대되지만, 수출 호조와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뒷받침했던 엔저 추이에 따라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상화 추진 과정과 금융시장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의 경우, 2024년에는 반도체 공급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IT 업황 회복으로 인한 수출 확대와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확대 전망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수출입 기여도는 전년대비 하락할 전망

○ 이 밖에도 △녹색전환·디지털 전환·반도체 및 AI 등의 국내투자 확대정책, △완만한 고용상황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자원가격 변동성,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현 정권 지지율 하락 및 정책 추진동력 하락 가능성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87) 「投機筋の円売り加速、4週連続拡大 07年6月以来の水準」(2024. 4. 16), 『日本経済新聞』.

- 가솔린·전기·가스 부담 경감책 및 감세 정책 등의 경우 2024년 중 종료 또는 축소 예정으로 2025년에는 정책 효과가 감소할 것이나 견고한 임금과 물가 선순환이 구축된다는 전제 하에 소득과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표 3-9. 주요 기관의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KIEP [2024. 5]		IMF [2024. 4]		일본은행 [2024. 4]		다이와종합연구소 [2024. 3]		OECD [2024. 5]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2024. 3]		닛세이 기초연구소 [2024. 3]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일본	0.9	1.0	0.9	1.0	0.8	1.0	0.6	1.4	0.5	1.1	0.8	0.8	1.0	1.1

주: 1)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2) 일본은행,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해당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기준, 그 외는 해당 연도 1~12월 기준임.
* 일본은행은 정책위원 전망의 중앙치.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4. 신흥국 경제 전망

가. 중국

1) 거시경제 현황

■ 2023년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소비와 생산 등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5.2%를 기록했으며, 2024년 1/4분기에는 생산 및 투자 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5.3% 성장함.

- 2023년 중국경제는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대외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소비와 생산 증가에 힘입어 5.2% 성장함.
  - ○ 소매판매 증가율은 리오프닝 이후 외식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7.2% 증가했으며, 생산은 태양광 전지,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설비 등을 중심으로 4.6% 증가
  - ○ 소비, 투자, 순수출의 GDP 기여도는 각각 4.3%p, 1.5%p, -0.6%p이며, 특히 소비가 성장에 주요 역할을 수행
- 2024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생산과 투자확대로 전년동기대비 5.3% 성장함.
  - ○ 생산은 충전설비, 3D프린팅 설비,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6.1%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투자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4.5% 증가

표 4-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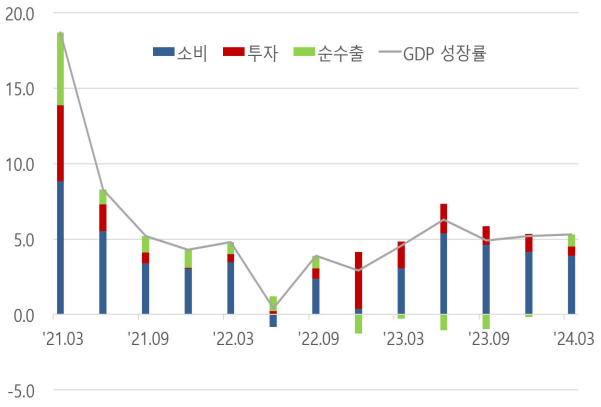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1	'22	'23	'24				
					Q1	Q2	Q3	Q4	Q1
GDP		8.4	3.0	5.2	4.5	6.3	4.9	5.2	5.3
소매판매		12.5	-0.2	7.2	5.8	11.4	4.2	8.4	4.7
고정자산투자		4.9	5.1	3.0	5.1	3.8	3.1	3.0	4.5
수출		29.9	7.0	-4.6	-1.9	-4.9	-9.9	-1.2	1.5
수입		30.1	1.1	-5.5	-7.2	-7.0	-8.5	0.8	1.5
산업생산		9.6	3.6	4.6	3.0	4.5	4.2	6.0	6.1
PMI	제조업	50.5	49.1	49.9	51.5	49.0	49.7	49.3	49.7
	비제조업	52.9	49.1	53.2	56.3	54.7	51.4	50.4	51.7
물가	CPI	0.9	2.0	0.2	1.3	0.1	-0.1	-0.3	0.0
	PPI	8.1	4.1	-3.0	-1.6	-4.5	-3.3	-2.8	-2.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계치임.
2) 수출입은 미달러 기준 증가율임.
3) 소매판매, 산업생산, PMI, CPI, PPI는 분기 합의 평균임.
자료: CEIC, 중국해관총서,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4-1.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의 기여도

(단위: %, %p)



자료: CEIC.

■ [소매판매 증가율] 2023년 중국의 소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서비스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7.2% 증가했으며, 2024년 1/4분기에도 춘절효과로 외식업 판매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함.

- 2023년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방역통제 완화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2022년(-0.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함.

○ 정부의 내수확대 및 소비촉진 정책에 힘입어 주요 소비품과 여행 및 외식업 등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고, 전체 소매판매에 중요한 영향[88]을 미치는 자동차의 판매증가율(0.7%→5.9%)이 큰 폭으로 개선

- 2024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춘절효과로 외식업 판매(10.8%)가 상품 판매(4.0%)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승함.

○ 정부의 지속적인 소비촉진책으로 상품소비가 꾸준히 회복되고, 외식업과 여행, 문화 등 관련 서비스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 [대외무역] 2023년 중국의 수출입은 대내외 수요 부족으로 전년대비 각각 4.6%, 5.5% 감소했으며, 2024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5%씩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837억 달러를 기록함.

- 2023년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전제품, 의복, 휴대전화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주요 수입품목인 반도체, 원유, 철광석 역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47억 달러 감소한 8,232억 달러를 기록함.

○ ASEAN(-5.0%, -4.8%), EU(-10.2%, -0.9%), 미국(-13.1%, -6.8%) 등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수출입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대만(-15.4%), 한국(-18.7%), 일본(-12.9%)으로의 수입은 모두 두 자릿수 감소

- 2024년 1~2월 주요 교역품을 중심으로 확대된 수출입이 3월 들어 각각 7.5%, 1.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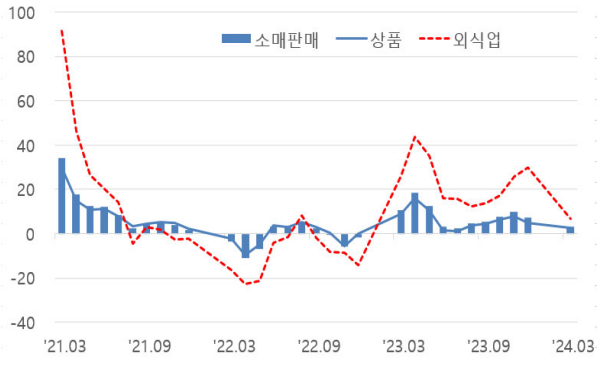
○ 1~2월 반도체, 가전제품의 증가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7.0%로 확대되었으나, 3월에는 자동차(부품 포함), 반도체 등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가전제품, 의복 등 수출이 부진

○ 1~2월 철광석, 반도체 등의 증가로 수입증가율이 3.5%로 확대되었으나, 3월에는 자동차, 원유, 농산품 등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

○ 3월 주요국 간 교역을 살펴보면 대만(5.4%)을 제외하고는 미국(-15.9%), EU(-14.9%), 한국(-12.1%)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수입의 경우 한국(8.4%)을 제외하고는 미국(-14.3%), EU(-7.3%), 대만(-9.1%)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그림 4-2.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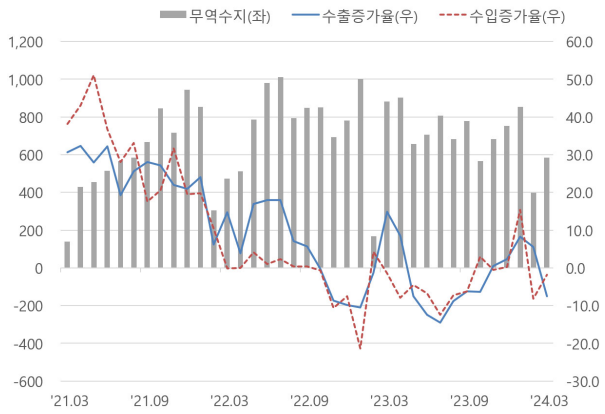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4-3.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USD,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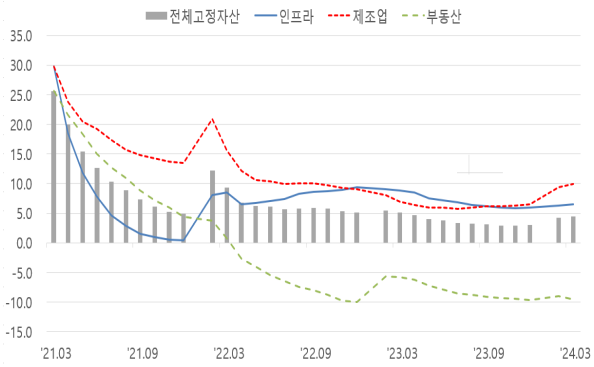
88) 2023년 기준 전체 소매판매에서 자동차는 10.3%를 차지. 中国网(2024. 1. 19), 「中国发布 | 2023年我国汽车产销量创新高 新能源汽车销量增长37.9%」, http://news.china.com.cn/2024-01/19/content_116952446.html(검색일: 2024. 4. 29).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023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투자 부진의 장기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4분기 중국의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 2023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투자(6.5%)와 인프라(5.9%)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투자(-9.6%) 부진이 심화되면서 3.0% 증가했으며, 민간투자는 마이너스 증가율(-0.4%)을 기록함.
- 2024년 1/4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부동산개발 투자(-9.5%)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제조업(9.9%)과 인프라(6.5%) 투자 증가로 전년대비 4.5%를 기록했으며, 민간투자는 2024년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0.5% 증가함.
  - ○ 첨단 제조업(10.8%)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특히 항공우주장비(42.7%), 컴퓨터 및 사무기기(11.8%), 전자 및 통신장비(11.0%) 분야에 투자가 집중
- 2023년 중국의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2022년 대비 8.0%[89] 감소했으며, 2024년 1/4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분화된 양상을 보임.
  - ○ 전체 제조업의 외자이용금액은 1.8% 감소했으나, 의료기기 장비 및 계측기기(32.1%), 전자 및 통신장비(12.2%)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외자이용금액은 증가
  - ○ 2024년 1/4분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는 26.1% 감소했으나, 서비스업과 첨단제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증가했으며, 특히 '의료기기 장비 및 계측기기 제조업'의 외자 이용액이 전년동기대비 169.7% 증가[90]

그림 4-4. 중국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단위: %)



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계치임.

그림 4-5.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단위: %)

주: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누계치임.

■ [산업생산] 2024년 1/4분기 중국의 산업생산(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6.1% 성장했으며, PMI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임.

- 2023년 중국의 산업생산은 4.6%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이 각각 2.3%, 5.0%, 4.3% 증가함.
  - ○ 태양광 전지(54.0%), 신에너지 자동차(30.3%), 발전기 설비(28.5%)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생산이 크게 증가
- 2024년 1/4분기는 첨단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함.

89)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4. 1. 19), 「2023年全国吸收外资1.1万亿元人民币」,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rcxw/202401/20240103467642.shtml(검색일: 2024. 4. 29).
90)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4. 4. 22), 「2024年1-3月全国吸收外资3016.7亿元人民币」, http://data.mofcom.gov.cn/article/zxtj/202404/61457.html(검색일: 2024. 4. 29).

○ 첨단 제조업(7.5%)의 생산이 스마트 자동차 장비 제조(61.5%), 반도체 소자 장비 제조(40.6%), 집적회로 제조(18.5%)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전자(13.0%), 철도·선박·항공우주(10.0%) 등 장비제조업도 크게 증가[91]

- 2024년 3월 제조업 PMI는 50.8로 2월(49.1)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2023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50선을 회복함.

○ 원자재 재고(47.4→48.1), 고용(47.5→48.1)이 기준치를 하회하여 부진했으나, 생산(49.8→52.2)과 공급자 배송시간(48.8→ 50.6), 신규 주문(49.0→ 53.0), 신규 수출주문(46.3→51.3)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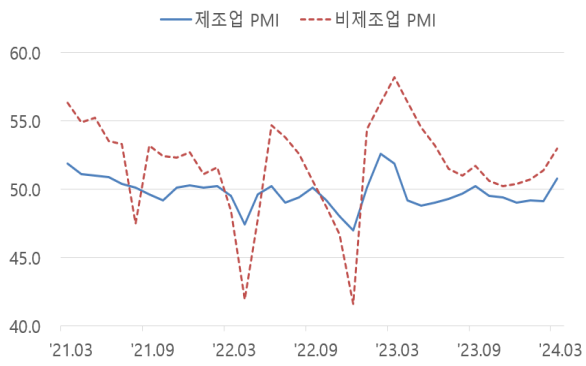
- 2024년 3월 비제조업 PMI는 53.0으로 2월(51.4)보다 상승함.

○ 서비스업(51.0→52.4)은 정보 서비스, 금융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월보다 상승하고, 건설업(53.5→56.2)은 춘절 연휴 이후 공사 재개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그림 4-6. 중국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4-7. 중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지수



자료: CEIC, 국가통계국.

■ [물가] 2023년 CPI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PPI는 4분기 연속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2024년 1/4분기에도 CPI 증가율은 0.0%, PPI 증가율은 -2.7%를 기록함.

- 2023년 CPI는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식품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0.2% 상승에 그쳤으며, PPI는 3.0% 하락함.

○ PPI 하락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 국내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 더딘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기인[92]

- 2024년 1/4분기 CPI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PPI는 하락세를 지속함.

○ CPI는 1~2월 춘절과 자연재해 등의 영향에 기인하여 등락을 보이면서 3월 들어 0.1% 상승한 반면, PPI는 3월에도 2.8% 하락하여 '22년 10월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1/4분기 근원 CPI는 0.7% 상승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 [고용] 2024년 1/4분기 전국 조사실업률은 5.2%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2023년에 이어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됨.

91) 国家统计局(2024. 4. 17),「汤魏巍 : 工业经济较快增长 高质量发展稳步推进」, https://www.stats.gov.cn/sj/sjjd/202404/t20240417_1954648.html(검색일: 2024. 4. 29).
92) 国家统计局(2024. 1. 18),「王有捐 : 2023年CPI总体平稳 PPI低位运行」, https://www.stats.gov.cn/sj/sjjd/202401/t20240118_1946704.html (검색일: 2024. 4. 29).

- 2023년 전국 조사실업률은 5.1%로 2022년(5.5%) 대비 하락했으며, 신규 취업자 수도 1,244만 명으로 2022년 신규취업자(1,206만 명)에 비해 38만 명 증가하면서 연간목표(1,200만 명 이상)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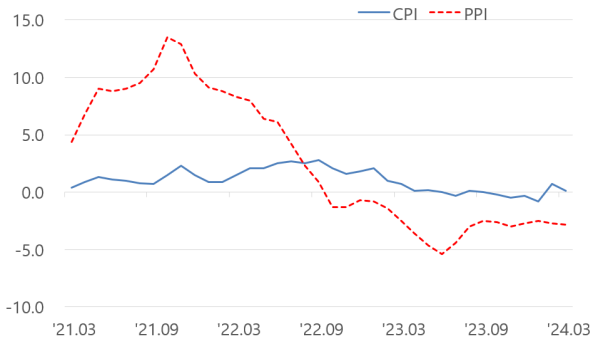
○ 반면 청년실업률(16~24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6월(21.3%)에는 2018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93]

- 2024년 1/4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30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명 증가하였고, 전국 조사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함.

○ 재학생을 제외한 연령별 실업률의 경우 16~24세 15.3%, 25~29세 7.2%, 30~59세 4.1%로 나타나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4-8. 중국 CPI 및 PPI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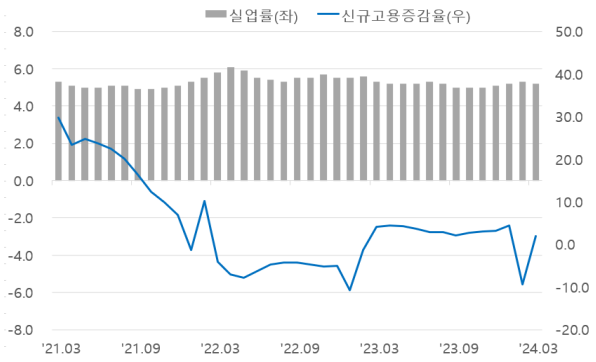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4-9. 중국 실업률 및 신규고용 증감률

(단위: %)



주: 실업률은 누적수치임.
자료: CEIC, 국가통계국.

2) 거시정책 현황

■ 2024년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94]의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리스크 관리, 핵심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 고용 안정 등을 추진할 방침임.

■ [통화정책]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통화완화보다는 전략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2023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 정상화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용대출 확대, 금리 인하, 특별재대출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95]

○ 두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3월 0.25%p↓, 9월 0.25%p↓)로 약 1조 위안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1년물 및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가 각각 0.2%p, 0.1%p 인하되었으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금융시장에 7조 위안이 넘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됨.[96]

93)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7월 이후 연령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2023년 12월 실업률 수치부터 재학생을 제외하고, 연령층을 세분화(16~24세, 25~59세→16~24세, 25~29세, 30~59세)하여 발표함. 새로운 기준에 따른 2023년 연령별 실업률은 16~24세 14.9%, 25~30세 6.1%, 30~59세 3.9%를 기록함.

94) '온중구진'은 안정 속 성장 추구, '이진촉온'은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 '선립후파'는 먼저 성장의 기반을 세우고 나중에 문제점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함.

95) 中国人民銀行(2024. 2. 8), 「2023年第四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 또한 과학기술 혁신 재대출(556억 위안↑), 탄소저감 사업지원 대출(2,314억 위안↑), 영세기업 지원 재대출(2,380억 위안↑)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재대출 규모가 확대됨.

- 2024년 중국정부는 '유연하고 적절한(灵活适度)' 유동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精准有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전달기제 원활화, △기술·녹색·포용·연금·디지털 5대 금융 부문 지원 확대, △중소·영세기업의 융자 수요 충족, △합리적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 안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2024년 1/4분기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0.5%p 인하,[97] △영세기업 재대출 금리와 농업기업 재대출 금리를 각각 0.25%p 인하,[98] △5년물 LPR 0.5%p 인하[99] 등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4월 7일 인민은행은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특별재대출'을 신설하였으며, 5,000억 위안 규모의 이번 재대출은 1.75%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대출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100]

○ 통화 공급량(M2)과 사회융자 총액의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과 물가 목표에 상응한 속도(약 7.4%)로 조절할 계획임.[101]

■ [재정정책] 2024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율 목표는 3.0%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등 재정지원 강도 수준을 높일 방침임.[102]

- 2023년 4/4분기 중국정부는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였으며, 2023년도 재정적자율은 기존의 목표치(3.0%)를 상회하는 3.87%를 기록함.

- 2024년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지만 '재정지원의 적절한 강화, 질과 효과 제고(适度加力, 提质增效)'의 방침하에 △재정 지출 구조 최적화, △재정지원 효과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

○ 2024년의 재정적자율 목표는 3.0%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재정지출 예산 규모는 28조 5,490억 위안으로(전년대비 약 1조 900억 위안↑) 확대됨.

○ 또한 중국정부는 1조 위안 규모의 만기 30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도농 통합발전(도시화), 식량·에너지 안보, 인구의 질적 발전 등 국가 중점전략의 이행 및 핵심 분야의 안보역량 강화에 사용할 방침이며,[103] 이 국채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될 계획임.

○ 이 외에도 2023년에 발행된 특별국채 잔액 5,000억 위안이 2024년에 집행될 예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임.

---

96) 2023년 MLF를 통해 금융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은 전년동기대비 2.5조 위안 증가하였고, 2023년 4/4분기에만 약 3.7조 위안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됨.
97)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로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가중평균은 7.0%로 조정됨.
98) 中国人民银行(2024. 1. 24),「中国人民银行决定下调金融机构存款准备金率和支农支小再贷款、再贴现利率」,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217425/index.html(검색일: 2024. 4. 15).
99) 中国人民政府(2024. 2. 20),「下降25个基点！5年期LPR降至3.95%」,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2/content_6932222.htm(검색일: 2024. 4. 15). 2024년 4월 말 기준, 1년물 LPR은 3.45%, 5년물 LPR은 3.95%를 기록. 中国人民银行, http://www.pbc.gov.cn/rmyh/108976/index.html#LPR(검색일: 2024. 4. 29).
100) 이번 재대출은 이미 만기된 '과학기술 혁신 재대출(4,000억 위안)'과 '설비 업그레이드 재대출(2,000억 위안)'의 연장선으로 진행됨. 同花顺财经(2024. 4. 7),「5000亿科技创新和技术改造再贷款落地，或撬动8300亿信贷增量」, https://stock.10jqka.com.cn/20240407/c656630485.shtml(검색일: 2024. 4. 29).
101) 정지현 외(2023),「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8.
102) 위의 자료, p. 7, p. 19.
103) 中国人民银行行长潘功胜出席十四届全国人大二次会议经济主题记者会(2024. 3. 6).

3) 핵심 이슈

■ [내수시장 활성화] 2024년 중국은 내수부진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부동산 구조조정 속도를 완화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주체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고자 함.

- 2023년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나타남.

○ 2023년 중국의 소비는 상반기 리오프닝 효과로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면서 연초에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으나 6월부터는 3%대로 하락하였고, 지속되는 부동산 투자 부진으로 인해 고정자산투자 전년대비 증가율은 3.0%를 기록함.

-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소비 활성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2023년 7월 중국정부는 △주요 품목의 소비 안정화, △서비스 소비 확대, △농촌지역의 소비 촉진, △신소비 확대, △소비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였고,[104] 소득분배 체계 개선, 신소비 확대, 소비환경 최적화 등의 내수진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 부동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측 중심으로 주택 최초 구입 시 계약금 비중을 하향 조정 및 주택구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105] 공공임대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공공임대 주택의 토지사용세 면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에 대한 관련 취득세 및 인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106]

○ 또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중국정부는 민영경제발전국(民营经济发展局)을 신설하고, 11월에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25개 조치를 발표함.[107]

- 2024년에도 중국정부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점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대규모 설비 및 소비재의 교체 촉진, 신소비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시행하며,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하여 잠재 소비를 확대하고자 함.

○ 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등을 통해 내수를 창출하고,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108]을 통하여 설비와 소비재 교체 소비를 유도하며 관련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방침임.

○ 또한 고용 안정을 위해서 2024년 1월 중국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4월까지 일자리 3,0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고용 프로젝트(春风行动)[109]를 추진함.

- 하지만 중국경제의 대외환경이 불확실하고, 소비와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축된 기대심리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2024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110]는 89.1을 기록하며 23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음.

---

104) 中国政府网(2023. 7. 28), 「国务院办公厅转发国家发展改革委关于恢复和扩大消费措施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7/content_6895599.htm(검색일: 2024. 4. 29).

105)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8월 31일 전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두 번째 주택구입자에 대해 계약금 비율을 각각 20%, 30%로 일괄 적용할 것을 발표했으며, 두 번째 주택 대출금리 하한을 LPR+20bp로 하향 조정함. 中国人民银行(2024. 2. 8), 「2023年中国货币政策大事记」,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238287/index.html(검색일: 2024. 4. 29).

106)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공 임대주택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 면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에 대한 관련 취득세 및 인지세 면제, 지방정부로부터 도시주택 보증가구가 받는 주택임대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함. 그 밖에 종전 주택매도자가 부당하던 부동산 거래수수료를 거래금액의 2.7%에서 2%로 인하하되 매수자, 매도자가 거래금액의 각각 1%씩 부담하도록 변경함. 中国政府网(2023. 8. 18), 「关于继续实施公共租赁住房税收优惠政策的公告」,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8/content_6900230.htm(검색일: 2024. 4. 29).

107) 中国政府网(2023. 11. 27), 「关于强化金融支持举措 助力民营经济发展壮大的通知」, https://www.gov.cn/lianbo/bumen/202311/content_6917268.htm(검색일: 2024. 4. 29).

108) 이구환신(以旧换新):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할 때 같은 종류의 중고 제품을 상점에 반납하면 일정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임(재정보조금 기반). 「以旧换新」,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4%BB%A5%E6%97%A7%E6%8D%A2%E6%96%B0/26422(검색일: 2024. 4. 30).

109) 中国新闻网(2024. 1. 24), 「人社部：“春风行动”将于1月下旬至4月上旬举行 预计提供就业岗位3000万个」, https://www.chinanews.com.cn/cj/2024/01-24/10151766.shtml(검색일: 2024. 4. 29).

○ 중국의 주민저축률은 2013부터 2019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연 평균 31%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36%로 증가함.[111)]

○ 2024년 중국정부가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도 소비·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5% 미만의 성장률 목표가 소비·투자의 부진 심화 및 경제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평가됨.[112)]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2024년 중국정부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였지만, 비교적 높은 기저효과 및 시장의 낮은 기대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 리스크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1/4분기 중국 거시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일부 거시경제지표가 3월에 다시 둔화되면서 경제성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1~2월 생산, 소비, 수출입에서 거시지표는 호조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의 청신호를 보였으나, 3월 생산(전년도 12월 대비 2.3%p↓), 수출(전월대비 13.1%p↓), 소매판매증가율(전월대비 1.4%↓) 등에서 성장률 둔화

○ 2024년 이후 부동산 부문의 고정자산투자는 2월과 3월 누적증가율이 각각 -9.0%와 -9.5%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확대

- 하지만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중점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강도 확대, 지속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응조치 실행 등 중국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과도한 경제성장 둔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25년에도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 흐름은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함.**

- 2025년는 '14.5 규획' 기간의 마지막 해로, 이 기간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필요한 과학기술 혁신과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는 지속 확대될 전망임.

-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 부채 등의 경제 리스크에 대하여 단기적고 급진적인 대응보다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와 투자 부문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중국 경제 흐름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4-2. 주요 기관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KIEP [2024. 5]		IMF [2024. 4]		ADB [2024. 4]		World Bank [2024. 1]		Oxford Economics [2024. 4]	
연도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중국	4.8	4.5	4.6	4.1	4.8	4.5	4.5	4.3	4.7	4.1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110)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조사한 지수임.
111) Sohu(2022. 11. 5), 「为什么居民储蓄率大幅上升？」, https://www.sohu.com/a/602753231_467568(검색일: 2024. 5. 14).
112) 정지현 외(2023),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18.

나.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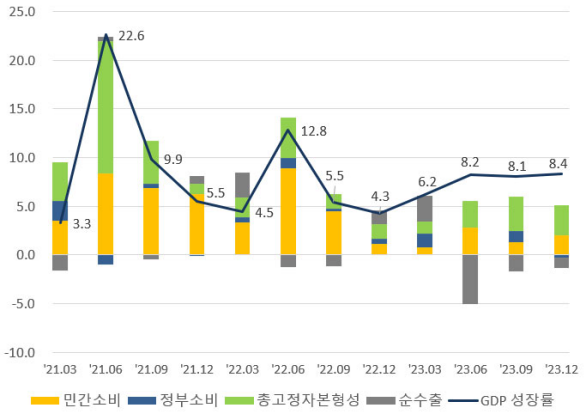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 인도경제는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함.[113]

- 당초 인도 중앙은행은 2023년 3/4분기 6.5%, 4/4분기 6.0%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으나(2023년 9월), 예상보다 큰 규모의 고정 투자와 경상수지 적자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8.1%와 8.4%를 기록함.
  - ○ 정부와 민간 부문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총고정자본형성이 3/4분기 11.6%, 4/4분기 10.6%의 높은 성장세를 달성함.
  -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상품수지 적자 폭이 다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114]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수출 확대로 서비스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됨.[115]
- 원자재가격 하락, 물류 환경 개선,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116]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3/4분기 14.4%, 4/4분기 11.6%의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주택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건설업은 3/4분기 13.5%, 4/4분기 9.5% 성장함.
- 한편 이상기후로 카리프(몬순 수확기, Kharif)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23년 4/4분기 농업 부문 성장률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4-10. 인도 GDP 성장률 및 수요 항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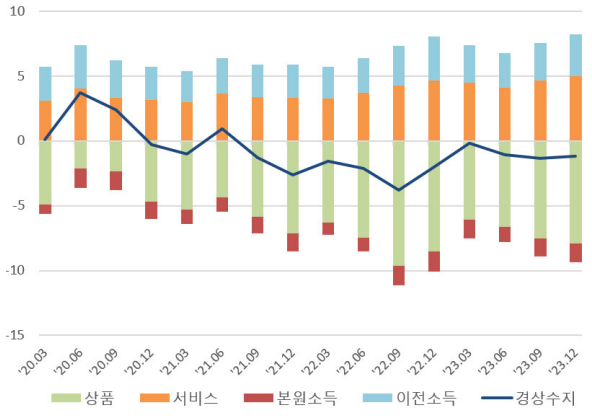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5)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4-11. 인도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4.4.25.) 바탕으로 저자 계산.

113) 2023년 상반기에도 투자 호황과 민간소비의 확대로 성장률이 1/4분기 6.1%, 2/4분기 7.8%를 기록하며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음.
114) 수출은 △ 엔지니어링, △ 전자제품, △ 의약품, △ 철광석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 금·은, △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
115) The Print(224. 3. 22), "Merchandise & services exports soar, trade deficit shrinks – how India's exports have rebounded"; Business Standard(2024. 2. 14), "Services trade surplus hits record $44.9 billion in December quarter." 서비스 수출에서 소프트웨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수출이 급증했는데, 이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 내 글로벌 역량센터(GCC: Global Capacity Center 또는 GIC: Global In-house Center) 설치와 관련이 있음. GCC는 IT, 재무, 인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본사에 제공하는 역할로, 기존의 백오피스 프로세스 수준을 넘어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화, AI, ML, 사이버보안 등에 중점을 두고 본사를 지원함. People Matters(2024. 3. 4), "India: A rising star in the global capability center landscape" 참고.
116) 2020년 4월 발표된 제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으로, 선정된 국내 제조 기업들에 대해 평균 5년간 매출증가분의 4~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인도전자정보기술부, https://www.meity.gov.in/esdm/pli.

표 4-3. 인도의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구성 요소 (GDP 및 GVA 비중)			2022				2023				연간(회계연도 기준)	
			Q1	Q2	Q3	Q4	Q1	Q2	Q3	Q4	2021/22	2022/23
GDP 성장률			4.5	12.8	5.5	4.3	6.2	8.2	8.1	8.4	9.7	7.0
수요	민간소비	(58)	6.2	18.5	8.2	1.8	1.5	5.3	2.4	3.5	11.7	6.8
	정부지출	(10)	5.0	9.8	3.4	7.1	13.9	-0.1	13.8	-3.2	0.0	9.0
	총고정자본형성	(33)	6.4	13.9	4.7	5.0	3.8	8.5	11.6	10.6	17.5	6.6
	수출	(24)	22.5	19.1	11.7	10.9	12.4	-6.5	5.3	3.4	29.6	13.4
	수입	(24)	6.9	26.1	16.1	4.1	-0.4	15.3	11.9	8.3	22.1	10.6
공급	농림수산업	(15)	5.5	2.7	2.3	5.2	7.6	3.5	1.6	-0.8	4.6	4.7
	광공업	(30)	2.3	6.8	-2.4	0.6	3.4	6.0	13.6	10.4	12.2	2.1
	-제조업	(17)	-0.3	2.2	-7.2	-4.8	0.9	5.0	14.4	11.6	10.0	-2.2
	서비스업	(54)	5.3	16.7	9.8	7.2	7.2	10.7	6.0	7.0	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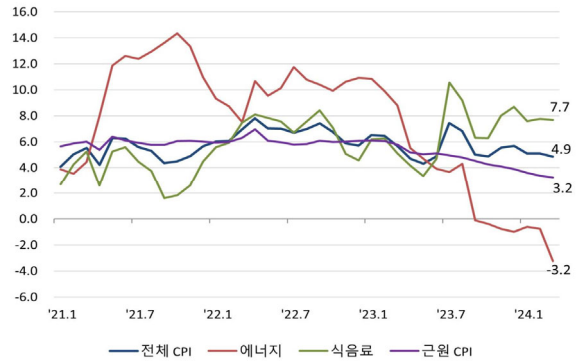
주: 2021/22년 기준가격, 전년동기대비, 구성요소의 GDP 또는 GVA 비중은 2022/23년 기준. 2021/22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를 지칭.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5)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물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채소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하고 있음.

-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2023년 4/4분기부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인도의 전체 물가상승률이 2024년 1월과 2월 5.1%, 3월 4.9%를 기록하며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치(4±2%)에 근접함.
- 2023년 7~8월 홍수 피해와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한 후 정부의 식료품 수출 제한 조치로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평년보다 높은 겨울 기온과 북부지역 한파 등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임.
  - ○ 2023년 여름에는 토마토, 겨울에는 양파와 마늘 가격이 급등함.

그림 4-12.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5).

그림 4-13. 인도 환율 및 주가지수

(단위: INR/USD, 지수)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5).

■ [금융·외환 시장]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2022년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187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한 반면 2023년 거시경제 안정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3연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약 31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함.
  - ○ 인도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모디노믹스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의 고성장 기조가 강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센섹스(Sensex) 지수는 2024년 4월 최초로 7만 5,000선을 넘어서는 등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4년 1월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이 4조 3,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함.[117]
- 인도 루피화 환율은 큰 변동성 없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러당 82~83루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견고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일곱 차례 연속 6.5%로 동결함.

- 2024년 4월, 중앙은행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가격 변화가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의 안정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힘.[118]
  ○ 비록 기준금리가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나, 견고한 경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안정을 선결과제로 보고 있음.
- 이르면 2024년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기상이변,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의 공급 충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정책] 총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었으나 2023/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8%까지 감소했으며 2024/25년에는 이를 5.1%까지 축소할 계획임.[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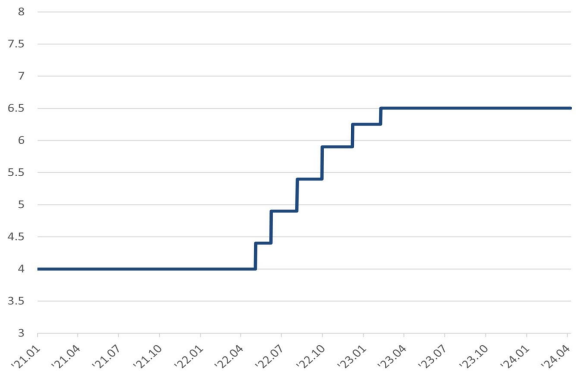
- 인도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크게 확대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인도 재무부는 2024/25 임시 예산안[120]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5.1%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 세무 신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며, 인도 국채의 글로벌 지수 편입으로 자금 조달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121]
  ○ 인도 국채는 글로벌 채권투자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JP모건(2024년 6월)과 블룸버그(2025년 1월)의 신흥시장 국가 채권지수[122]에 추가될 예정임.
- 비록 견고한 경제성장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0/21년 이래 대폭 확대된 보조금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함.
  ○ 인도정부는 식료품, 비료, 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2020/21년 7조 5,000억 루피, 2021/22년 6조 루피, 2022/23년 6조 8,000억 루피(약 8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4/15년 2조 6,000억 루피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임.[123]
  ○ 2023년 11월, 인도정부는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무료 식량 배급 프로그램(PMGKAY)'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117) Bloomberg(2024. 1. 23), "India tops Hong Kong as world's fourth largest stock market"(검색일: 2024. 4. 9).
118) RBI Bulletin(April 2024).
119) 2023/24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를 지칭.
120) 총선 결과 발표 후 2024년 7월, 2024/25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임.
121) EIU, One-click report: India (April 19, 2024); CNBC(2024. 3. 26), "Indian bonds are set to be added to global indexes. Here's why it could be a gamechanger"(검색일: 2024. 4. 26).
122) JPMorgan Government Bond Index-Emerging Markets (GBI-EM), Bloomberg Emerging Market Local Currency Government Index.
123) Financial Times(2024. 4. 3), "In charts: Narendra Modi's welfare 'freebies' offer an election boost"(검색일: 2024. 4. 25).

그림 4-14. 인도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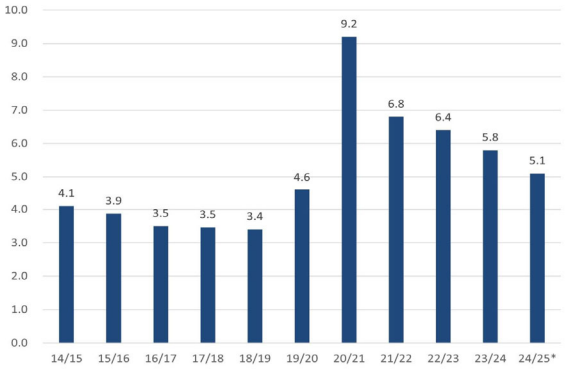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5).

그림 4-15. 인도 재정적자

(단위: GDP 대비 %)



주: * 정부 목표치.
자료: 인도 재무부(검색일: 2024. 4. 8).

3) 핵심 이슈

■ [인도 총선] 2024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노믹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인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높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의 3연속 집권이 유력함.

○ 의원내각제인 인도에서는 하원 의석(543석)의 다수를 확보한 정당 또는 연립정당이 총리를 지명하는데, 연립야당 인도국민개발포괄동맹(INDIA)의 견제 역부족으로 BJP의 압승이 예상됨.[124]

- 총선 이후에는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모디노믹스의 핵심인 △ 제조업 육성, △ 인프라 투자, △ 교역 활성화 및 FDI 유치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모디 총리는 '세 번째 임기 내 인도의 세계 3대 경제 대국 부상'이라는 목표 아래 △ 글로벌 제조 허브 구축, △ 국제 인프라 협력, △ 농업 인프라 강화, △ 여성 교육 및 노동 참여 확대, △ 스타트업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제조업]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에 더해 국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보조금 지급,[125]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유치를 위한 관세 인하[126] 등 제조업 육성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국내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UAE와의 경제회랑 구축(IMEC),[127] 뱅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128]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별 인프라 투자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FTA] 최근 교역 활성화,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글로벌 입지 강화를 목표로 UAE, 호주에 이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29]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영국과도 FTA 체결을 앞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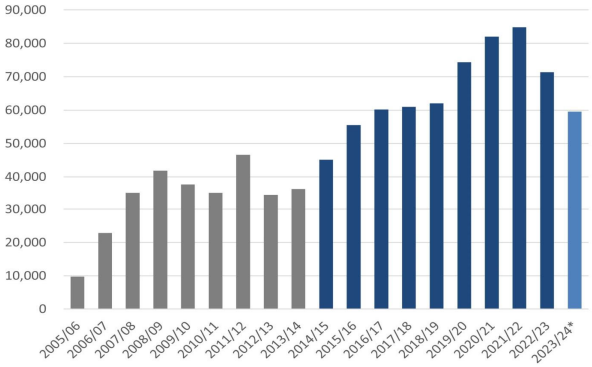
---

124) 자세한 내용은 김도연 외(2024), 「2024년 인도 총선 의의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13 참고.
125) 인도 중앙정부는 반도체 팹 또는 디스플레이 팹 설립 시 소요되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지원함. 인도 전자정보기술부(2022. 9. 21), "Modified Programme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 Fab Ecosystem.
126) 기존 인도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 70% 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소 5억 달러 투자, 3년 내 국내 전기차 생산에 착수하는 기업에 대해 3만 5천 달러 이상의 전기 자동차 완제품을 연간 8천 대까지 관세 15%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인도 상공부(2024. 3. 15), "Government approves E-Vehicle policy to promote India as a manufacturing destination for EVs."
127)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인도는 인도 서해안과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해상 및 철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밝힘(2024. 2. 13).
128)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7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역내 경제·사회·안보 분야 협력과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129)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FDI]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도 2019/20년 이래 연평균 FDI(gross 기준) 유치액 780억 달러를 달성한 모디 정부는 투자 규제 완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연간 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목표를 설정함.[130]

그림 4-16. 인도 FDI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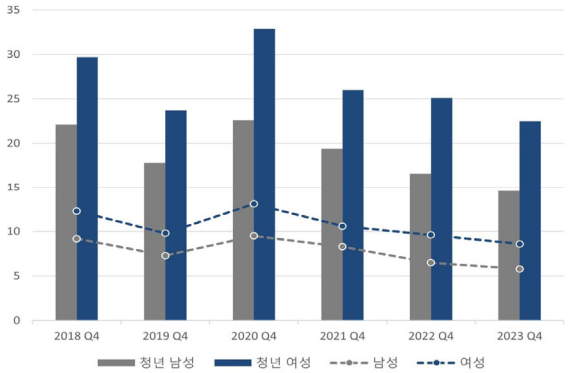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모디 정부 집권 시기 남색으로 표시, * 1월까지의 누적액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8).

그림 4-17. 인도 도시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6).

■ [인도 노동시장] 청년과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은 모디 3기 정부의 최대 과제로 제시됨.

-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갖고 있으나, 견고한 경제 성장세에 비해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LFPR)은 55.2%로 세계 평균(59.8%)을 하회하고 있으며 청년(15~29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42.0%, 32.8%에 불과함.[131]

○ 2023년 4/4분기 기준, 도시 경제활동참가율은 39.2%, 그중에서도 여성은 19.9%로 저조한 수준임.

- 인도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나, 저생산성 산업에서 고생산성 산업으로 고용 이동이 일어났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는 달리, 최근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저생산성 산업으로 고용이 역이동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음.[132]

○ 도시 실업률은 2020년 2/4분기 20.9%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4/4분기 6.5%까지 하락했으나, 여성 실업률은 8.6% 청년 실업률은 16.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고용 아동은 주로 농업 부문에서 서비스 및 건설업 부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으로의 이동은 저조했음.

- 인도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133] 노동자와 사용자 간 기술 불일치, 낮은 질적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업무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속화 등에 대한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30) Reuters (2024. 1. 18), "India eyes $100 bln annu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oming years - IT minister"(검색일: 2024. 4. 17).
131) ILO(2024), "India Employment Report 2024: Youth employment, education and skills."
132) *Ibid.*
133) △자영업자 무담보 대출 지원,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 창출, △기업가 정신 개발교육, △농촌 청년 기술 교육 등[인도 고용 노동부(2023. 12. 18), "Un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shows a declining trend over the years in both rural and urban areas as per the latest available Annual PLFS Reports"].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정부 및 민간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2024/25년과 2025/26년, 6% 중후반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와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며, 물가안정과 농업 부문 회복으로 농촌지역 소비가 정상화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2024년 3월 기준 125.2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과 인프라 중심의 견고한 성장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모디 정부의 총력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제조업 PMI는 59.1, 서비스 PMI는 61.2를 기록하는 등 산업 부문 전반에서 기업들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우세함.
- 한편, △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분절화, △ 국제유가 상승,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와 물가 상승은 경제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4-4. 주요 기관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3/24	KIEP [2024. 5]		IMF [2024. 4]		ADB [2024. 4]		World Bank [2024. 1]		인도중앙은행(RBI) [2024. 4]	
		2024/25	2025/26	2024/25	2025/26	2024/25	2025/26	2024/25	2025/26	2024/25	2025/26
인도	7.6	6.8 (6.8)	6.5 (6.5)	6.8	6.5	7.0	7.2	6.4	6.5	7.0 (6.7)*	7.0 (6.5)*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 ) 안은 역년 기준. ( )* 안은 RBI가 2024년 3월 시행한 전문가 대상 조사 전망치.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25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를 지칭.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동남아

1) 거시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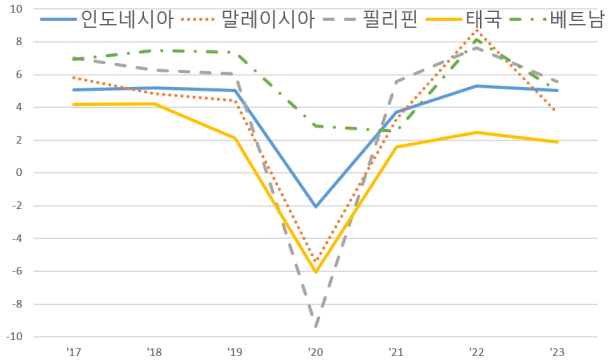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2023년 동남아 주요국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

-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민간소비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로 5.0%를 기록하며 전년도 경제성장률 5.3%보다 낮아짐.
  - 2023년 인도네시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1.3%를 기록해 2022년 16.2%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석탄·천연가스·니켈 등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임.
  - 업종별로는 운송 및 저장업(14.0%), 숙박 및 식음료서비스업(10.0%)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농림수산업(1.3%), 부동산업(1.4%)이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함.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에 기인해 2023년 3.7% 성장하며 전년대비(8.7%)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전기전자제품·팜유·석유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액 감소로 2023년 수출은 전년대비 7.9% 감소했고(22년 수출 증가율 14.5%↑), 민간소비 증가율도 전년대비 크게 하락함(22년 11.2%→23년 4.7%)
  - 업종별로는 제조업(22년 8.1%→23년 0.7%)과 서비스업 성장률(22년 10.9%→23년 5.3%)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 [필리핀] 2023년 필리핀 경제는 높은 물가 및 금리(기준금리 6.5%)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에 기인해 5.5% 성장하며 전년대비(7.6%)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주변 동남아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임.
  - GDP의 약 76%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 기준 5.6%를 기록하며 전년대비(8.3%) 하락함.
  - 업종별로는 운송·숙박·요식업 등 유통 및 관광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2023년 7.1% 성장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전자제품 생산 감소로 2023년 제조업 성장률은 1.3%로 전년대비(4.9%) 하락함.
- [태국] 2023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민간소비 증가율, 관광 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과 상품 수출 부문이 부진해 전년도 경제성장률 2.5%보다 낮은 1.9%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4.6%를 기록하며 역성장했으며,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관련 지출 감소임.[134]
  - 업종별로는 숙박 및 식음료업 성장률이 18.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제조업은 -3.2%로 역성장하며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짐.
- [베트남]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어 2023년 베트남 경제는 5.05% 성장에 그침
  - 주요국 고금리 유지, 러우전쟁, 홍해사태 장기화, 전자제품 글로벌 하향 사이클 등 부정적 대외여건에 따라 주요 수출품의 생산과 수출이 둔화 혹은 감소해 2023년 가공·제조업 성장은 3.62%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업이 회복함에 따라 숙박·음식업(12.24%), 운송·창고업(9.18%) 등 서비스업은 6.8% 성장함.

134) ADB(2024), "Asian Development Outlook April 2024," p. 221.

그림 4-18.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자료: S&P Global(검색일: 2024. 4. 4).

표 4-5. 동남아 주요국의 지출별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GDP	2022	5.3	8.7	7.6	2.5	8.12
	2023	5.0	3.7	5.5	1.9	5.05
민간소비	2022	4.9	11.2	8.3	6.2	10.49
	2023	4.8	4.7	5.6	7.1	4.03
정부지출	2022	-4.5	4.5	5.1	0.1	4.36
	2023	2.9	3.9	0.6	-4.6	3.74
총고정자본형성	2022	3.9	6.8	13.7	2.3	10.85
	2023	4.4	5.5	5.9	1.2	2.75
수출	2022	16.2	14.5	11.0	6.1	10.57
	2023	1.3	-7.9	1.4	2.1	-4.59
수입	2022	15.0	15.9	14.0	3.6	8.03
	2023	-1.6	-7.6	1.0	-2.2	-9.23

자료: CEIC(검색일: 2024. 4. 8);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4. 4. 12); 말레이시아 통계청(검색일: 2024. 4. 14); 필리핀 통계청(검색일: 2024. 4. 14); NESDC(2024), "Gross Domestic Product Q4/2023," p. 19.

■ [환율] 동남아 주요국의 달러대비 통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베트남 동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임.

- [인도네시아] 2024년 4월 기준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1만 6,100루피아로 전년동월대비(2023년 4월 달러당 1만 4,867루피아) 루피아화 가치가 8.3% 하락했으며, 루피아화 가치하락의 주요 요인은 수출둔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분석됨.
- [말레이시아] 대미금리차, 수출 및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3월 평균 달러대비 링깃 환율이 평균 4.72링깃을 기록하며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와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향후 수출과 내수 회복에 기인해 달러당 링깃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발표함.
- [필리핀] 2024년 3월 평균 달러당 페소화 환율은 55.8페소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해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태국] 2024년 4월 기준 달러당 바트화 환율은 36.8바트로 전년동월대비(2023년 4월 달러당 34.3바트) 바트화 가치가 7.3% 하락함.
- [베트남] 중앙은행의 환율 관리에 따라 2024년 3월 기준 대달러 환율은 2만 3,994동으로 전년동월대비 베트남 동화 가치는 1.58% 하락에 그침.[135]

■ [경상수지] 원자재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경상수지가 악화된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은 수입 감소, 태국은 서비스 수출 증가에 기인해 경상수지가 개선됨.

-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액은 16억 달러로 전년도 132억 달러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으며, 상품 수출액이 330억 달러 감소(22년 2,925억 달러→23년 2,595억 달러)한 것이 주요 요인임.
  -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석탄, 비금속(base metal) 가공제품, 천연가스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함.
- [말레이시아] 수출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전년대비 30%↓)로 2023년 기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1.2%를 기록하며 전년대비(3.2%) 큰 폭으로 축소됨.

135) 4월 중순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중앙은행은 보유 달러를 매각하며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환율 방어에 나섬.

○ 관광 부문 회복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감소함.

- [필리핀] 2023년 기준 수입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감소에 기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6%로 전년대비(4.5%) 크게 감소함.

○ 소비 둔화, 제조업 부문 부진에 따른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감소,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해 상품 수입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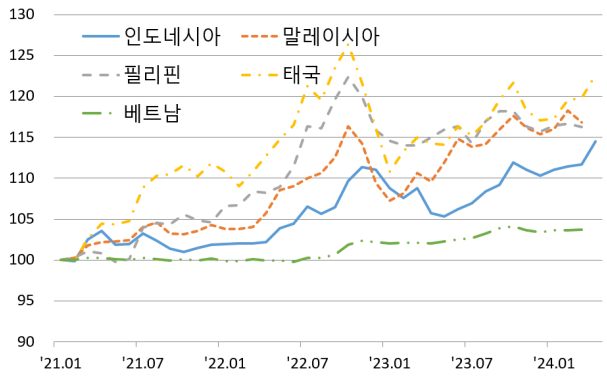
- [태국] 2023년 태국 경상수지는 부진한 상품 수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출이 크게 증가해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23년 태국 상품 수출액은 2,802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억 달러(1.7%↓) 감소했으나, 서비스 수출액이 56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7억 달러(45.6%↑) 증가함.

- [베트남]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상품 수출 감소에도 더 큰 폭의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해외 송금액 유입 증가(160억 달러로 32%↑)로 2023년 경상수지는 흑자 전환(약 112억 달러)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4-19. 동남아 주요국의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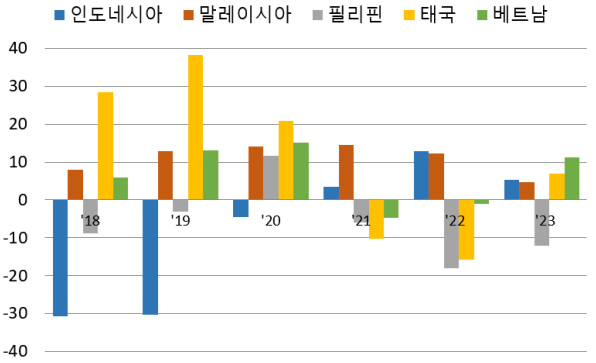
(단위: LCU/달러, 2021년 1월=100)



주: 인도네시아는 IMF IFS 데이터 사용.
자료: S&P Global(검색일: 2024. 4. 28); IMF IFS(검색일: 2024. 5. 7); 태국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2).

그림 4-20. 동남아 주요국의 경상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IU(검색일: 2024. 4. 4).

2) 거시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 가치 안정을 위해 2024년 4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6.25%로 2016년 8월 중앙은행이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이후 최고 수준임.
- 2023년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7%로 전년도 2.4%에 비해 감소했으며,[136] 이는 2011년에 인도네시아 재정적자 비율이 1.1%를 기록한 이후 가장 양호한 수치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으로 중립적 통화정책 추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재정정책 기조 유지

- 2024년 3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8%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발 직전과 동일한 수준임.

136) CEIC 명목 GDP 대비 재정수지(Consolidated Fiscal Balance) 비중 데이터(검색일: 2024. 5. 8).

-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3~5년 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을 60% 이하로 줄이고자 함.
  - ○ 정부의 경상지출 규모 축소, 코로나19 지원금 폐지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로, 전년대비(5.5%) 축소됨.

■ [필리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 중앙은행이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2023년 10월에 기준금리를 450bp 인상한 이후 2023년 10월~2024년 4월 기준금리를 6.5%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2024년 4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8%를 기록하며 중앙은행 목표치(2~4%)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
- 긴축 재정정책 추진으로 2023년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6.2%로 전년대비(7.3%) 줄었고, 2023년 말 기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60.2%로 전년말대비(60.9%) 소폭 감소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을 60% 미만으로 줄이고자 함.
  - ○ 정부는 2024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5.6%로 줄이고 나아가 2028년까지 3.7%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세금, 탄소세 등을 검토 중임.

■ [태국] 태국정부는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4년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재정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3년 10월부터 최근(2024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3년 10월 이후 최고금리인 2.5%로 6개월 연속 동결 중임.
  - ○ 태국 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현행 기준금리가 높은 가계부채 수준(GDP 대비 91%)을 고려한 거시금융 부문 안정을 위해 적절한 수준임을 밝히며 고금리 기조를 고수함.
- 2023년 8월 출범한 세타 타위신 신정부는 정부지출 확대 계획을 담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수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137]
  - ○ 2024년 1~2월 태국 정부의 세출액(3,902억 바트)은 전년동기간대비 19.4%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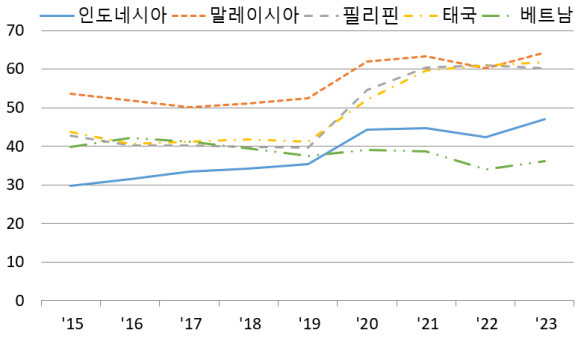
■ [베트남]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재정건전성 유지에 따라 경기부양 목적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유지함.

- 주변국에 비해 가장 늦게 금리를 인상한 베트남은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 3월 가장 빨리 금리를 인하했으며 총 네 차례 인하한 기준금리(재융자금리 4.5%)를 2024년 4월 중순까지 유지 중임.
- 정부는 1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정책, 부가가치세율 인하 연장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함.

137) 세타 타위신 정부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수정 확대 예산안'은 2023년 9월 내각 승인, 2024년 3월 하원 승인을 거쳐 현재(2024년 4월 중순) 기준 상원 의결 및 왕실 재가 단계가 남아 있음.

그림 4-21. 동남아 주요국의 공공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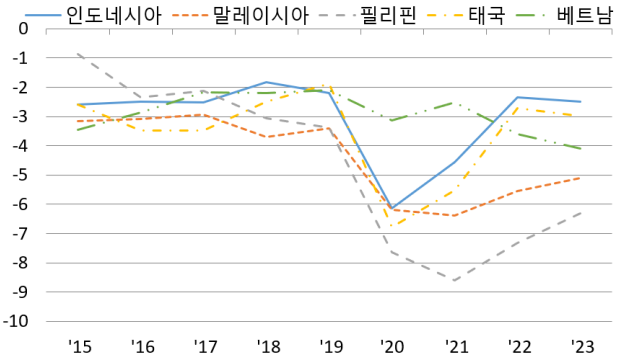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EIU(검색일: 2024. 4. 4).

그림 4-22. 동남아 주요국의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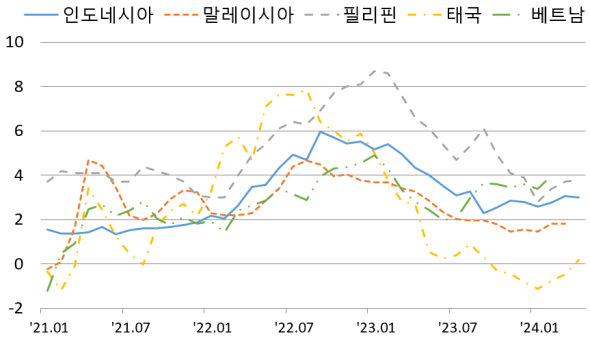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EIU(검색일: 2024. 4. 4).

그림 4-23.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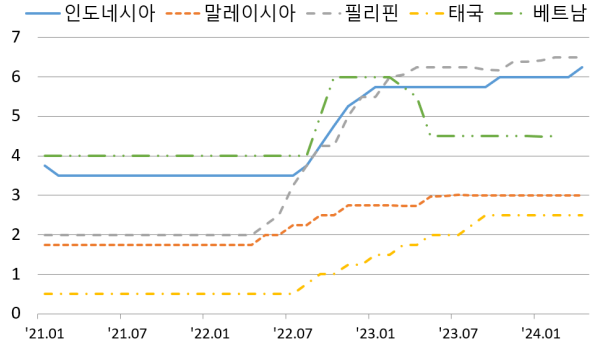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임.
자료: S&P Global(검색일: 2024. 4. 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8);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8); 필리핀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8); 태국 상무부(검색일: 2024. 5. 8).

그림 4-24. 동남아 주요국의 기준금리

(단위: %)



자료: S&P Global(검색일: 2024. 4. 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6);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8); 필리핀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8); 태국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6); 베트남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8).

3) 핵심 이슈

■ [인도네시아 대선과 정책 전망] 2024년 2월 실시된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에 따라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이하 프라보워)이 2024년 10월에 대통령 취임 예정이며, 프라보워는 향후 현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중립적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138]

- 2024년 2월 대선 선거유세 기간 프라보워는 현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 및 대외정책 기조 계승 공약,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조코위 대통령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현 수라카르타 시장) 지명 등 '조코위 3.0 정부'를 내세우며 당선에 성공함.
- 경제 부문에서는 프라보워가 조코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광 수출금지 및 자국부품사용요건(TKDN)을 활용한 산업고도화 정책, 신수도 건설 등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 프라보워는 향후 필요시 원광 수출금지 적용 광물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자국부품사용요건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138) 신민이(2024),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각에서는 프라보워가 당선을 위해 대중적 지지가 높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 계승을 약속하고 당선 이후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현재까지(2024년 4월 기준) 이와 같은 행보는 보이지 않음.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는 견고한 민간소비와 2024년 10월 취임 예정인 신정부의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어 2024~25년 5.0~5.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의 민간소비는 2024년 계획된 공무원 임금인상, 물가안정 전망, 최근 양호한 소비자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추세 등에 비추어 2024~25년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예산안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가 2.3%로 전년대비(1.7%) 확대된 점에 비추어 2024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상되며, 2025년에도 2024년 10월 취임 예정인 프라보워의 다수 공약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높음.
  ○ 2024년 1~2월 선거유세 기간 프라보워는 당선 시 공무원 급여 인상과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아동 8,290만 명 무상급식 및 우유 제공 추진[2025년 필요 예산 100조 루피아(8.5조 원) 규모]을 약속함.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립적 통화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 증가,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실적 개선, 관광 부문 회복 등 요인에 기인해 2024년~25년에 각각 4.2%, 4.5%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이 8.7%를 기록하고 제조업 PMI가 49로 상승하는 등 수출 제조업 부문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입국 관광객 규모도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는 미·중 전략경쟁 이후 중국을 대체할 첨단제품 우회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며 최근 인텔, 인피니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말레이시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 소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필리핀 경제는 물가안정·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형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증가, 소비 회복 및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성장에 기인해 2024년, 2025년에 각각 5.7%, 5.9%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마르코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 2024년 3월 기준 185개의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총 9조 1,000억 페소 규모, 약 1,630억 달러 규모), 이 중 45개의 프로젝트는 부족한 재정을 감안해 PPP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정학적 긴장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태국] 태국 경제는 지연되었던 정부지출 정상화와 관광업 호조 지속 전망에 힘입어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5%,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수정 예산안이 2024년 5월 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5월 이후 정부지출이 계획대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4/4분기에는 총예산 5천억 바트(19조 원) 규모의 '1만 바트 전자지갑 제공정책'[139]이 시행될 전망임.

139) 월 소득 7만 바트(260만 원) 미만, 은행잔고 50만 바트(1,10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에게 1만 바트(38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 2024년 4월 10일 세타 타위신 신정부는 각종 논란으로 지연 중인 '1만 바트 전자지갑 제공정책'을 2024년 1/4분기 추진 예정이었으나 2024년 4/4분기에 강행하기로 결정함.

- EU, 미국, 중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으로 태국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서비스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 성장 가속화가 기대됨.

■ [베트남] 지속적 소비 증가 등 내수 요인과 함께 대외여건 회복이 예상되어 베트남 경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6% 전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낮은 금리, 확장적 재정정책, 물가안정 등에 따라 상품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내수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수요 회복에 따른 전자제품 글로벌 상승 사이클 전환으로 주요 제조품의 생산과 수출이 회복할 전망이며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으로의 설비 이전 등 FDI 유입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요국의 고금리 유지, 국제 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대외수요 회복이 더딜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베트남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고위 인사의 연이은 사임 또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140]

표 4-6. 주요 기관의 동남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3	KIEP [2024. 5]		IMF [2024. 4]		Oxford Economics [2024. 4]*		S&P Global [2024. 4]		ADB [2024. 4]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인도네시아	5.0	5.0	5.1	5.0	5.1	5.0	4.5	5.1	5.2	5.0	5.0
말레이시아	3.7	4.2	4.5	4.4	4.4	3.0	5.7	4.6	4.4	4.5	4.6
필리핀	5.5	5.7	5.9	6.2	6.2	5.2	5.9	5.9	5.9	6.0	6.2
태국	1.9	2.5	3.5	2.7	2.9	2.6	4.2	3.0	3.3	2.6	3.0
베트남	5.05	5.8	6.2	5.8	6.5	5.2	6.1	6.0	6.3	6.0	6.2
ASEAN 5	4.2	4.5	4.8	4.5	4.6	-	-	-	-	-	-

주: 2023년은 실제치,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Oxford Economics 발표시점은 2024년 3월임.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급하는 정책으로, 2024년 4월 중순 기준 지급대상자 수는 약 5,000만 명임.

140) 2022년 말 두 명의 부총리가 경질된 후 2023년 1월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베트남 권력 2위) 사임, 2024년 3월 후임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사임에 이어 4월 26일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베트남 권력 4위)도 사임하며 베트남의 투자 매력 중 하나로 꼽히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라. 러시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3년 러시아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수요 부양책에 힘입어 3.6%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2년 마이너스 성장(-1.2%)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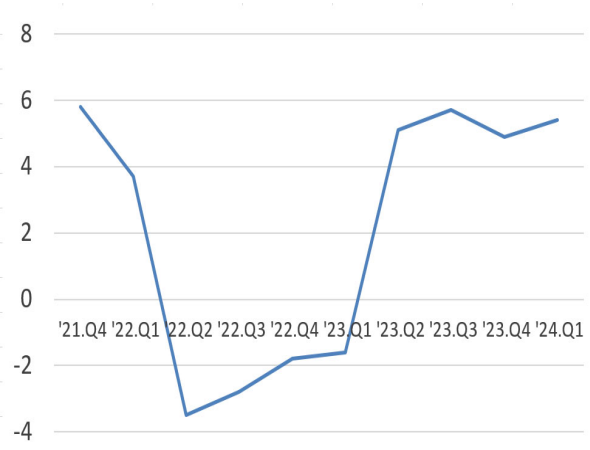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다 2023년 2/4분기에 5.1%로 크게 반등하며 러-우 전쟁 발발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그림 4-25, 표 4-7 참고).

○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방위산업 관련 대규모 정부지출에 힘입은 생산활동 증가 등 내수 회복이 경제 충격을 완화하며 성장을 주도함(표 4-8 참고).

○ 서방의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에 따른 수출 부진 속에 국내 수요 확대 및 대체 공급망 확보로 수입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여전히 지속됨(그림 4-29 참고).

그림 4-25.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경제개발부(검색일: 2024. 4. 30).

표 4-7.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1.2	-1.6	5.1	5.7	4.9	3.6	5.4

표 4-8. 러시아 지출부문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2Q4	'23Q1	'23Q2	'23Q3	'23Q4
민간소비	-2.7	-0.1	8.8	7.9	8.3
정부지출	4.7	13.5	2.0	5.4	-0.8
고정투자	3.0	0.6	12.9	9.0	15.7
수출	-14.6	-15.9	-0.5	9.6	-2.7
수입	-11.2	5.1	17.6	8.6	0.1

자료: S&P Global(검색일: 2024. 4. 30).

■ [소비·투자] 2023년 러시아의 주요 소비, 투자 지표가 크게 개선됨.

- 2023년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임금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 여력이 향상됨에 따라 소매거래 등 소비 지표가 큰 폭으로 회복됨(그림 4-26, 4-27 참고).

○ 2023년 평균 실업률은 3.2%(4/4분기 2.9%)를 기록했으며('21년 4.8% → '22년 4.0%), 이는 1992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수입대체 및 방위산업 인력 수요 증대, 노동이주 감소 및 인구통계학적 문제 등이 실업률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141]

○ 2023년 실질임금상승률은 7.8%를 기록했으며('21년 4.5% → '22년 0.3%), 노동력 부족 및 물가 상승, 월 최저임금 인상('23.1.1일부로 6.3%↑), 그리고 전쟁 이후 실질임금의 큰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주요 원인임.[142]

141)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в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стал рекордно низким"(2024. 2. 8), РБК; "Безработица снизилась в 79 регионах РФ"(2024. 3. 4), РИА Рейтинг.

142) "Каким будет МРОТ в 2023 году"(2023. 1. 1),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23년 소매거래증가율은 소비심리가 호전되며 6.4%를 기록함('21년 7.8% → '22년 -6.5%).

- 같은 기간 투자 지표도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뚜렷한 반등을 보임(그림 4-28 참고).

○ 2023년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전년대비 9.8%를 기록했으며('21년 8.6% → '22년 6.7%), 고정자산투자 증가로 내수 안정세를 유지함.[143]

- 2023년 생산 지표는 내수 확대와 군수품 생산 증가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냄(표 4-9 참고).

○ 산업생산증가율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다 2023년 2/4분기부터 큰 폭으로 성장해 연간 성장률이 전년대비 3.5%를 기록함('22년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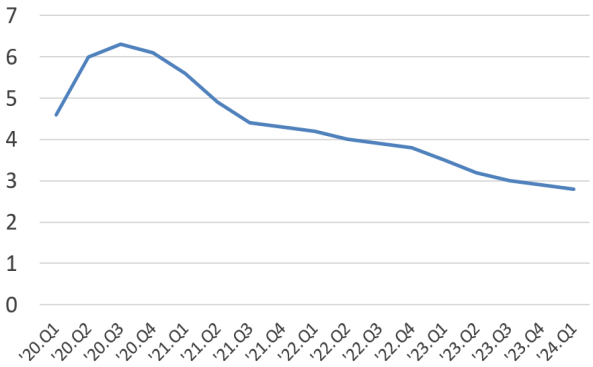
○ 제조업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견인한 가운데, 전시경제 체제 전환에 따라 금속제품, 컴퓨터·전자·광학, 운송장비 등 방위산업 관련 제조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3 증가함.[144]

○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외식업, 소매업 등도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광업은 OPEC+ 협정 틀 내 자발적인 원유 감산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함.[145]

그림 4-26. 러시아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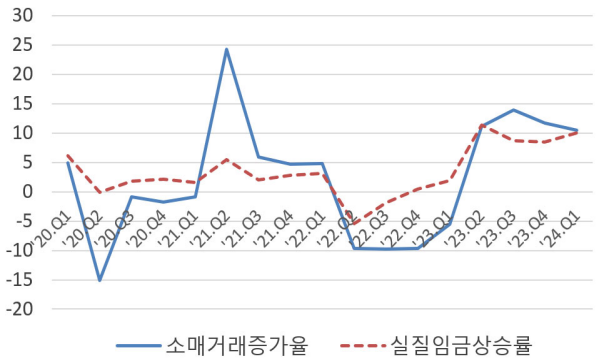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경제개발부(검색일: 2024. 4. 30).

그림 4-27. 러시아 실질임금 및 소매거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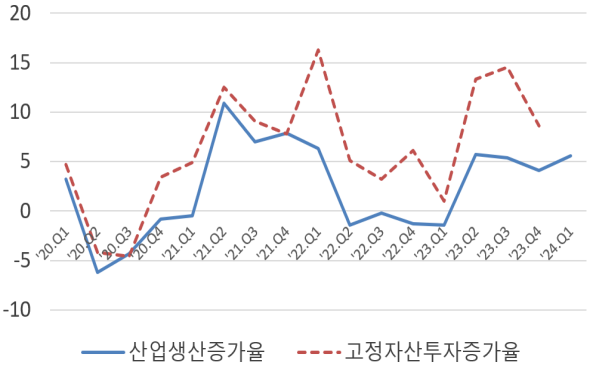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경제개발부(검색일: 2024. 4. 30).

그림 4-28. 러시아 산업생산 및 고정자산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경제개발부(검색일: 2024. 4. 30).

표 4-9. 러시아의 주요 생산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산업생산	0.7	-1.4	5.7	5.4	4.1	3.5	5.6
- *광업*	1.5	-3.6	0.5	-1.3	-0.7	-1.3	1.1
- *제조업*	0.3	0.5	10.5	10.8	7.8	7.5	8.8
건설	7.5	10.0	9.1	7.5	6.6	7.9	3.5
농업	11.3	1.6	1.1	2.4	-5.7	-0.3	1.2
소매업	-6.5	-5.5	11.2	14.0	11.7	8.0	10.5
서비스업	5.0	2.8	5.0	4.9	5.0	4.4	5.8
외식업	7.6	13.9	19.9	12.4	10.5	13.9	4.6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4.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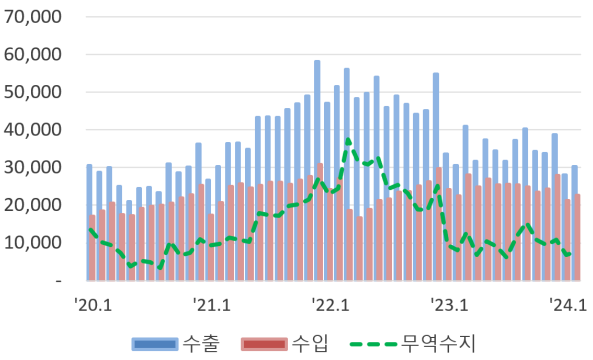
143) "Росстат назвал отрасли с наибольшим ростом инвестиций в 2023 году"(2024. 3. 19), РБК.
144) "Russian Manufacturing Booms With Economy on War Footing"(2024. 2. 1), Bloomberg.
145) *Ibid.*

■ [교역] 2023년 러시아의 무역흑자는 서방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심화 속에 전년대비 62% 감소함.[146]

- 2023년 상품 무역액은 7,280억 달러로 2022년(8,690억 달러) 대비 16% 감소함(그림 4-29 참고).
  - ○ 수출은 원자재가격 하락 및 가스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28.4% 감소해 4,240억 달러에 그쳤으며, 수입은 9.9% 증가한 3,040억 달러를 기록함.[147]
  - ○ 2023년 러시아의 상품 무역흑자는 1,200억 달러로 전년대비 62% 감소함.
- 교역환경 악화 속에 2023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우호국(friendly countries)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에 달함.
  - ○ 2023년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 수입은 각각 68%(849억 달러), 12.3%(785억 달러) 감소했으며, 대아시아 수출, 수입은 각각 5.6%(3,066억 달러), 29.2%(1,875억 달러) 증가함.
  - ○ 2023년 러시아의 총수출, 총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 41%에 달함.

그림 4-29. 러시아 상품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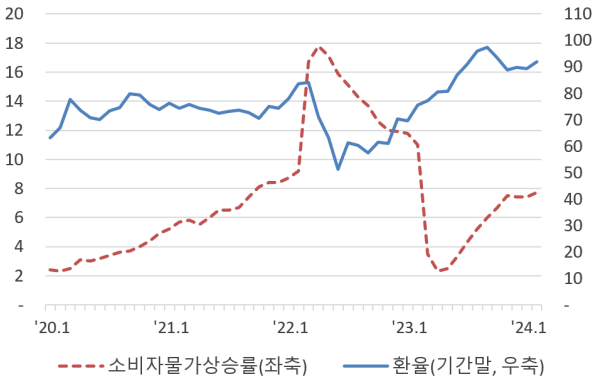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28).

그림 4-30.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환율 추이

(단위: %(좌), 루블/달러(우))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4. 4. 25).

■ [금융시장] 2023년 러시아 주가지수(MOEX)는 강세를 보인 반면,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급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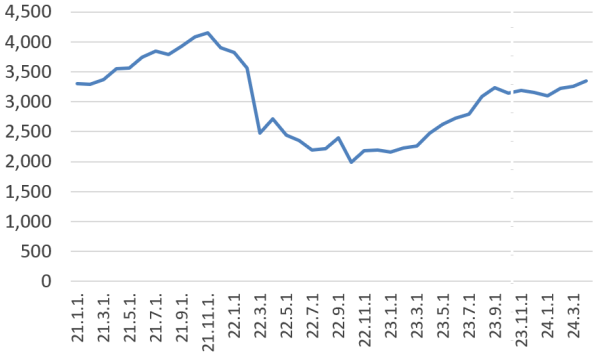
- 2023년 러시아 주가는 44% 급등함(그림 4-31 참고).[148]
  - ○ 러시아 주가지수는 러-우 전쟁 발발 직전부터 하락세를 보인 후 2022년 10월 저점을 돌파했으나, 2023년 들어 역사상 가장 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시현하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 추세를 보임.
- 2023년 말 루블화 가치가 연초 대비 30% 가까이 하락함(그림 4-30, 4-32 참고).[149]
  - ○ 2023년 초 달러당 69.6루블 수준이었던 환율이 3/4분기를 거치며 100루블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수출기업의 외화수익 매각 의무화 조치 채택('23.10월) 및 기준금리 인상('23년 다섯 차례 인상) 등으로 다소 안정 추세를 보임.
  - ○ 2023년 4월 전년동기대비 2.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 증가, 환율 급등에 따라 10월 6.7%로 증가한 후 11월 7.5%, 12월 7.4%로 상승세를 지속(목표 물가 상승률인 4%를 상당 폭 상회)함.

146)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в заложниках геополитики"(2024. 3. 31),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수출 수익을 내고 있음. "After two years of war, Russian economy proves resilient – but for how long?"(2024. 3. 16), France 24.
148)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акций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вырос на 44%"(2023. 12. 29), РБК.
149) "Доллар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подорожал к рублю на 29%"(2023. 12. 29), РБК.

○ 2023년 말 외환보유액은 5,9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쟁 이후 감소분을 회복하는 추세이나, 전쟁 직전 수준('22년 1~2월 기준 6,300억 달러 상회)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림 4-31. 러시아 주가지수(MO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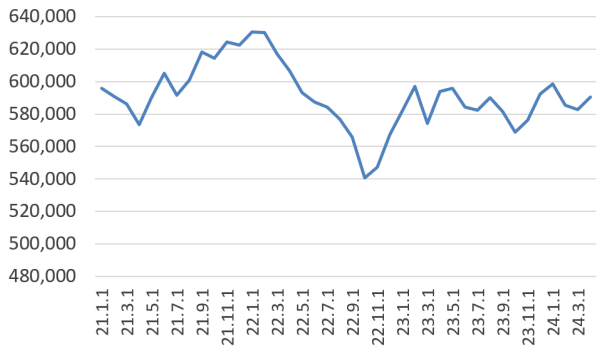
(단위: 지수)



자료: MOEX(검색일: 2024. 4. 30).

그림 4-32. 러시아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27).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물가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러 중앙은행은 2023년에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하며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함.

- 러시아 기준금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7.5%로 동결된 이후 다섯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16%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그림 4-33 참고)됨.

○ 러 기준금리 변동 현황: ['22년 (2월) 20% → (4월) 17% → (5월) 14% → (5월) 11% → (6월) 9.5% → (7월) 8% → (9월) 7.5% → ['23년 (7월) 8.5% → (8월) 12% → (9월) 13% → (10월) 15% → (12월) 16%

- 2024년 4월 26일 러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4%) 수렴 시기와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들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함.[150]

○ 러 중앙은행은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무역 분절화와 지속적으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중기적 차원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4년과 2025년 평균 기준금리 전망을 각각 15~16%, 10~12%로 상향 조정함.

○ 이런 긴축 장기화로 2024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4.3~4.8%로 감소하고, 2025년에는 4%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 [재정정책] 러 재무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제유가 배럴당 85달러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0.9%로 전망함.[151]

-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1.9%를 기록하며 당초 전망치(-2%)를 근소하게 웃돌았으며, 2024~26년간 재정수지 적자 목표 수준은 GDP의 1% 이내임(표 4-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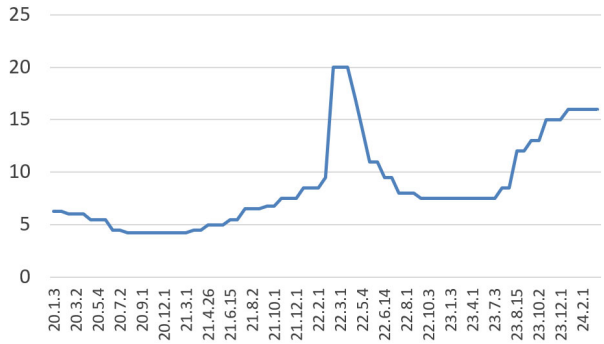
○ 2023년 석유가스 수익이 전년대비 23.9% 감소한 가운데 비석유가스 수익은 25% 증가함.

150) "Банк Росс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охранить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на уровне 16,00% годовых"(2024. 4. 26), Банк России.
151) "Russia: Budget 2024 counts on strong revenue growh to offest surge in military spending"(2023. 11. 28), Linkedin.

- 2024년 예산 가운데 재정지출이 36조 6,000억 루블로 GDP의 20.4%에 달할 전망이며, 군사비가 총지출의 약 30%(10조 8,000억 루블)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4-33.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28).

표 4-10. 러시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 루블)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대비, %)	2023년 예산
재정수입	27,824	29,123	+4.7%	26,130
- *에너지 부문*	11,586	8,822	-23.9%	8,939
- *비에너지 부문*	16,238	20,301	+25.0%	17,191
재정지출	31,119	32,364	+4.0%	29,056
재정수지	-3,295	-3,241	+54	-2,925
(GDP 대비 %)	-2.1%	-1.9%	-	-2.0%

자료: 러시아 재무부(검색일: 2024. 4. 25).

3) 핵심 이슈

■ [러시아 대선] 2024년 3월 실시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87%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어 5월 7일 공식 취임을 통해 집권 5기에 돌입함.[152]

- 5기 푸틴 정부는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임.[153]

○ △ 국산 첨단기술 제품 및 서비스 비중 확대, △첨 단 제조업 육성 및 비에너지 상품 수출 확대,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노동생산성 증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전쟁 장기화 지속 시 전시경제 유지를 위한 군비지출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저하가 우려됨.

○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위산업을 수출산업 및 기술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육성 촉진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긴요한 시점임.

○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 및 산업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군산복합체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5기 공식 취임 직후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경제전문가이자 기술관료(technocrat)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제1부총리를 내정한 배경에는 국방비의 효율적 활용과 군산복합체 발전을 통한 기술 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154]

■ [노동시장] 2024년 1/4분기 러시아의 실업률은 3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인 2.8%에 그쳤으며, 이는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으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tight)한 상황

- 러시아 정부는 전쟁과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인구통계학적 과제와 높은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52) 강부균, 김경민(2024. 3. 15), 「2024 러시아 대선과 정책 방향」, pp. 7~9.
153) 2024년 2월 29일 푸틴 대통령이 대선을 2주 앞두고 발표한 연두교서 내용 참고.
154) "Russia's new defense minister shows economy is firmly on war footing"(2024. 5. 13), *The Washington Post*.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155]

○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지출을 늘려 내부 수요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함.[156]

○ 특히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경우 재정적 자원뿐 아니라 충분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긴장이 심화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2023년에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방위산업 관련 제조업임.[157]

- 2024년 4월 26일 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6%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상품과 서비스 생산 확대를 제약함에 따라 노동시장 경직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함.[158]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러시아 경제는 전시 상황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면서 2024년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하방 리스크의 부분적 확산 가능성이 존재함(표 4-11 참고).

- 2024~25년 러시아 경제는 군비지출 급증과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 등 내수 주도 성장 흐름이 지속되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러 경제개발부는 2024년 1/4분기 러시아 경제가 전년동기대비 5.4% 성장했으며,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높은 임금 상승률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활성화, 높은 투자 수요가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과열된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에 힘입은 투자와 건전한 민간소비 효과가 약화되면서 급격한 경기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함.

표 4-11. 주요 기관의 러시아 2024~25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KIEP [2024. 5]		IMF [2024. 4]		OECD [2024. 5]		World Bank [2024. 4]		러시아 경제개발부 [2024. 4]		러시아 중앙은행 [2024. 4]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러시아	3.2	1.6	3.2	1.8	2.6	1.0	2.2	1.1	2.8	2.3	2.5-3.5	1-2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자료: 각 기관 전망치.

155) 강부균, 김경민(2024. 3. 15), 「2024 러시아 대선과 정책 방향」, p. 8.
156) "Russia's 2024 Budget Shows It's Planning for a Long War in Ukraine"(2023. 10. 11),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57) "Защита и механизм: на оборону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тратят 39% бюджета-2024"(2023. 11. 13), Известия.
158) "Банк Росс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охранить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на уровне 16,00% годовых"(2024. 4. 26), Банк России.

마. 중앙아시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 증대와 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며 2022년 대비 상회한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 키르기스스탄은 금 생산량과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액 감소로 2023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각각 하회함(표 4-12 참고).

-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생산량 증가(전년대비 6.8%), △인프라 현대화 부문 정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성장률 3.3%를 상회하는 5.1% 기록함.
- [우즈베키스탄] △제조업(전년대비 22.9%)과 농업(15.4%)의 생산 증가,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와 제조업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5.7%에 비해 소폭 높은 6.0% 수준임.
-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 △생산 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년대비 하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로 2022년 경제성장률이 5.3%로 급등한 것에 기인함.
- [키르기스스탄] △주요 수출 품목인 금 생산량이 2022년 대비 17.5% 줄어들고,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이 전년대비 12% 감소하면서 민간소비 둔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6.3% 대비 다소 낮은 4.2%에 머묾.
- [타지키스탄] 작황 개선으로 △농업 성장(전년대비 11.6%), △건설업 성장(12.5%), △총투자액 증가(15.8%)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8.0% 대비 소폭 높은 8.3%임.

표 4-12.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카자흐스탄	4.1(4.3)	3.3(3.2)	5.1(5.1)
우즈베키스탄	7.4(7.4)	5.7(5.7)	6.0(6.0)
투르크메니스탄	-0.3(5.0)	5.3(6.2)	2.0(6.3)
키르기스스탄	5.5(5.5)	6.3(9.0)	4.2(6.2)
타지키스탄	9.4(9.2)	8.0(8.0)	8.3(8.3)

주: IMF와 ADB(괄호 안)의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April 2024);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April 2024).

■ [환율 및 물가] 2023년 환율은 2022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량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둔화됨(그림 4-34, 4-35 참고).

- [카자흐스탄] 수출액 감소(전년대비 6.7%)로 달러 유입이 줄어들고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2023년 환율(KZT/USD)은 전년대비 0.9% 하락한 456 수준이며, 2023년 물가상승률은 식료품 물가안정으로 진정세를 보여 전년도 15.0%보다 소폭 낮아진 14.6% 수준임.

- [우즈베키스탄] 자국통화 숨이 러시아 루블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2023년 환율(UZS/USD)은 전년대비 6.2% 상승한 1만 1,735 수준이며, 2023년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다소비식품의 가격안정 정책 등으로 전년도 11.4% 대비 소폭 낮아져 10.0% 수준에 머묾.
- [투르크메니스탄]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환율 상승압력을 강력한 정부 통제와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관리하며 공식 환율(TMT/USD)을 3.5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 가격 및 외환 통제로 상방 압력이 완화되어 2022년 11.2% 상승한 데 반해 일시적 하락하여 -1.7%를 기록함.
- [키르기스스탄] 러·우 전쟁의 여파로 2023년 환율(KGS/USD)은 전년도에 비해 4.4% 상승한 87.9 수준이고, 2023년 물가상승률은 수입 식료품 가격 안정,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년도 13.9% 대비 다소 감소한 10.8% 기록함.
- [타지키스탄] 외국인 투자 증가(전년대비 4.4%)로 인한 지속적인 자본유입이 환율을 지지하여 2023년 환율(TJS/USD)은 10.8로 전년대비 0.4% 하락하였고, 2023년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량 생산 증대로 전년도 6.6% 대비 다소 낮아진 3.7%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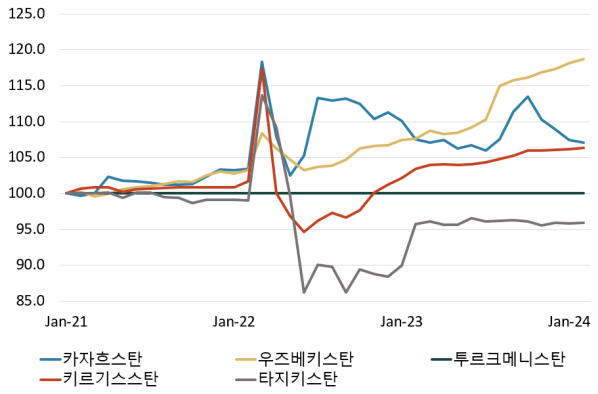
■ **[경상수지] 2023년 중앙아시아 경상수지는 전년대비 악화되었는데, 이는 5개국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져 상품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 감소로 소득수지가 악화된 것에 기인함(그림 4-36 참고).**

-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낮아져 수출액은 감소(전년대비 6.7%)하는 반면, 수입액은 증가(17.9%)하여 상품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2023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8% 적자로 전환됨(2022년 GDP 대비 3.1% 흑자).
- [우즈베키스탄]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 감소(2023년 9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33.7%)로 소득수지가 악화되었고, 무역액 중 수입액의 비중이 더 큰 상황에서 2023년 수입액이 전년대비 21.8% 증가하면서 2023년 경상수지는 2022년 대비 적자 폭을 확대하여 GDP 대비 5.0% 적자임(2022년 GDP 대비 0.8% 적자).
-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출 품목인 천연가스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가격이 전년대비 안정되면서 총수출액이 9.6% 감소한 한편, 수입액이 7.9%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어 2023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4.8%의 흑자에 머묾(2022년 GDP 대비 7.0% 흑자).
- [키르기스스탄]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액 감소(전년대비 12%)로 소득수지가 악화되고 수출 성장세(46.8%)가 견고했으나 전체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수입 성장세(26%)로 2023년 경상수지는 적자 폭을 확대해 GDP 대비 50.7% 적자를 기록함(2022년 GDP 대비 44.5% 적자).[159]
- [타지키스탄]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 감소로 소득수지가 악화되고, 수출액 증가세(전년대비 15.2%)가 수입액 증가세(13.3%)보다 가팔랐으나 수입액 규모가 수출액보다 2.8배 정도 큰 상황에서 상품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3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0.7% 적자로 전환됨(2022년 GDP 대비 15.6% 흑자).

159) IMF는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경상수지를 GDP 대비 30.4% 적자로 전년도 43.6%에서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상품·서비스 수출액이 2022년 35억 6,400만 달러에서 2023년 66억 7,2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함.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품 수출액은 33억 900만 달러이며 서비스 수출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2년 서비스 수출액은 13억 7,500만 달러로 데이터 시작점인 2006년 이후 최고치였음. IMF(2024. 3), "2023 Article Ⅳ Consultation," p. 3;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ые операц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январе-декабре 2023 г.(검색일: 2024. 4. 18).

그림 4-34. 국별 환율(국별통화/USD)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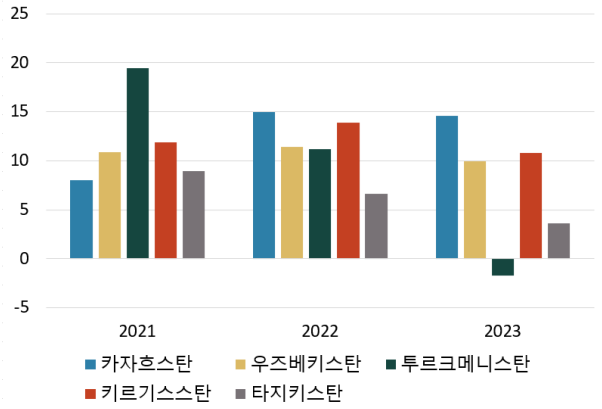
(2021년 1월 환율=100)



자료: 1) 카자흐스탄: National Bank, Official Foreign Exchange Rates on average for the period, 2) 우즈베키스탄: Central Bank, Exchange rate, 3) 투르크메니스탄: Central Bank, The exchange rate, 4) 키르기스스탄: Kyrgyz Bank, Official exchange rate of USD (data from 2010) and official exchange rates of EUR, RUB, KZT (data from 2012), 5) 타지키스탄: Investing.com, USD/TJS Historical Data(검색일: 2024. 4. 25).

그림 4-35. 국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17).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2023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의 재정수지는 △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사회복지 부문 투자,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전년대비 악화된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세수 및 비과세 수입 증대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됨(그림 4-3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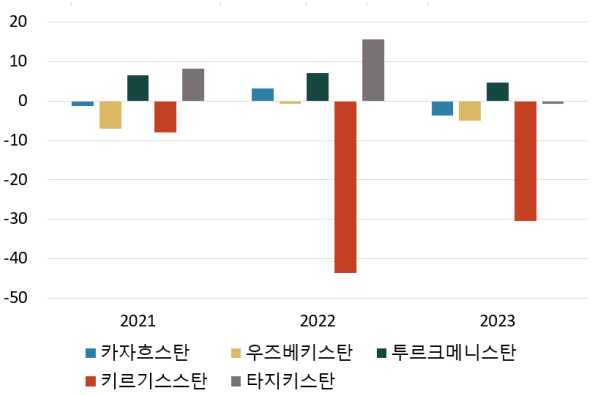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유한 국영기업 주식 배당금 증가로 비과세 수입이 전년대비 2.7배로 늘어나면서 정부 수입이 증대되었으나(전년대비 25%), 인프라 현대화 및 사회복지 부문을 포함한 정부지출을 23% 늘리면서 2023년 재정수지는 전년도 흑자에서 GDP 대비 1.5% 적자로 전환됨(2022년 재정흑자 GDP 대비 0.1%).
- [우즈베키스탄] 세수가 2022년 대비 12.0% 증가하였으나 천연가스 국제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격차를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 분야 등 사회 부문 지출이 전년대비 18.1% 늘어나면서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0% 적자로 전년도에 비해 악화됨(2022년 재정적자 GDP 대비 4.3%).
-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액 감소로 정부 수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의 사회경제 개발계획 2022-2028 실현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전년대비 흑자 폭이 감소하여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3% 흑자에 머뭄(2022년 재정흑자 GDP 대비 2.5%).
- [키르기스스탄] 수입액 증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고, 국영 자산의 수익 확대로 비과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총수입이 가파른 성장세(전년대비 30.4%)를 보여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흑자로 전환됨(2022년 재정적자 GDP 대비 0.3%).
- [타지키스탄] 2022년 1월 발효된 세법 개정안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2023년 국제금융기구의 예산 지원으로(총 정부 수입의 25.1%) 정부 총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로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적자를 기록함(2022년 재정적자 GDP 대비 0.2%).

■ [통화정책]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전년대비 낮아져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 또는 인하하는 추세이며, 여전히 높은 물가 불확실성으로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긴축정책과 세계 식량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023년 상반기 16.75%에서 세 차례 인하하여 연말에는 15.75%까지 내렸고, 2024년 물가 상방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두 차례 추가 인하하여 4월 말 기준 기준금리는 14.75%이며, 재정지출과 물가의 불확실성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우즈베키스탄]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이 모두 하락세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 3월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후 2024년 4월 현재까지 14%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있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음.
- [투르크메니스탄] 물가상승률을 공식 환율과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통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변동하지 않고 현재 수준인 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키르기스스탄] 확장적 재정정책과 높은 공공요금이 근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2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13%로 유지하다 2024년 4월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 하한선인 5%대에 근접하면서 200bp 인하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11%로 물가 상방 압력이 강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타지키스탄] 물가상승률이 하락함에 따라 2023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연말 10%까지 내렸으며, 2024년 2월과 4월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는 9.25%이고, 최근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 범위인 4~8%보다 낮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음.

그림 4-36. 국별 경상수지(GDP 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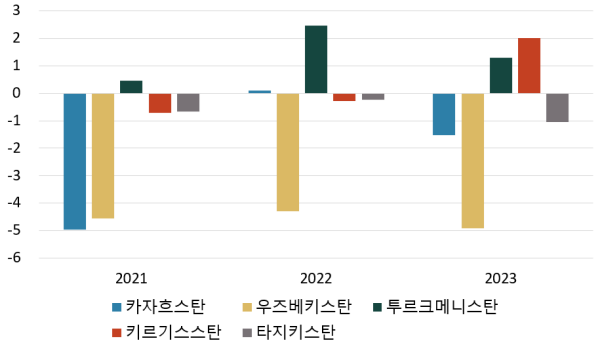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17).

그림 4-37. 국별 재정수지(GDP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17).

3) 핵심 이슈

■ [노동공급국으로서의 중앙아시아]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중앙아시아 주요 노동이주국인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 경기둔화, △ 루블화 평가절하, 지난 3월 발생한 모스크바 테러에 기인한 △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통제 강화, △ 이주 요건 강화 움직임은 위 중앙아 3개국 2024년 경제성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송금액] 중앙아시아 5개국 중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이 높은 국가는 타지키스탄(최신 데이터 2022년 기준, 50.9%), 키르기스스탄(27.9%), 우즈베키스탄(20.8%)으로 각국 경제의 가계 지출, 실업률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
  - 위 3개국의 GDP 대비 러시아로부터 받은 송금액 비중은 키르기스스탄 24.8%, 타지키스탄 19.1%, 우즈베키스탄 7.3%로 러시아에서 보낸 송금액이 경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함(표 4-13 참고).

표 4-13. GDP 대비 중앙아시아 5개국 송금액 비중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카자흐스탄	0.3(0.2)	0.2(0.1)	0.2(0.1)	0.2
우즈베키스탄	14.2(7.2)	11.8(6.5)	13.3(7.3)	20.8
투르크메니스탄	n.a.	n.a.	n.a.	n.a.
키르기스스탄	28.8(26.3)	31.8(24.7)	32.6(24.8)	27.9
타지키스탄	28.0(35.7)	26.9(23.0)	32.7(19.1)	50.9

주: 1) 괄호안 수치는 GDP 대비 러시아發 송금액 비중으로 러시아發 송금액/GDP(current US$)로 산출하였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부터 러시아發 송금액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 상황임.
2) 2019년 타지키스탄의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의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송금액이 World Bank가 발표한 송금액보다 더 많음.
자료: GDP 대비 송금액 비중: World Bank, Personal remittances, received (% of GDP)(검색일: 2024. 4. 15); 러시아發 송금액: Bank of Russia, Personal Remittances by CIS country(검색일: 2024. 4. 15); GDP: World Bank, GDP(current US달러)(검색일: 2024. 4. 15).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3월 모스크바 테러 여파]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의 경기둔화, 자국통화 대비 루블화 평가절하와 3월 모스크바 테러로 인한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통제와 관련 법 강화 움직임은 러시아 이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IMF는 202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후 2025년 1.8%, 2026년 1.3%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면서 지속적인 경기둔화를 예상함.
  - 2024년 4월 초 중앙아 3개국 통화 대비 러시아 루블 환율은 러·우 전쟁 발발 전인 2022년 1월 초 대비 우즈베키스탄 숨은 5.0%, 키르기스스탄 솜은 14.2%, 타지키스탄 소모니는 21.1% 각각 하락함.
  - 3월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로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중앙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되었으며, 타지키스탄 노동부 차관은 3월 말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 내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및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 외국인의 임시 체류기간 축소(현행 6개월 동안 90일에서 1년 동안 90일), △ 입국 외국인 대상 지문 등록과 사진촬영 의무화, △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강제 추방,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러시아 고용주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함.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중앙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중국의 경제성장,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따른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 등이 있으며, IMF의 2024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 대비 높은 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표 4-14 참고).

-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량과 국제유가가 2024년 경제성장에 가장 큰 변수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정적 파급효과 지속,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대유럽 석유 수출 경로 중단 가능성이 경제성장 제약요인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년도 경제성장률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이주노동자의 송금액 축소, 상품 수출액 감소, 민간소비와 투자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 2024년 경제성장은 천연가스의 생산량, 수출량과 가격에 긴밀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2024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키르기스스탄]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년도 대비 둔화된 5%로 금 생산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가 키르기스스탄의 무역, 투자, 이주노동자 송금액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타지키스탄] 2024년 경제성장은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 알루미늄 생산량이 주요 변수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표 4-14. 주요 기관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KIEP [2024. 5]		IMF [2024. 4]		ADB [2024. 4]		World Bank [2024. 1]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카자흐스탄	4.8	5.5	3.1	5.6	3.8	5.3	4.3	4.5
우즈베키스탄	5.7	5.9	5.2	5.4	5.5	5.6	5.5	5.5
투르크메니스탄	6.3	6.3	2.3	2.3	6.5	6.0	n.a	n.a
키르기스스탄	5.0	4.5	4.4	4.2	5.0	4.5	4.0	4.0
타지키스탄	6.5	6.0	6.5	4.5	6.5	6.5	5.5	4.5

주: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였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24);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April 202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January 20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바. 브라질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3년에는 농목축업과 광업이 각각 15.1%와 8.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연간 GDP 성장률은 2.9%를 기록함.

- 2023년에는 기후 조건이 좋아 농산물 작황이 이례적으로 높았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북부지역에 가뭄이나 남부지역에 홍수와 같은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어 2024년 작황은 지난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지출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수출이 9.1% 늘어 전체 성장을 견인했으나, 기준금리가 10.75%(2024년 4월 기준)로 고금리이기 때문에 투자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4-15. 브라질의 부문별 성장률(지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연간	Q1	Q2	Q3	Q4	연간
GDP 성장률	3.0	4.2	3.5	2.0	2.1	2.9
민간소비	4.1	3.9	3.1	3.3	2.3	3.1
정부지출	2.1	0.6	2.3	0.8	3.0	1.7
총고정자본형성	1.1	1.4	-1.8	-6.8	-4.4	-3.0
수출	5.7	7.1	11.9	10.0	7.3	9.1
수입	1.0	1.8	1.2	-6.1	-0.9	-1.2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4. 4. 8).

표 4-16. 브라질의 부문별 성장률(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연간	Q1	Q2	Q3	Q4	연간
농목축업	-1.1	22.9	20.9	8.8	0.0	15.1
광업	-1.4	8.0	8.6	7.2	10.8	8.7
제조업	-0.5	-1.4	-1.9	-1.5	-0.5	-1.3
서비스업	4.3	3.3	2.7	1.8	1.9	2.4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4. 4. 8).

■ [소비 및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23년 3월부터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3.0±1.5%)에 도달하며 안정화되었고, 소비심리는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가계부채가 높아 2024년 들어서 더 이상 개선되지는 않음.

- 중앙은행이 2021년 3월에서 2022년 8월 사이 2%였던 정책금리를 13.75%까지 적극적으로 인상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3월부터 목표치 내로 안정화됨.

○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고,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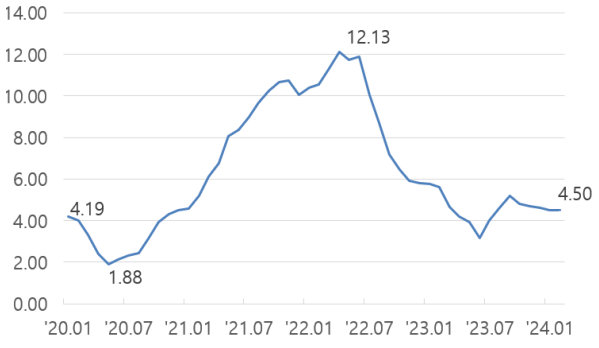
- 소비심리는 경제 회복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2023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채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 조치하는 등[160] 가계의 구매력을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 가계부채는 2004년 GDP의 10%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GDP의 약 34%까지 증가함.

그림 4-38. 브라질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연간 상승률,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8).

그림 4-39. FGV 브라질 소비자신뢰지수

(단위: 2010.6~2015.10의 평균이 100)

자료: CEIC(검색일: 2024. 4. 8).

■ [경상수지]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이나, 서비스수지와 본원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2023년 4/4분기 약 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주력 수출품인 대두, 원유, 철광석의 수출가격이 2024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고, 특히 농산물 수확량이 높고 국제가격도 상승해 상품수지 흑자에 기여함.

○ 원자재가격이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23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2024년 들어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고, 2024년 2월의 브라질 원자재 수출가격지수는 2020년 12월과 비교해 약 37%가 상승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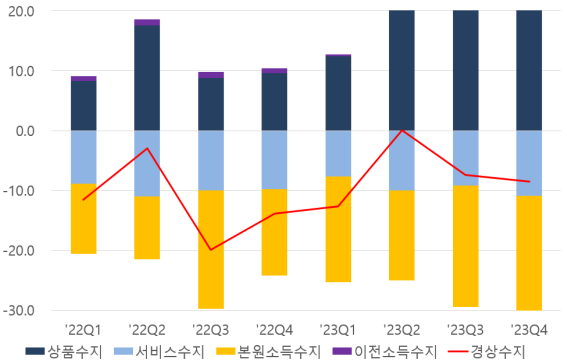
-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의 비중이 높아 상품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정부 부채가 높지만 외채의 비중이 낮고 외환보유고도 높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는 안정적임.

- 외국인직접투자는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친환경 자동차 부문에 투자를 발표하면서 향후에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160) The Brazilian Report(2023. 7. 17), "Government seeks to untangle debt knot for millions of Brazilian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0. 10).

그림 4-40. 브라질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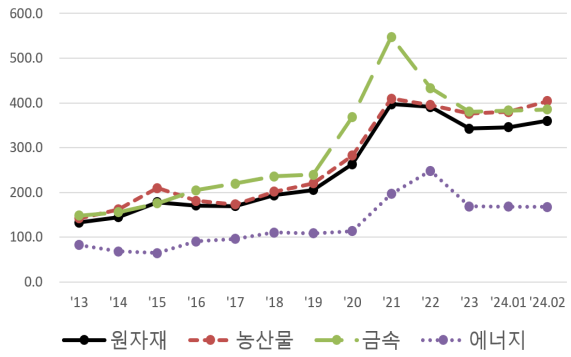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9).

그림 4-41. 브라질 원자재 수출가격 지수

(단위: 2005년 12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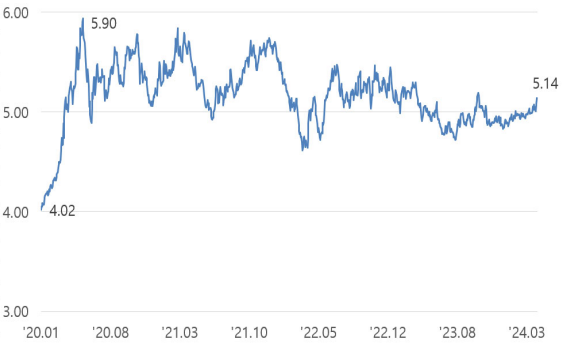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9).

■ [금융·외환시장] 2024년 1월 이후 헤알(Real)화는 소폭 절하하여 4월 기준으로 달러당 5.1을 기록하였고, 주가지수(Bovespa)는 2023년 3월 이후로 상승하고 있어 2024년 3월에는 평균 약 12만 8,000을 기록함.

- 브라질 중앙은행이 2023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와 헤알화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헤알화가 소폭 절하되었으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헤알화 절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가지수는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조세개혁을 통한 조세행정 간소화 등의 기업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하고 있음.

그림 4-42. 브라질 환율

(단위: 헤알/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9).

그림 4-43. 브라질 주가지수(Bovespa)

(단위: 1968.01.02 자수=100)

자료: CEIC(검색일: 2024. 4. 9).

■ [고용]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3년 실업률은 2015년 이후 최저치인 7.8%를 기록함.

- 고용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최저 임금 인상과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의 구매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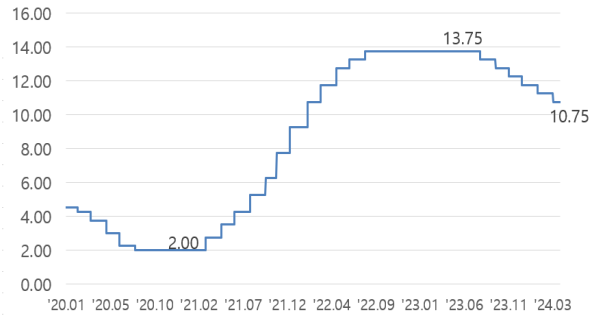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로 안정되었고 2025년 기대 물가도 목표치 이내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이어갈 예정임.

- 기준금리는 2023년 8월 13.75%까지 높아졌으나,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이 2023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고 2024년 4월 현재 10.75%에 도달함.
-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1.5~4.5%이고, 2024년 4월 물가가 연 3.93%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로 안정되었고, 2025년과 2026년 기대 물가도 3.5%[161]로 낮은 수준임.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공고화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목표치 내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필요성이 높다고 밝힘.[162]

그림 4-44. 브라질 기준금리(Se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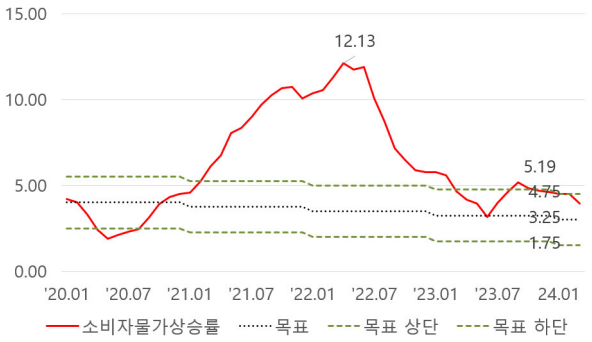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8).

그림 4-45. 브라질 물가목표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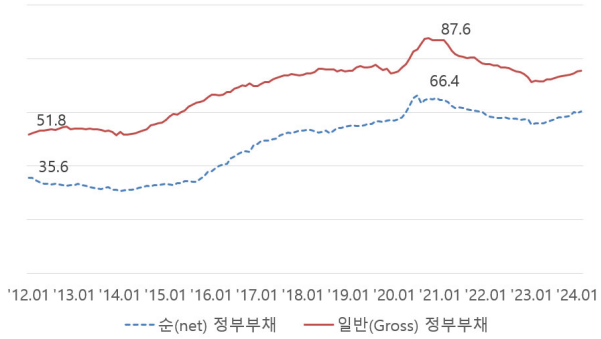
■ [재정정책] 2023년에 재정지출을 기존보다 늘릴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변경하였고, 이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더욱 증가함.

-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을 적용해왔지만, 2023년 하반기에는 실질재정지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준칙을 도입함.
  - ○ 2017년 준칙은 전년도 물가상승률까지만 재정지출이 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정지출 증가가 0%로 동결되었지만, 새로운 준칙은 전년도 재정수입 증가율의 최대 70%까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출 증가의 범위를 물가상승률의 최소 0.6%p와 최대 2.5%p로 정했기 때문에,[163] 실질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준칙임.
- 현 정부는 실질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채와 명목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였고, 기초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됨.

161) Banco Central do Brasil(2024), "Focus Market Readout."
162) Banco Central do Brasil(2024), "Monetary Policy Committee-Copom, March19-20, 2024."
163) Oxford Analytica(2023. 6. 22),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

그림 4-46. 브라질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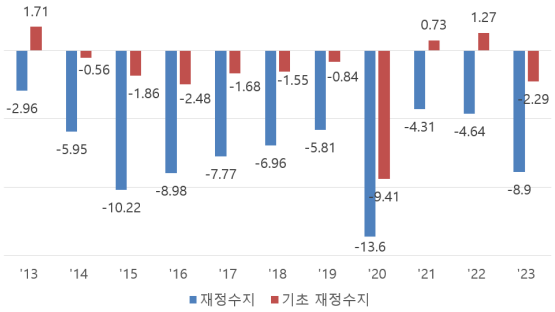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12).

그림 4-47. 브라질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4. 4. 12).

3) 핵심 이슈

■ [고용]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3년 실업률은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계약이 있는 공식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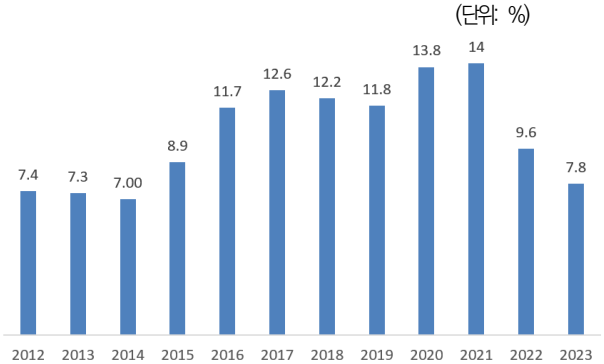
- 2021년 브라질의 실업률은 14.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부터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2023년 실업률은 7.8%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브라질은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고용이 높은데, 2021년 이후에는 공식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21년 실업률이 최고치로 높아졌을 때, 전체 고용 중에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도 40.7%로 가장 높이 증가했으나, 이후 실업이 낮아지는 가운데 비공식 부문의 고용이 39.1%까지 떨어지고 있어, 공식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 부문의 일자리 중에서 공식 부문의 고용이 2023년 한 해 3.0%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민간 공식 부문의 고용증가율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 4-48. 브라질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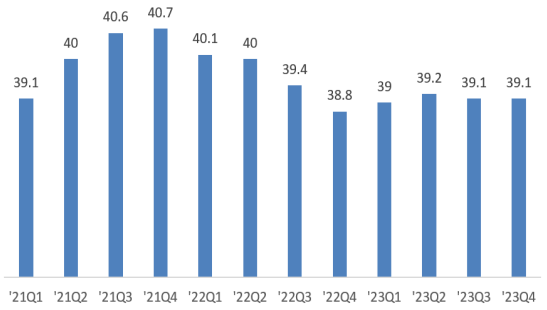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4. 4. 29).

그림 4-49. 브라질 비공식 부문의 고용률

(단위: %)



주: 전체 고용인구 대비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인구의 비중.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4. 4. 29).

■ [신산업정책]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산업의 육성정책을 담은 '신산업정책(Nova Industrial Brasil)'을 2024년 1월 발표함.[164)]

- 브라질 경제에서 농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에는 24%였으나 2024년 현재 약 11%로 급락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임.
- 정부는 2024~2033년 기간 동안 6개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대상 산업은 1) 농산업, 2) 보건, 3) 도시 인프라, 4) 산업의 디지털전환, 5) 바이오 경제, 6) 국방임.
  - 각 부문의 목표는 1) 농업의 기계화율을 18%에서 70%로 확대, 2) 의약품, 백신, 의료장비 등 보건분야 제품의 국내 생산 비중을 42%에서 70%로 확대, 3) 대중교통 확대와 대중교통 수단의 국내 생산 확대, 4) 제조기업의 90%에서 디지털 전환 달성, 디지털제품·반도체·로봇·AI 등 육성, 5)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30% 감소 및 바이오연료 비중을 현재 21.4%에서 50%까지 확대, 6) 핵심적인 국방제품의 50%를 국내에서 생산임.
- 2024~26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약 600억 달러를 배분할 예정이며, 국영개발은행(BNDES)이나 연구지원 기관을 통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임.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2024년은 고금리와 전년대비 저조한 농산물 작황으로 1.8%의 GDP 성장이 예상되고, 2025년은 금리 인하와 세제 간소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2%의 성장이 예상됨.

- [농업] 2023년은 적절한 기후로 농산물 작황이 호조를 보여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 말부터 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남부지역의 폭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2024년 농산물 작황은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2024년 4월 기준 10.75%로 아직 높아 민간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가 향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4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3.7%이기에 실질금리가 약 7%(=10.75%-3.7%)이고, 2025~26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약 3.5%로 형성된 반면 기준금리는 인하할 예정이기에 실질금리의 하락이 예상됨.
- [조세]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간소화 개혁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4-17. 주요 기관의 브라질 성장률 전망

구분	KIEP (2024. 5)		브라질 재무부 (2024. 3)		Focus Survey* (2024. 4)		IMF (2024. 4)		Oxford Economics (2024. 4)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브라질	1.8	2.2	2.2	2.8	2.0	2.0	2.2	2.1	0.9	2.1

주: * Focus Survey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14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조사해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자료임.
자료: 각 기관 전망치, Focus Survey, https://www.bcb.gov.br/en/publications/focusmarketreadout(검색일: 2024. 4. 29); 브라질 재무부, https://www.gov.br/fazenda/pt-br/centrais-de-conteudos/publicacoes/conjuntura-economica/boletim-macrofiscal(검색일: 2024. 4. 12).

164) Agência Brasil(2024), "Entenda o programa Nova Indústria Brasil," https://agenciabrasil.ebc.com.br/economia/noticia/2024-01/entenda-o-programa-nova-industria-brasil(검색일: 2024. 4. 10).

사. 중남미

1) 거시경제 현황

■ [성장률] 상품(commodity) 가격 상승과 포스트 팬데믹 리오프닝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긴축정책과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가중되면서 중남미 경제성장 둔화세(2023년 2.3%)는 2024년에 지속 전망

- 예상외의 탄탄한 미국경제, 니어쇼어링과 핵심광물 개발 중심의 FDI 유입, 해외이주자 송금 및 관광산업 회복, 물가안정 및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전망

○ 그러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사회적 불안정(고용·소득 악화와 내수 위축)과 아르헨티나, 페루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민주주의 후퇴, 권위주의 심화, 통치력 취약성), 그리고 기후 리스크는 성장을 저해

- 경제 규모에서 주요국인 아르헨티나의 저성장을 제외하면 중남미 지역은 2%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팬데믹 이전 대비 소득 악화와 빈곤 심화 결과인 가계소비를 포함한 내수의 전반적인 위축이 성장을 방해

- [멕시코] 좌파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재정긴축, 친노동, 에너지 주권 회복, 공공 부문 군 역할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총투자(FDI, 민간투자, 집권 말기 공공투자 호조) 증가, 해외근로자 송금, 니어쇼어링 수혜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가장 견실한 성장을 기록(2023년 3.2%)

○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2023년 말까지 7분기 연속, 월별경제활동지수(IGAE)는 2024년 1월(1.1%)과 2월(2%) 전년동기대비 연속 상승세를 유지

- [칠레]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으로 인한 민간소비 악화, 엘니뇨 기상이변(홍수, 가뭄)으로 인한 광업 및 농업 생산 차질 등으로 2023년에 0.2% 성장에 그쳤으나, 개헌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과 핵심광물, 그린수소 등에 대한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회복 중

- [콜롬비아]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2023년에 저성장(0.6%)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물가 하락세와 그에 동반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가계소비의 미세한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을 회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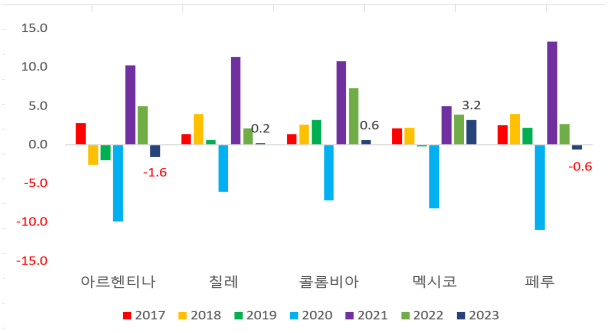
- [페루] 2023년 마이너스 성장(-0.6%)의 원인이던 정치·사회 불안은 2024년 들어 대통령의 개인적 리스크 부상으로 한층 악화되고 있고, 엘니뇨 영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심화될 여지가 있으며, 내수와 광물 수출 회복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함.

- [아르헨티나] 초긴축정책, 평가절하, 고물가 등 정부의 충격적인 구조개혁 조치와 그 여파, 그리고 정치·사회적 반작용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거시경제 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음.

○ 빈곤 확산과 실질구매력 하락으로 민간 수요는 급락하고 투자심리는 최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과 에너지 생산 증가가 다소 보완적 기능을 수행

그림 4-50. 중남미 주요국의 연도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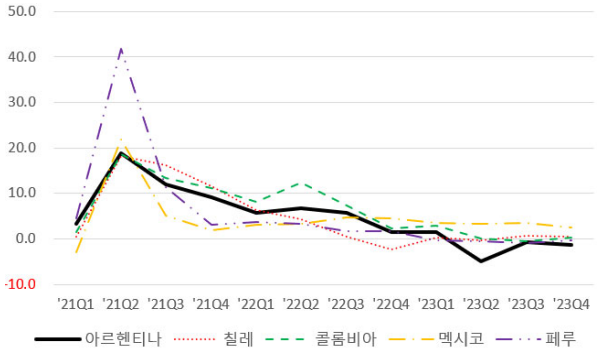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4.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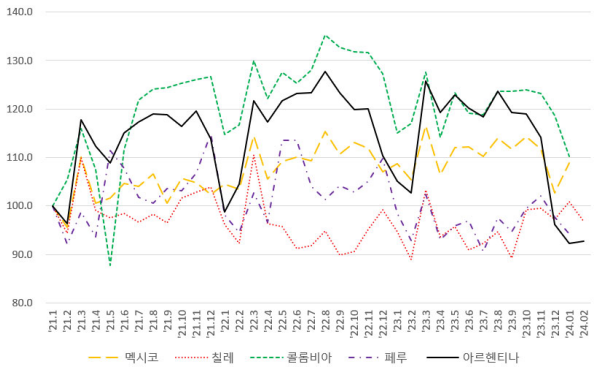
그림 4-51. 중남미 주요국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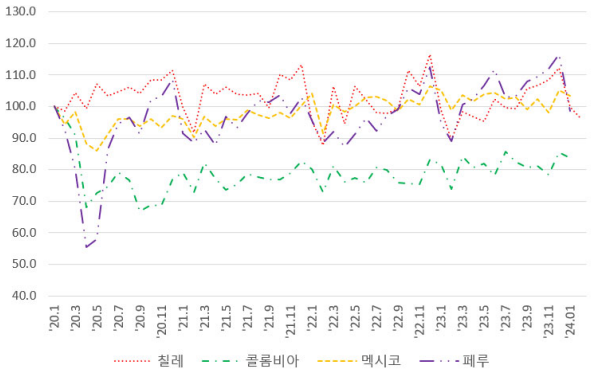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4. 4. 11).

그림 4-52. 중남미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주: 2021년 1월의 생산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1).

그림 4-53. 중남미 주요국의 광업 생산지수



주: 2020년 1월의 생산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1).

■ [산업생산] 멕시코를 제외한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은 다소 둔화 또는 감소 중이고, 회복하던 광업 생산도 2024년 1/4분기에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제조업]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효과로 인한 투자 증가와 대미 수출을 기반으로 생산을 다소 유지하고 있는 한편, 공급망 이슈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콜롬비아, 페루 및 칠레는 다소 감소함.
- [광업] 대외수요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위축 영향이 지대했던 광업 생산은 회복 과정에 있는데, 수요 및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핵심광물 확보전은 더욱 치열

■ [물가] 장기적인 경제난을 겪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

- 강달러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엘니뇨 기상이변(농산물 생산 영향), 중국의 상품수요 회복,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제 상품가격의 국내가격 이전 효과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 ○ 그러나 경기둔화 전환, 환율 안정, 국제 상품가격 약세가 반영되면서 물가는 2023년 1/4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 2/4분기부터는 하향 안정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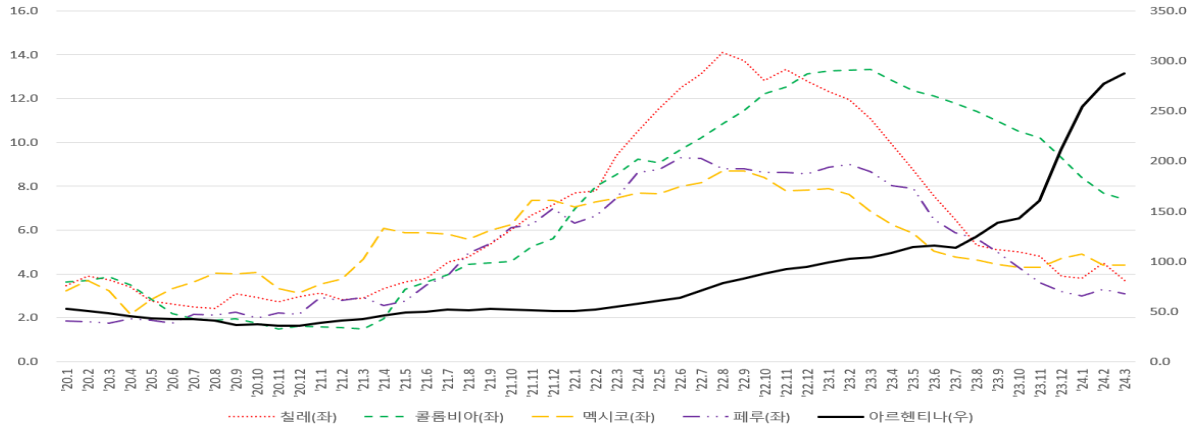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4/4분기와 2023년 1/4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세를 지속

○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2018년부터 지속된 경제 및 외환위기의 영향과 2022년 12월 큰 폭의 평가절하 영향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2024년 3월말 288%로 상승

○ 연율 13~14%대까지 상승했던 주요국의 물가는 3월 말 기준으로 콜롬비아(7.4%)를 제외하고는 3~4%대로 하락[165]했는데, 2024년에는 2023년보다는 하락 속도가 다소 둔화할 전망

그림 4-54.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아르헨티나(중앙은행) 제외 IMF. IFS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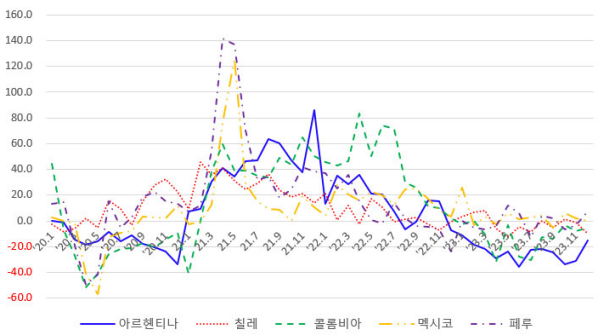
■ [교역] 경기둔화를 반영한 글로벌 교역 약세는 중남미지역의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24년 들어서도 지속

- [수출] 공급망 재편, 니어쇼어링, FDI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 급부상 중인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수출은 △ 주요 상품가격 약세, △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등을 원인으로 약세를 지속

- [수입] 전반적인 경기 반전에 따른 내수 회복, 환율 하락세를 바탕으로 수입 수요는 회복 중

그림 4-55.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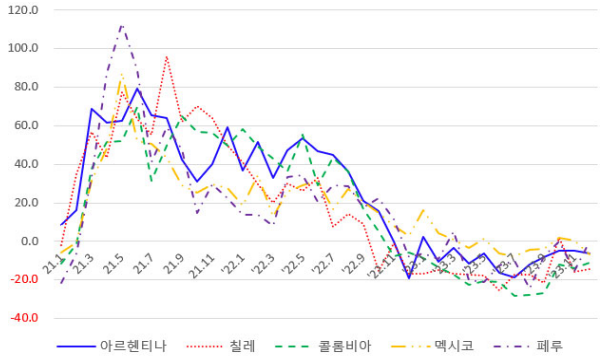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2).

그림 4-56. 중남미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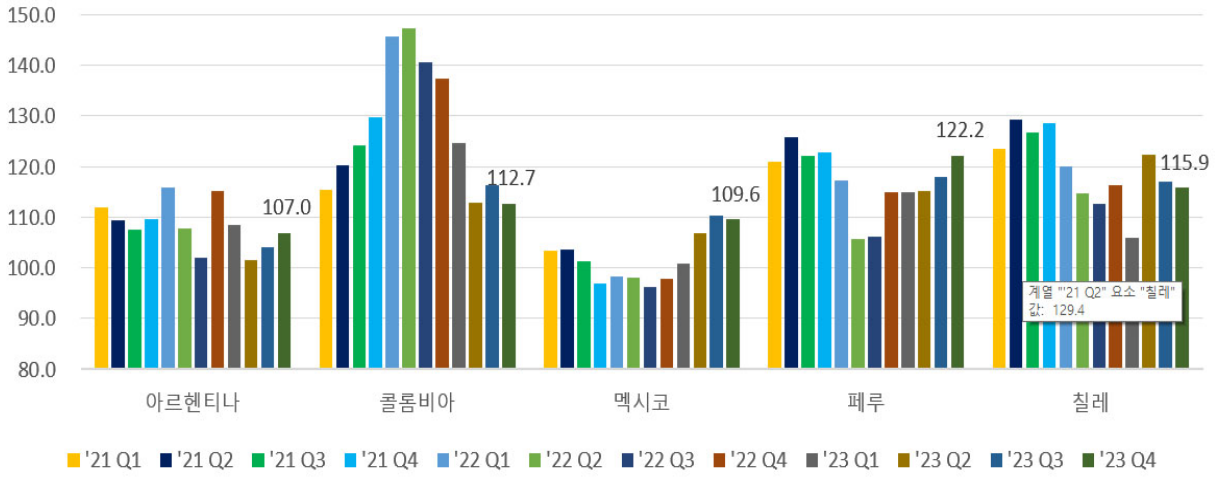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2).

165)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3.93%로 하락.

그림 4-57. 중남미 주요국의 교역조건 추이

(단위: 지수)



주: 2020년 1분기=100.
자료: CEIC(검색일: 2024. 4. 12).

■ **[환율] 미국 통화정책 완화 시점이 연기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의 통화정책 완화가 우선 시장에 반영되면서 2023년 8월부터 다소 상승하던 환율은 경제 회복이 빠른 국가를 중심으로 하락 안정세를 기록**

- 최근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심화되면서 강달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말 대비 환율은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에 놓인 아르헨티나와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더딘 칠레를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지속

○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환율은 평가절하 영향으로 2022년 말보다 396%(공식 환율 기준), 칠레는 13.3% 상승한 반면, 콜롬비아는 19.3%, 멕시코는 11.9%, 페루는 1.5% 각각 하락

-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니어쇼어링 효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양호한 거시경제 기초 등 영향으로 페소화가 강세이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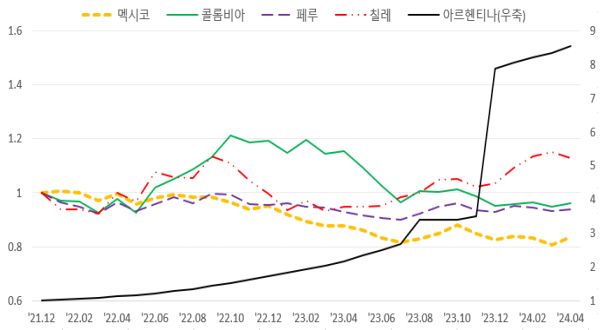
- [콜롬비아]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환율은 경제성장 회복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 중인데, 탄탄한 외환보유고와 IMF의 FCL(81억 달러) 승인으로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상승 압력을 보완 중임.

- [페루] 수출 원자재(구리) 가격 회복세로 인한 점진적 환율 하락세는 유지될 것이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성장 회복 둔화를 감안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미국과의 금리격차 축소로 강달러 국면이 전개되면 환율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칠레] 가속화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환율 상승 추세인데, 미국 통화정책 완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광물 가격 상승 및 수출 증가가 조기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2025년 말 예정된 대선까지 상승 기조 유지 예상

그림 4-58. 중남미 주요국의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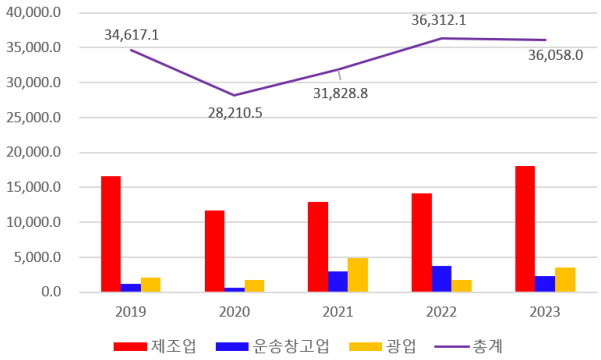
(단위: 각국 화폐/달러 기반 지수)



주: 2021년 12월 말=1, 월별 환율.
자료: 각국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2).

그림 4-59. 멕시코 주요 업종별 FDI 순유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4. 5. 2).

2) 거시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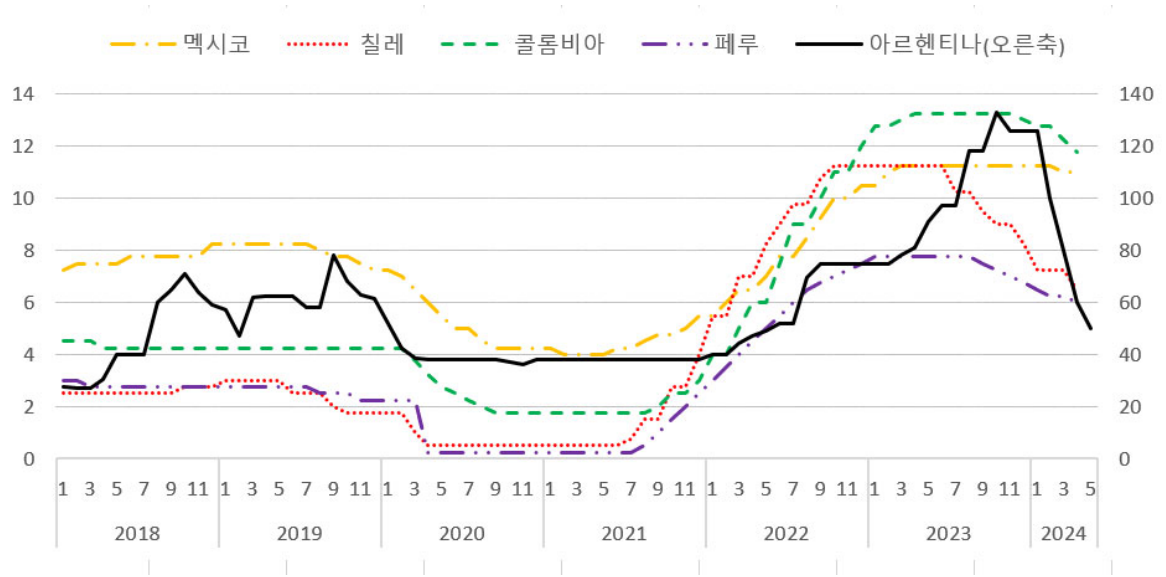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하면서 일부 국가는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166] 나머지는 관망세를 유지

- [멕시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7차에 걸쳐 정책금리 조정을 미루어왔으나, 2024년 1/4분기의 탄탄한 노동시장 지지의 경기회복과 물가의 중앙은행 목표치(2~4%) 수렴 전망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근거로 정책금리를 3월 11%로 0.25%p 인하
- [칠레]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되자 부진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23년 7월부터 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 중인데, 4월 말까지 11.25%에서 6.5%로 여섯 번 조정
- [콜롬비아] 주요국 가운데 물가가 가장 느리게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결과로 기준금리도 2023년 12월 처음으로 13.25%에서 13%로 소폭 조정되기 시작하였고, 2024년 들어서도 더딘 물가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4월까지 세 차례 조정되어 11.75%를 기록
  - ○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물가 변동 수준을 참조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3~4%p 추가 인하 전망
- [페루] 물가 하락세에 힘입어 2023년 9월부터 7차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결과 4월 말 6%를 기록
  - ○ 물가는 3% 수준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엘니뇨, 정치·사회 불안 등에 따른 상승 압력이 여전하여 2024년 말까지 5% 수준에서 조정 예상
-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들어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고 평가절하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금리도 120%를 상회했는데, 275%에 달한 물가의 강제적 안정화와 민간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5월 초 현재 50%로 조정
  - ○ 공공부채 등 상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낮은 금리가 필수적이나, 경제 사정과는 괴리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황

166) 브라질은 2023년 8월부터 13.75%인 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하여 2024년 3월 현재 10.75%까지 인하.

그림 4-60. 중남미 주요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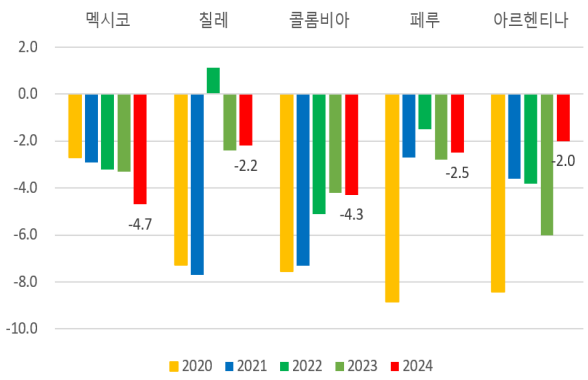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검색일: 2024. 5. 8).

■ [재정정책] 경기부양 필요성과 정치적 목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

- [멕시코] 2024년 대선과 집권 말기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방정부 지원 등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폭이 2023년 GDP 대비 3.8%에서 2024년 4.7%로 대폭 확대 전망
  - ○ 재정적자 증가는 조세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결과이기에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가 긴축 재정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 [칠레] 공공사업 및 사회(연기금) 지출 증가, 구리 및 리튬 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는 2023년(GDP 대비 2.3%)에 이어 2024년에도 확대(2.5%)될 전망
  - ○ 그러나 신규 구리광산 생산 개시, 보리치 정부의 성공적인 세제개혁, 2025년 출범 가능성이 높은 중도우파 정부의 정통 재정정책 시행 등은 재정 안정에 기여할 전망
- [콜롬비아] 페트로 좌파 정부의 재정규율 준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 노동, 연기금 등 사회성 지출을 증대함으로써 재정적자는 GDP 대비 4~5% 수준으로 더욱 심화 전망
- [페루] 볼루아르테 정부 아래에서 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경기부양 성격의 지출 확대와 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 약세로 인한 선심성 지출(지방재정지출, 세율 인하 및 의회에서의 포퓰리즘)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 확장적으로 운영 중
  - ○ 이 결과 경제 회복과 광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1%대에서 2%대로 지속적 확대 예상
- [아르헨티나] 정부의 일방적인 초긴축정책(보조금 축소, 공무원 감축, 공공투자 축소, 지방으로의 재량적 재정 이전 축소, 페소화 표시채 구조조정, 수출세 품목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는 급격하게 개선(2024.1~2월 흑자)되고 있으나 정치적 지지 문제로 지속가능성 여부는 미지수

그림 4-61. 중남미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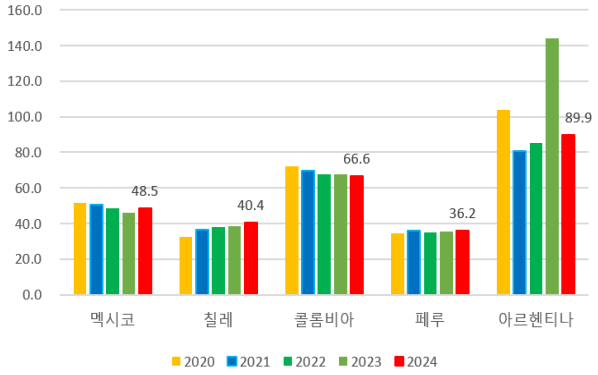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2023년 추정치 및 2024년 전망치.
자료: EIU(검색일: 2024. 4. 12).

그림 4-62. 중남미 주요국의 정부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2023년 추정치 및 2024년 전망치.
자료: EIU(검색일: 2024. 4. 12).

3) 핵심 이슈

■ [노동시장] 인구증가율 둔화, 고령화 진행, 생산인구 비중 정점 도달 등이 성장률 저하의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

- 포스트 팬데믹 시기 경기둔화로 인해 공식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미세하게 증가했는데, 2024~25년에는 다른 신흥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성장률로 인해 실업률은 개선되기보다는 제자리 수준을 유지할 전망

○ ILO에 따르면 2023년 중남미지역 실업률은 세계 실업률(5.1%)은 물론 팬데믹 직전인 2019년(4.4%)보다 높은 6.2%를 기록했는데, 2024~25년에도 약 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167]

- 지속적인 이민 유출과 여성의 참여율 부진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은 2023년 62.6%로 2019년(63.5%)보다 악화

○ 전통적으로 중남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저조한 편인데, 2023년 51.1%로 남성(74.6%)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청년실업률도 세계 수준에 버금가는 13.3%를 기록했는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악화할 것으로 예상

- 중남미지역의 노동시장 전망이 어두운 배경에는 경제 전반에서의 높은 중소기업 비중과 구조적 이슈(교육, 규제, 인프라 개발, 세제 등)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이 작동하고, 특히 서비스 부문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비공식경제(지역 평균 48%)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고용시장 이슈와 인플레이션이 유발한 소득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는 낮은 저투자 및 저생산성과 더불어 중남미지역 저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IMF는 최근 중남미지역의 고령화가 향후 약 5년간 평균 2%대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168]

○ 팬데믹 이전 20여 년간 중남미지역의 노동력은 연평균 1%의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향후 5년간 인구증가율 하락(0.6%), 고령화 진행,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정점 도달(2024~25년)은 노동활동인구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 전망

○ 따라서 노동참가율 장려가 성장을 결정지을 요인이 될 것이기에 낮은 수준인 여성 노동참가율 제고, 역외 유출 인구 억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 과제로 제안

167) https://brazilian.report/liveblog/latam/2024/01/11/productivity-hinders-job-growth-latin-america/(검색일: 2024. 4. 24).
168)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4/04/23/latin-americas-shifting-demographics-could-undercut-growth(검색일: 2024. 4. 24).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의 성장은 민간수요의 둔화로 인해 신흥지역 및 저소득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2% 이하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일부 국가의 경우 FED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통화긴축을 경기부양정책으로 반전시키며 성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활용 중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풍, 세계 원자재 가격의 둔화 추세, 일부 국가(아르헨티나 및 페루 포함)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부정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 전망
- [멕시코] 2024년 2.5%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에는 2024년 성장의 역효과, 미국 성장 둔화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대중 경제관계 냉각 가능성 등으로 2.0%에 그칠 전망
  - ○ 대선 시기 및 집권 말기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통화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수요 둔화, 12월 출범할 새정부(좌파 정부 재집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2024년 멕시코 성장률 둔화에 작용
  - ○ 승리가 예상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의 국가주도 경제정책 지속 전망, 완만한 통화정책 완화 속도, 차기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 부담, 다수의 대미 해결 과제(에너지정책, GMO 농산물, 이민 등) 등이 성장 둔화 요인
- [칠레] 급속한 물가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조기 통화정책 완화의 소비와 투자 견인, 개헌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 그리고 핵심광물(구리, 리튬) 수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2024년 3% 성장 전망
  - ○ 그러나 중국경제 리스크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해지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준동과 소비 위축 가능성, 개혁을 둘러싼 정쟁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2025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제한
- [콜롬비아] 2023년 저성장의 기저효과에 2023년보다 가파른 물가안정과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와 투자에 기반한 성장회복 모멘텀은 마련됨.
  - ○ 그러나 좌파 정부의 주도적인 시장개입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되지 못하면서 2024년 성장은 하반기에나 회복을 이어가면서 1.3%에 그치고, 2025년에는 연평균 수준인 3% 전후의 성장이 예상
- [페루] 2024년 성장률은 2023년 저성장의 기저효과에 물가안정 및 통화정책 완화를 바탕으로 회복(2.5%)될 전망이지만, 볼루아르테 정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요원한 가운데 내수와 수출 회복이 둔화되고 있어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에서 성장 예상
  - ○ 2023년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던 정치·사회 불안은 2024년 상반기에 불거진 대통령의 개인적 비리 리스크로 한층 악화되고 있고, 내수와 광물 수출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새정부의 충격요법으로 2024년 1/4분기 성장률은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치·사회적 저항 속에 구조개혁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대외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하반기부터 성장회복 기초 마련 예상
  - ○ 그러나 구조개혁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과 기후불순으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 전망을 감안할 때 2024년 성장률은 2023년보다 더욱 악화된 -3.6%를, 2025년에는 기저효과와 거시경제 안정화 및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4.0% 수준으로 회복 전망

표 4-18. 주요 기관의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24~25년)

(단위: %)

구분	KIEP [2024. 5]		EIU [2024. 4]		Oxford Economics [2024. 4]		IMF [2024. 4]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멕시코	2.5	2.0	2.3	2.2	1.9	2.0	2.4	1.4
칠레	3.0	2.5	2.0	2.4	2.3	3.1	2.0	2.5
콜롬비아	1.3	2.8	1.2	3.0	1.0	2.8	1.1	2.5
페루	2.5	2.5	2.4	2.5	2.5	3.5	2.5	2.7
아르헨티나	-3.6	4.0	-3.5	5.4	-4.2	4.6	-2.8	5.0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EIU Viewpint(2024. 4), *Geography: Americas;* Oxford Economics(2024. 4), *Country Economic Forecast* (국별 자료);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1) 거시경제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 UAE]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하락과 원유 감산 시행으로 -0.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반해 UAE는 비석유 부문 성장이 두드러지며 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수준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했을 뿐 아니라 유가 부양을 위한 자발적 감산을 시행하면서 2023년 역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출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8.7%의 가파른 성장 추세를 시현하였음.
  - ○ 그러나 2023년에는 유가 수준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차원의 감산과 더불어 일일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시행하면서 자국 원유 수출 수익 및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26.3%, 9.2% 감소하였음.[169]
  -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내 정세 불안 확대로 특히 네옴시티, 홍해 개발 등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UAE는 국제유가 하락과 OPEC+ 차원의 원유 감산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부문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 UAE는 연방정부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관광, 소매, 금융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집트] 이집트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주요 외화 수입원 위축에도 불구하고 IMF 금융지원 확대로 2023/24 회계연도에 3.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170]

-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의 연속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수에즈운하 통항료, 천연가스 수출 등 주요 외화 수입원마저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 ○ 이집트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로 자국 화폐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되는 등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됨.
  - ○ 이러한 상황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수에즈 운하 통항료 수입 감소, 이스라엘 가스전 운영 중단으로 인한 LNG 수출 수입 감소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 공공부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GDP 대비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등 경제 완충 여력이 크게 감소한 실정임.
- 단, 최근 발표된 IMF의 금융지원 확대와 EU, GCC 등 주변 지역 국가의 대이집트 원조 및 투자가 향후 이행되면 외화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속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 2024년 3월 IMF는 지난 2022년 12월 이집트 정부와 합의한 확대신용제공(EFF: Extended Fund Facility)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3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169) EIU, "One-click report: Saudi Arabia," p. 6.
170) 이집트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차기 연도 6월 30일까지임.

○ 같은 기간 EU는 원조 및 공적자금을 포함한 80억 달러 상당의 공여금을 추후 이집트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4월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이집트 단기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음.[171]

■ [이스라엘] 2023년 이스라엘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여권의 사법 개혁 추진에 따른 국정 혼란 등으로 3/4분기까지 내수경기가 위축되었으며 4/4분기 들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상치보다 1.1%p 감소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이스라엘 정부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 0.1%이었던 기준금리가 2023년 5월에 4.75%까지 인상되었으나 2023년 1/4~3/4분기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5%로 정부의 목표 수준인 1~3%를 웃돌았음.

○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성장이 줄어들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사법 개혁으로 인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이스라엘은 고정투자 및 산업생산 감소, 민간소비 위축, 재정적자 증가를 겪으며 2023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1.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172]

○ 주택 투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서안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노동자 근로 제한으로 건설 부문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이전 분기 대비 고정 투자 성장이 -67.9%를 기록했으며 이것이 4/4분기 경제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자국민 예비군 소집 및 비상 동원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첨단기술, 농업, 관광 부문 등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았으며 산업생산은 이전 분기 대비 23.2% 감소함.[173]

○ 민간소비도 3/4분기 대비 26.9% 감소했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이 42.4% 감소해 순수출이 증가하고 공공지출은 83.7% 증가하면서 그 영향이 일부 상쇄됨.

○ 전쟁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국방비 및 전쟁 지원비용 증가는 4/4분기 재정적자를 이전 분기 대비 7배 이상 증가시켰으며 2022년에 흑자를 기록했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3년 -4.1%로 돌아섬.[174]

표 4-19.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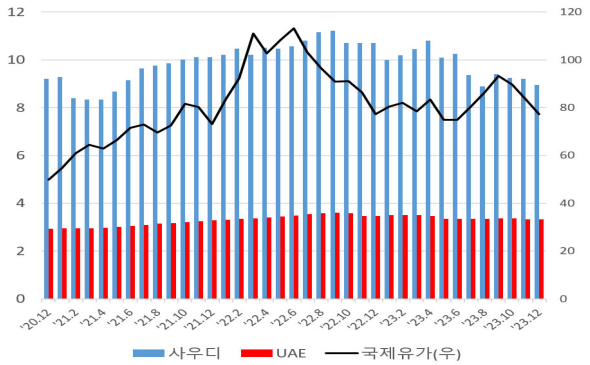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	'20	'21	'22	'23
사우디아라비아	1.1	-3.6	5.1	7.5	-0.8
UAE	1.1	-5.0	4.4	7.9	3.4[e]
이스라엘	3.8	-1.5	9.3	6.5	2.0
이집트	3.6	3.3	6.7	3.8	3.0[e]

주: 1) [e]는 전망치임.
2) 이집트는 회계연도 기준임. (이집트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연도 표기 통일성을 위하여 IMF 기준 연도 1년 후인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차기 연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23).

그림 4-63. 중동 주요국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좌), 달러/배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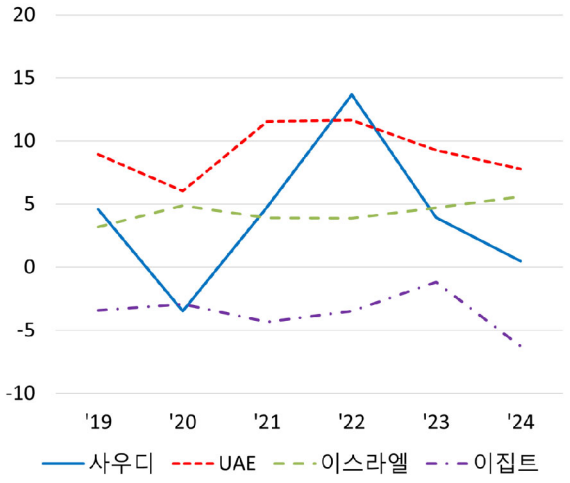


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임.
자료: EIA, International-Data; Petrone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23).

171) "EU pledges Egypt 1 billion euros in financial aid"(2024. 4. 12), Reuters.
172) "Israel Q4 GDP revised to 21% contraction as a result of Gaza war"(2024. 4. 16), *Middle East Monitor*,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자료 재인용.
173) S&P Global Connect 데이터(검색일: 2024. 4. 23).
174) Israel Ministry of Finance, "Research Department Staff Forecast, April 2024."

그림 4-64. 중동 주요 국가별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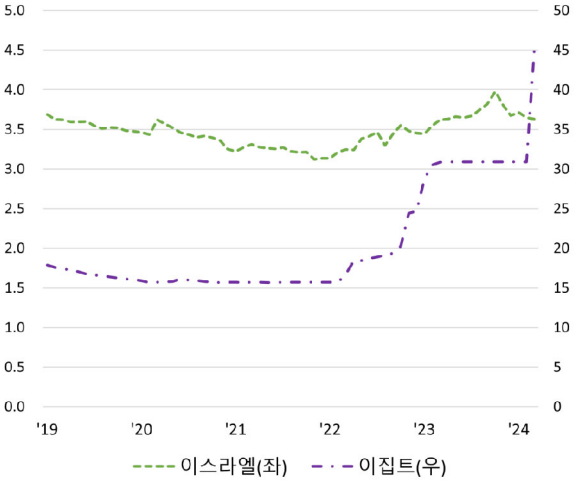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24년은 전망치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23년부터, UAE는 '22년부터 전망치임.
자료: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23).

그림 4-65. 중동 주요 국가별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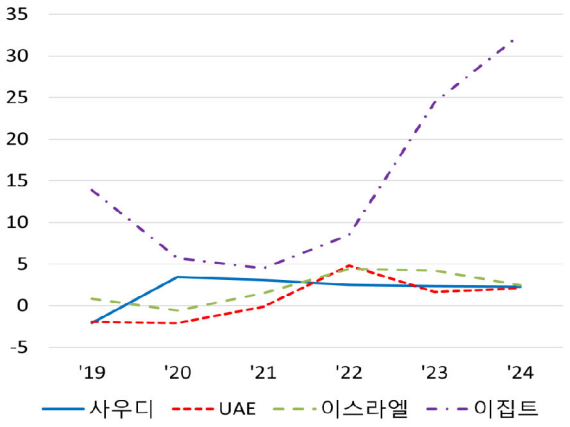
(단위: 셰켈/달러(좌), 파운드/달러(우))



주: 1) 월평균 기준임.
2)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고정환율제 시행.
자료: S&P Global Connect(검색일: 2024. 4. 23).

그림 4-66. 중동 주요 국가별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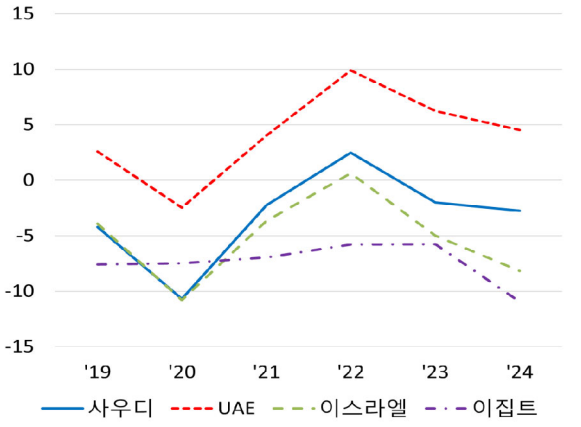
(단위: %)



주: '24년은 전망치이며 UAE는 '23년부터 전망치임.
자료: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23).

그림 4-67. 중동 주요 국가별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24년은 전망치이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은 '23년부터 전망치임.
자료: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4. 4. 23).

2) 거시정책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네옴시티(Neom City)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UAE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현재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15건의 예상 규모는 총 8,840억 달러이며, 2023년까지 총 808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수주되어 9.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음.[175]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건설시장 규모는 각각 953억 달러, 8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음.[176]

-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가장 높은 15%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UAE도 2023년 6월 법인세를 도입하는 등 재정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의 경제구조 다각화 정책이 활발히 이행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이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허브 조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산업다각화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이전 및 숙련 노동자 육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각국의 중점 육성 산업 및 개발 전략이 비슷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역내 국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1월 본사 또는 지역 지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두지 않은 기업과는 정부 계약을 맺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UAE도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하고 자국 경제 및 고용 기여 정도에 따라 정부 입찰에 특혜를 부여하는 현지화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이집트] 이집트는 IMF가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정부의 환율 개입 축소, 식료품 및 에너지 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 단행

- IMF는 2016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집트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정부의 환율 개입 축소, 보조금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이집트 측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이집트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환율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등 IMF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으며, IMF는 이를 이유로 2022년 12월 합의한 30억 달러 규모의 EFF 지급을 미루어 옴.

- 단, 2023년 12월 대선 종료 이후 정부가 민심에 신경 쓸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IMF가 대이집트 구제금융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인플레 압력에도 불구 향후 IMF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임.

○ 실제 지난 3월 IMF의 대이집트 금융지원 규모 확대 발표 당일 2023년 초부터 달러당 30파운드대를 유지하던 이집트 환율은 59.8% 상승하였음.

- 단, 이집트 정부는 IMF 조건 이행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이집트 중앙은행(CBE: Central Bank of Egypt)은 IMF 금융지원 규모 확대 발표 당일 자국 기준금리를 기존 21.25%에서 27.25%로 6%p 인상하였음.

○ 이집트 정부는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유동성 공급, 기준금리 인하 등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

-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전쟁 발발 직후 셰켈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외화 매각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함.

175) MEED, "The Saudi Arabia Opportunity," pp. 8-9.
176) *Ibid.*, pp. 8-9.

○ 이스라엘 정부는 10월 9일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를 매각하고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실제로 85억 달러의 외화를 매도함.[177]

○ 달러당 3.86세켈이던 환율은 전쟁 직후 빠르게 급등하여 11년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4.08세켈을 기록했으나 11월 중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4년 3월에는 3.62세켈로 하락함.

- 또한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5%로 조정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함.

○ 전년동월대비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1월 15년 만의 최고치인 5.38%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12월(2.96%)부터 정부의 목표 수준 안으로 들어왔으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음.[178]

○ 정부는 전쟁의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기준금리보다 1.5%p 저렴한 금리로 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은행에 26억 달러(100억 셰켈)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함.

3) 핵심 이슈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분쟁 확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과 이를 둘러싼 역내 분쟁 확산으로 최근 중동지역 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 요인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에 따른 역내 분쟁 확산으로 전쟁 발발 시점인 2023년 10월부터 중동지역 내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 당사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 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도 민간소비와 대내투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집권 연정 내 극우세력이 강력한 군사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정세가 안정화되면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친이스라엘 인사로 평가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현 긴장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란 및 역내 친이란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및 역내 미군기지 공격, 홍해 통항 선박 공격, 호르무즈 해협 선박 나포 및 봉쇄 위협으로 이스라엘 및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역내 긴장 수위에 따라 대응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

- 현 분쟁 당사국의 확전에 대한 유인을 고려해볼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양측의 보복성 공격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대응 규모가 커진 상황이라 우발적인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란과 대선을 앞둔 미국 모두 확전에 대한 유인이 낮고 오랜 기간 이란의 핵시설 타격 등을 주장해 온 이스라엘 우파 정권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 없는 전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번 양국간 무력 충돌로 양측이 본토 타격의 위험성도 확인한 상황이라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중동 분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고 있는 만큼 전개 양상에 따라 새로운 갈등 구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음.

177) Bank of Israel(2024. 3. 20), "Report on the Investment of Israel's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2023,"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3. 27).

178) Bank of Israel(2024. 2. 26), "The Monetary Committee decides on February 26, 2024 to leave the interest rate unchanged at 4.5 percent,"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3. 26).

○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조력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걸프 국가로의 분쟁 확산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음.
○ 2019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해 축출되었던 IS(Islamic State)의 활동도 지역 내 혼란을 틈타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테러를 통한 존재감 부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역내 투자 증가와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 성장으로 2024년에 각각 2.0%, 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분쟁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2023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원유 수출 수익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의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2030년이 다가오면서 이를 위한 투자유치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 투자 부문은 2024년 각각 5.0%, 4.0%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179]
- 각국의 산업육성 노력으로 비석유 부문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30년까지 GDP의 10%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산업이 2023년에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180]
- 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에 따른 지역 내 분쟁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직접적 타격도 있을 수 있어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각국 경제 상황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

○ 특히 홍해 개발 프로젝트, 네옴시티(Neom City) 등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개발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긴장 고조 시 공사 차질 및 지연,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홍해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로를 활용하면서 UAE의 지역 내 물류 허브로서 지위와 이에 따른 경제적 이점 등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단, 지역 내 분쟁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원유 판매 수익을 증가시키고 자국산 원유의 시장 공급 재개 여지를 확장시키는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집트] 이집트는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24/25 회계연도에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 가스전 재개로 이집트 천연가스 수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전반적인 상품 수출도 증가하면서 2024/25 회계연도 이집트 대외수출은 전년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81]
- IMF와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2030(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30)'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경제구조개혁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일환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정부의 육성 의지가 강한 천연가스, 물류, 석유화학 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단,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증가로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 및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79) EIU, "One-click report: Saudi Arabia," p. 11; EIU, "One-click report: UAE," p. 11.
180) EIU, "One-click report: Saudi Arabia," p. 10.
181) EIU, "One-click report: Egypt," p. 11.

- 이집트도 수에즈운하 통항 선박 수 감소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역내 긴장 고조 시 투자 위축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면 수에즈 운하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집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나이반도 관광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현 이집트 경제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출이 역내 분쟁 확산을 계기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 공격에 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천연가스 수출 등 경제적 유대 관계가 있어 이집트 입장에서는 분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이스라엘]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역내 확산 여부, 전투 강도, 종결 시기 등이 모두 불확실하나 전쟁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스라엘은 2024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의 경우 2024년 상반기부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겠으나 둔화된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초부터 관광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신용카드 구매액이 전쟁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82]

○ 예비군으로 동원되었던 인력 일부가 복귀하면서 2024년 1월부터 기업 활동이 늘었으나 건설 부문의 경우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입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아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 의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개정 예산안의 규모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 관리 및 양적 완화정책 시행에 있어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군사 비용 150억 달러를 포함해 기존 예산 대비 190억 달러가 증가한 예산안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5%p 증가한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의 경우 2023년부터 시작된 완화세에 더해 전쟁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2024년에는 2.4%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에는 경제 전반이 전쟁 여파로부터의 회복을 보이면서 4.8%의 성장률을 보이겠으며 2026년부터 기존의 잠정 GDP 성장률 추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됨.

표 4-20. 주요 기관의 중동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24~25년)

(단위: %)

구분	KIEP [2024. 5]		EIU [2024. 4]		IMF [2024. 4]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사우디아라비아	2.0	4.5	2.0	4.3	2.6	6.0
UAE	3.5	4.1	3.6	4.1	3.5	4.2
이집트	3.5	4.5	3.1	5.3	4.4	4.7
이스라엘	1.7	4.8	1.9	4.3	1.6	5.4

주: 1)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임.
2) 이란과 이집트는 회계연도 기준임(이집트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연도 표기 통일성을 위하여 EIU, IMF 기준연도 1년 후인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차기 연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IU Da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23).

182) "Inflation declines, credit card spending rises: BofA on Israel's economy"(2024. 2. 3), *The Jerusalem Post*; Bank of Israel(2024. 4. 8), "The Monetary Committee decides on April 8, 2024 to leave the interest rate unchanged at 4.5 percent," 온라인 보도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11).

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전반적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와 고금리 기조, 더딘 생산활동 회복 등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6%p 감소한 3.4%를 기록함.

- [나이지리아] 원유생산이 회복되고 서비스업 부문이 약진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2.9%를 기록함.

○ 2023년 4/4분기에 농업 부문 2.1%, 산업 부문 3.9%, 서비스 부문은 4.0%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22년 4/4분기보다는 낮지만, 전 분기보다 상승한 3.5%를 기록함.[183]

○ 2023년 4/4분기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일 21만 배럴 증가하여 2021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일 155만 배럴을 기록함.[184]

- [남아공]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금융,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의 경제 활동 증가로 4/4분기에 회복하였으나 연간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인 0.6%에 그침.[185]

○ 2023년 분기별 GDP 성장률: 0.1%(1/4분기) → 1.8%(2/4분기) → -0.7%(3/4분기) → 1.2%(4/4분기)

- [케냐] 세금 인상, 반정부 시위, 고금리,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과 서비스 부문이 회복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5%를 기록함.[186]

- [앙골라] 원유 생산량 감소, 고물가 기조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함.[187]

○ 앙골라는 2009년 일일 190만 배럴 생산을 기록한 후 원유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여 현재 일일 110만 배럴 수준임.

○ 원유 수출에 의존적인 앙골라는 경제 부양을 위해 원유생산 증대가 필수적인 만큼 감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OPEC에서 2023년 12월에 탈퇴함.

- [탄자니아] 금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탄자니아는 5.0%의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임.

○ 탄자니아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금 가격은 2023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며 2023년 1월 기준 약 5만 9,000달러/kg에서 2024년 4월 기준 약 7만 5,000달러/kg로 상승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24.3% 증가함.[188]

- [가나] 4/4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유가 하락, 산업 활동 둔화, 정부부채 부담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함.

○ 물가상승률이 내림세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20%대로 높고 산업 활동 또한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채무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가 GDP 대비 86.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189]

---

183) 서비스 부문이 GDP의 57%를 차지함. Niger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24. 2), *Nigerian Gross Domestic Product Report Q4 2023*, p. 3.
184) Niger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24. 2), *Nigerian Gross Domestic Product Report Q4 2023*, p. 5.
185) Statistics South Africa(2024. 3. 5), "GDP, 4th Quarter 2023," p. 13.
186) Oxford Economics(2024. 1. 19),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p. 1.
187) Banco Nacional de Angola(2024. 4. 3), "Contas Naciona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188) MIPDS, "금CME(NYM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Bank of Tanzania(2024. 1), "Monthly Economic Review," p. 10.
189) Ghana Statistical Service, "Economic National Accou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표 4-21. 2023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원유 수출국			광물 수출국			원자재 비의존국		
국가명	2022	2023	국가명	2022	2023	국가명	2022	2023
나이지리아	3.3	2.9	남아공	1.9	0.6	에티오피아	6.4	7.2
앙골라	3.0	0.5	탄자니아	4.7	5.0	케냐	4.8	5.5
카메룬	3.6	4.0	가나	3.1	2.3	코트디부아르	6.9	6.2
가봉	3.0	2.3	콩고민주공화국	8.8	6.1	우간다	6.3	4.8
콩고공화국	1.7	4.0	짐바브웨	6.5	5.3	세네갈	4.0	4.1
차드	3.1	4.4	잠비아	5.2	4.3	모잠비크	4.4	6.0
적도기니	3.2	-5.9	기니	4.0	5.7	베냉	6.3	5.8

주: 국가 구분은 IMF의 구분을 따르며 2023년 GDP 규모 순서로 나열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 **[환율] 강달러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환율이 오르는 공통된 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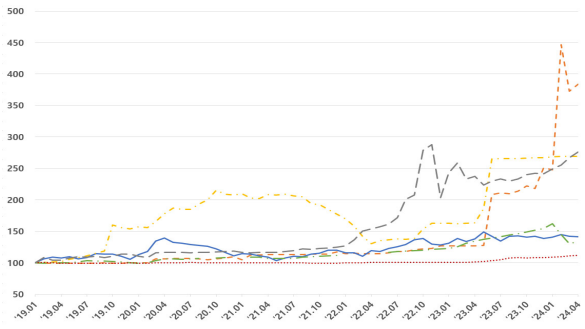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 도입 이후 2023년 나이라(NGN)화의 통화가치가 70% 하락했고, 2024년 2월 또다시 전월 대비 45% 하락한 이후 조정되면서 다소 상승함.[190]
  - 3월 환율이 달러당 1,625나이라까지 치솟았으나 등락을 거듭하다 5월 초 달러당 1,382나이라에 거래됨.[191]
- [남아공] 2024년 3월 기준 달러당 랜드(ZAR)화 가치는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한 수준으로 환율을 효과적으로 방어
  - 2024년 초부터 소폭 하락하던 남아공 랜드화의 가치는 지난 2월 남아공의 예산안 발표 이후 강세를 보였으나 5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섬.[192]
- [케냐] 2024년 초에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IMF와 세계은행의 대규모 패키지와 신규 유로본드 발행에 힘입어 1~3월 사이 케냐 실링(KES)화 가치가 17% 상승함.
  -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액 감소, 미국 달러 강세 등으로 2021년 이후 실링의 가치가 32% 하락하여 2024년 1월 달러당 163실링까지 치솟았으나 3월 135실링으로 환율이 낮아짐.[193]
- [앙골라] 외화보유액 감소,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중단 선언 등으로 앙골라 콴자(AOA)화 가치는 2023년에 약 40% 감소한 이후 달러당 830콴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원유 수출감소, 부채 상환액 증가 등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하면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달러 거래 규모를 제한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외화표시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함.[194]
- [탄자니아] 경상수지 개선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오름세를 유지함.
  - 탄자니아 실링(TZS)화 가치는 2024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약 10% 하락함.
- [가나] 가나 세디(GHS)화는 2022년에 달러 대비 40% 하락한 이후 IMF 구제금융 합의로 인한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양자 및 상업 채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섬.[195]

190) World Bank(2023. 4), *Africa's Pulse*, p. 27.
191) Central Bank of Nigeria, "Exchange rates" 온라인 자료(2024. 5. 7).
192) South African Reserve Bank, "Selected Historical Ra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193) Oxford Economics(2024. 3.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p. 1.
194) Henrique Almeida(2024. 3. 12), "Angola Plans Foreign-Currency Bond Sale to Boost FX Liquidity," Bloomber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Almeida and Mendes(2023. 10. 27), "Angola Steps up Currency Curbs to Stem Kwanza Decline," Bloomber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195) IMF는 2023년에 3년 단위의 30억 달러 확장차관제도(Extended Credit Facility)를 승인함.

○ 2024년 4월 가나 세디화의 가치는 달러당 13.5세디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약 12% 하락함.

그림 4-6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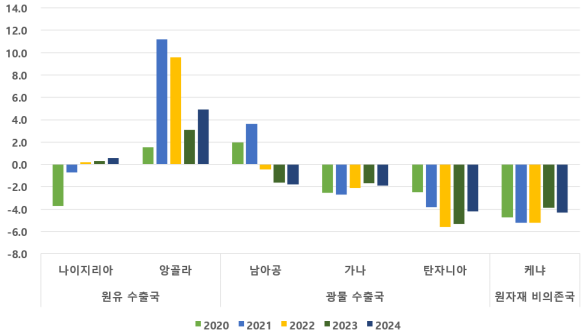
(단위: LCU/USD 지수)



주: 2019년 1월 환율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 5. 7).

그림 4-6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주: '24년은 예상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 [경상수지] 원자재 수출국은 경상수지가 GDP 대비 -1.6%로 악화, 원자재 비의존국은 -5.6%로 전년보다 개선 추세를 보인 가운데 2023년 아프리카 전반적인 경상적자는 GDP 대비 -2.8%로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0.8%p 확대

- [나이지리아] 유가 상승 및 원유생산 증가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2023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0.3%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0.6%로 소폭 확대 예상[196]
- [남아공] 남아공의 총수출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 상승과 랜드화 가치 하락, 광물 가격 혼조세로 수출액이 감소하여 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1.1%p 하락한 -1.6%를 기록함.[197]

○ 남아공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금, 철광석, 석탄 등의 광물 가격은 올랐으나 망간석, 니켈, 팔라듐 등의 가격은 하락하여 수출액 증가 규모가 크지 않았던 반면 주요 수입품인 정제유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액이 증가함.

- [케냐]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2024년 경상수지는 GDP의 -4.3%로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전망[198]

○ 농업 부문 회복이 수출 증가로 이어져 수출액이 8.2% 증가하나 외환보유액 부족, 통화 가치 하락, 홍해 문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수입액이 7.1%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앙골라]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액 감소와 이자 상환 규모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한 GDP 대비 3.1%를 기록함.

○ 서비스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약 24% 감소한 8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원유 수출액과 이자 상환 규모가 각 27%, 73% 증가한 347억 달러 및 45억 달러를 기록함.[199]

- [탄자니아] 2022년 대비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감소하여 2023년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0.3%p 개선된 GDP 대비 -5.3%를 기록함.[200]

○ 금, 커피, 담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증대와 관광업계의 호황으로 인한 서비스 수입 증가로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감소함.

196) Oxford Economics(2024. 3. 11),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1.
197) South African Reserve Bank(2024. 3), "Quarterly Bulletin," pp. 44-52.
198) Oxford Economics(2024. 2.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p. 3;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p. 39.
199) Banco Nacional de Angola, "Quarterly Data: Balance of Payments 2012-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200) Bank of Tanzania(2024. 1), "Monthly Economic Review," pp. 9-10.

- [가나] 금 가격 상승과 외화 송금액 증가, 수입 유가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는 전년대비 0.4%p 감소한 -1.7%를 기록함.

■ **[정부부채] 구제금융 및 채무구조조정을 통한 단기적 부채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환율 상승,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등으로 총부채 비중은 증가세를 보임.**

- [나이지리아] 정부부채는 2023년 GDP 대비 43.4%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24년 5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2023년 4/4분기 나이지리아의 외채 규모는 38조 나이라(NGN)로 총부채의 39.3%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2022년 GDP 대비 8.9%에서 11.9%로 증가했고 나이라 가치가 급락하여 부채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201]
- [남아공] 국영전력기업(Eskom)의 부채 탕감 지원과 이자 상환 비용 증가, 세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p 증가한 73.9%를 기록하였으며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환율변동 충당계좌(GFECRA)를 활용하고자 함.[202]
  - ○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22년 Eskom의 구제 및 채무 인수를 위해 3년간 약 2,500억 랜드 지원을 발표한바, 2023/24년(회계연도)과 2024/25년에 각 760억 랜드(약 40억 달러)와 642억 랜드(약 34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203]
  - ○ 남아공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변동 충당계좌(GFECRA)에서 향후 3년간 1,500억 랜드(약 80억 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임.[204]
- [케냐] IMF, 세계은행, 무역개발은행(TDB)의 금융지원과 신규 1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덜었으나, 향후 몇 년간 정부부채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2023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73.4%에 달하며,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205]
  - ○ 20억 달러 상당 유로본드의 만기가 2024년 6월에 도래할 예정이며, 71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수익률이 급등해 외환보유고와 환율 압박이 심해져 부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206]
- [앙골라] 앙골라의 총 정부부채 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체 이자 규모가 늘고 있으며 채무 구조 또한 양자에서 다자로 변하고 있음.
  - ○ 앙골라의 총 정부부채는 2022년 520억 달러에서 2023년 496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연체 이자 규모는 동 기간 2,730만 달러에서 6,400만 달러로 약 2.4배 증가함.
  - ○ 앙골라는 전통적으로 중국 중심의 양자 채무 규모가 훨씬 컸으나 2021년부터 역전되어 2023년에는 다자 채무 규모(92억 7천만 달러)가 양자(44억 달러)의 두 배 이상임.[207]
- [탄자니아]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가 지속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채표시 부채 비중이 높아 환율하락으로 부담이 가중됨.
  - ○ 2023년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46.3%이며, 외채 규모는 총부채의 70% 수준으로 이 중 67%는 달러 표시 부채임.[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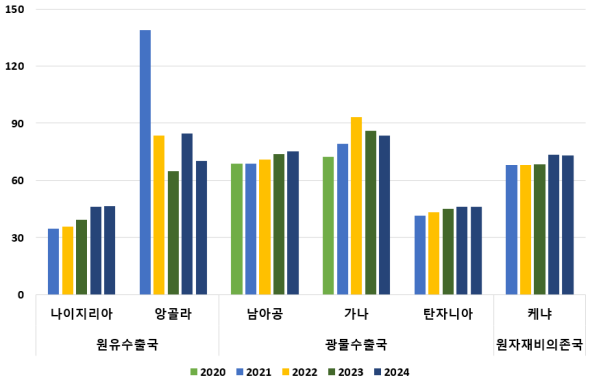
201) Central Bank of Nigeria, "Nigeria Domestic and Foreign Debt Q4 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9); "Nigeria External Debt," CE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9).
202) South Africa National Treasury(2024), "2024 Budget Presentation," p. 17.
203) *Ibid*, p. 15.
204) 환율변동 충당계좌(Gold and Foreign Exchange Contingency Reserve Account)란 환차익으로 얻은 수입을 관리하는 정부 계좌로 현재 약 6천억 랜드가 예치되어 있음. *Ibid*, p. 16.
205) Oxford Economics(2024. 2.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p. 2.
206) "Kenya faces a potential debt repayment crunch in 2024(2023. 3. 28)," EI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8).
207) Banco Nacional de Angola, "Quarterly Data: Stock da Divida Externa Publica por Credor 2013-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208) Bank of Tanzania(2024. 1), "Monthly Economic Review," p. 26.

- [가나] 2024년 1월 양자 채권국과 54억 달러 규모의 채무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등 단기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완화됨.

○ 중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양자 채권국과의 합의를 통해 IMF로부터 2차 지원분인 6억 달러를 받았으나 상업 채권자와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IMF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함.[209]

그림 4-7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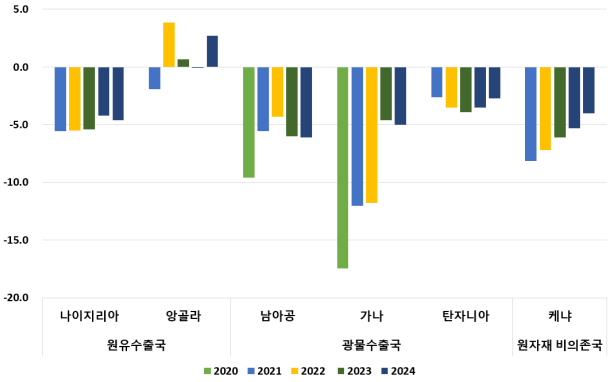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24년은 예상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그림 4-7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주: '24년은 예상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다수의 국가에서 보조금 축소 및 세제개혁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24년 전반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나이지리아] 부채상환 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여전하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2023년 재정적자가 전년대비 1.2%p 축소한 GDP 대비 4.2%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소폭 확대되어 4.6%를 기록할 전망

○ 원유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24년에도 원유 부문의 수입 증가가 기대됨.[210]

- [남아공] 남아공의 2023/24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3%p 증가한 -4.9%로 2024/25년에는 -4.5%까지 줄이고자 하나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총선과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 비정기 지출 항목이 부담으로 작용함.[211]

○ 2023/24년에는 세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지속되는 전력난 및 물류 인프라 노후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 등으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이자 상환 부담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짐.

○ 2024/25년에도 고물가 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및 국민건강보험 도입이 올해 예정되어 있고 전력 및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 악화 우려가 가중됨.

- [케냐]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IMF와 세계은행이 재정 지원을 확대해 202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3%를 기록했고, 2024년 다시 4.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212]

209) Financial Times(2024. 4. 15), "Ghana's debt restructuring deal falters after IMF rebuff,"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210) Niger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24. 2), "Nigerian Gross Domestic Product Report Q4 2023," p. 5.
211) South Africa National Treasury(2024), "2024 Budget Presentation," p. 19.
212) Oxford Economics(2024. 2.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p.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 세수 확보를 위해 2023년에 주택부담금(Affordable Housing Levy) 도입, 신규 소득세 범위 적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포함한 금융법(2023 Finance Bill)을 도입함.

○ IMF는 확장차관제도(ECF: Extended Credit Facility) 및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를 통해 9억 4,1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고, 세계은행도 2024~26년에 걸쳐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함.[213]

- [앙골라] 앙골라는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료 보조금 축소, 공공분야 임금 축소 등의 긴축 재정을 단행함.

○ 앙골라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료 보조금과 공공분야 임금 규모를 전년대비 각 1.5%p와 0.4%p 축소한 GDP 대비 2.5%와 4.2%로 계획함.[214]

- [탄자니아]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3.5%로 다수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탄자니아는 2023/24 예산안에서 정부지출을 전년대비 7% 증액하였는데 철도, 항공, 전력 등 인프라 투자를 강조함.

○ 2022년에 IMF로부터 확장차관제도(ECF) 지원을 받은바, 권고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세수입을 강화하고자 함.

- [가나]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나 2023년에 감소하였던 이자 상환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공공부문 임금, 설비투자 규모 등이 증가하여 202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0%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24년 예산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개선을 통한 세수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지출의 25%, 28%, 13%에 달하는 이자 상환 규모와 공공임금, 고정자산투자 규모 또한 각 25%, 24%, 40% 확대하고자 함.[215]

■ **[통화정책] 지역 내 국가 대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각국 정부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동결할 것으로 전망**

- [나이지리아] 연료 가격 상승과 통화 가치 급락으로 유례없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600bp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2023년 12월 18.75%에서 2024년 3월 24.75%까지 상승함.[216]

○ 2023년 물가상승률이 24.7%를 기록했고, 2024년 1월에 지난 20년간 최고치인 29.9%까지 상승하는 등 2024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 2023년 5월에 기준금리를 8.25%로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 유지되고 있으나 상한선에 근접해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음.

○ 남아공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 허용범위는 3~6%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4.5%에 유지되길 선호하나 2023년 6월 이후 물가상승률은 5%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음.

- [케냐] 중앙은행이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8.75%에서 12.5%로 인상했는데, 2024년 1월 인플레이션이 전년동월대비 6.9%를 기록하면서 2월 기준금리를 13%까지 50bp 인상함.[217]

○ 2023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2024년 1월 높아졌다가 긴축정책에 따라 다시 완화되어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동월대비 5.7%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 전년보다 낮아진 평균 6.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218]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8).

213) IMF는 또한 기후변화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4억 710만 SDR(약 5억 4,200만 달러)쿼터를 상향 조정함. World Bank(2023. 11. 20), "World Bank Foresees $12 Billion in Support for Kenya Over the Next Three Yea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2).

214) EIU(2024. 3. 12), "Angol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215) Deloitte(2023), "2024 Ghana Budget and Economic Policy," p. 18.

216) 2023년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바 있음. Oxford Economics(2024. 1.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3;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p. 149.

217) Bank of Kenya, "Inflation Ra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 [앙골라] 연료보조금 축소로 인한 연료비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으면서 2023년 11월부터 2차례 금리를 인상함.

○ 2023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2024년 2월 물가상승률이 24.1%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중앙은행은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에 기준금리를 각 100bp씩 인상하여 현재 19%임.[219]

- [탄자니아]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되고 있으나 근원물가는 오름세를 보여 기준금리를 6.0%로 인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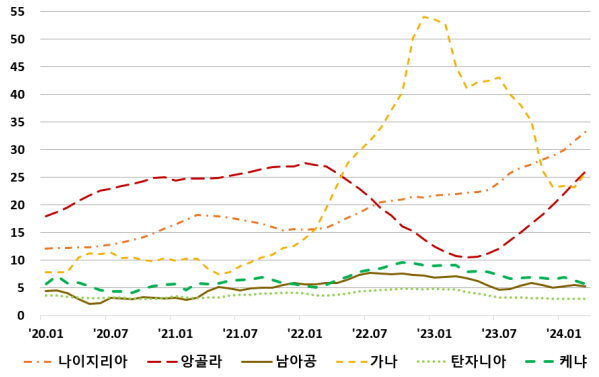
○ 농산물 생산 증대,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는 내림세를 보이나 근원물가지수는 2023년 6월 1.5%에서 2023년 12월 2.2%로 상승하였으며 홍해 통항 제약과 2023년 말 홍수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 등을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6.0%로 인상함.[220][221]

- [가나] 2023년에 감소하던 물가상승률이 2024년에 다시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29%에 유지함.

○ 2024년 3월 기준 가나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약 3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5.8%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함.

그림 4-7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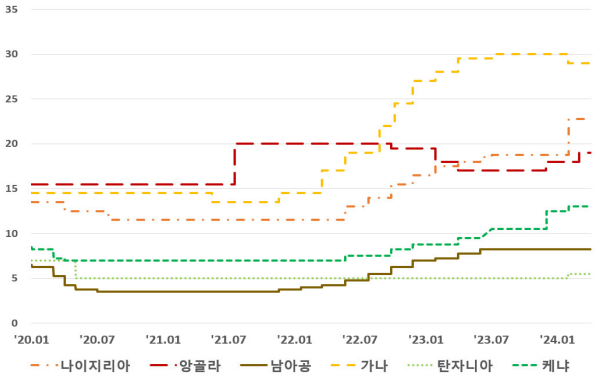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tatistics South Africa, Ghana Statistical Services, Niger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gola 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Central Bank of Kenya, Bank of Tanzania.

그림 4-7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기준금리

(단위: %)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South African Reserve Bank, Bank of Ghana, National Bank of Angola, Central Bank of Kenya, Bank of Tanzania.

3) 핵심 이슈

■ [나이지리아의 개혁정책] 2023년 들어선 나이지리아 티누부(Tinubu)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료 보조금 철폐, 신규 환율 정책 도입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 중이며, 단기적으로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나이지리아는 인구 2억 명을 보유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원유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잦은 정책 변경 등으로 2015~22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침.[222]

○ 원유 수출이 총수출의 80%를 차지하나 2022년 원유생산량이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함.

218) 실링 가치가 하락하면서 2024년 1월 전력 가격이 16.5% 상승함.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p. 39.
219) Banco Nacional de Angola,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11).
220) Bank of Tanzania(2024. 1), "Monthly Economic Review," p. 2.
221)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금리는 2011년부터 12%에 고정되어 있었던바 그간 할인율(discount rate)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제시하였으나 금리 기반의 통화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중앙은행 금리(bank rate)를 기준금리로 제시함.
222) World Bank(2023), "Turning the corner: From Reforms & renewed hope, to Results," p. 2.

○ 나이라화의 가치하락, 달러 부족 등의 외환 문제에 전력난, 항만 적체 등 고질적인 문제가 더해져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악화되면서 최근 다국적 소비재 기업이 생산을 줄이거나 철수함.[223]

- 2023년 티누부 정부는 빈곤퇴치, 친비즈니스 정책을 통한 투자 기회 창출 및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을 목표로 연료 보조금 철폐와 다중환율제 폐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연료보조금 폐지 및 정부 재정 확충을 통해 교통,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함.

- [연료 보조금 철폐] 전정부에서 2021년 제정한 「석유산업법(PIA: Petroleum Industry Act)」을 승계하여 2023년 5월 재정건전성 개선 및 휘발유 시장개방을 목표로 연료보조금 철폐를 공식화함.

○ 연료 보조금은 1977년에 일시적인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후 유지되었고, 1999년 이후 여러 정부에서 연료 보조금 폐지를 시도했으나, 대중의 반대와 대규모 시위로 성공하지 못함.

○ 연료 보조금은 재정 악화, 부정부패, 정부 비효율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데, 2022년 기준 보조금의 규모는 보건 분야 지출의 네 배, GDP의 2.2%(약 100억 달러)에 달함.[224]

- [환율 안정화] 달러 부족 문제와 나이라(NGN) 안정화를 위해 2023년 10월 다중환율제를 폐지하고, 국제 송금 규정을 완화했으며, 은행의 통화 투기를 단속하는 조치를 도입함.

○ 공식/암시장 간 환율 차이를 없애기 위해 단일 환율을 적용하고, 43개의 수입 품목에 대한 외환 사용 금지를 해제했으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외화를 신청한 후 신청 금액의 일부를 입찰을 통해 배분받는 외환 할당 제도를 도입함.

- 정책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2024년 2월 정부가 소매 연료 및 전기 가격을 제한해 보조금 폐지를 부분적으로 취소하는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225]

○ 2023년 6월 정책 도입 이후 연료 가격은 180%, 달러당 나이라 환율은 200% 이상 상승함.

-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인프라, 교육 등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출 확대로 2026년에는 개혁 추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1.0%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226]

○ 2023~26년 정부 수입은 보조금 폐지 전 GDP 대비 평균 5.7%에서 폐지 후 9.0%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 내 다수의 국가(세네갈, 앙골라, 가나, 잠비아, 콩고공화국 등)에서 국가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제품 보조금에 대한 개혁을 발표했거나 시행 중임.

4) 2024년 및 2025년 전망

■ **정부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나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완화로 민간소비가 회복되어 2024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오른 3.6%, 2025년에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무역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의 하향세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부채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음.[227]

○ 2024년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불안정한 상황임.

---

223) 최근 P&G, GSK, Bayer, Sanofi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철수함. Sguazzin(2024. 2. 16), "Tinubu Reforms Too Late for Battered Investors: Next Africa," Bloomber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9).
224) 2022년 기준임. World Bank Group(2023), "Turning the corner: From reforms and renewed hope, to results," p. 3.
225) "Nigeria reinstates fuel subsidies to cushion against naira weakness: IMF"(2024. 3 19), S&P Glob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5).
226) World Bank Group(2023), "Turning the corner: From reforms and renewed hope, to results," p. 25.
227) World Bank(2024), "Africa's Pulse," p. 1.

○ 부채 재조정 협상(가나, 잠비아)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등)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절반 이상의 국가가 여전히 부채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음.

-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증가, 비원유 부문의 회복, 외국인 투자 증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나, 환율 압박, 인플레이션 심화, 부채상환 부담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4년 경제성장률은 2.9%, 2025년에도 3.0% 수준으로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228]

○ 1월 원유생산이 최근 33개월간 최고치인 일 14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단고테(Dangote) 정유소가 1월 가동을 시작하여 석유 부문의 회복이 기대되나, 생산시설 운영과 보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229]

- [남아공] 전력난과 고물가 기조, 높은 금리로 인해 2024년 경제성장률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전력난 해소와 중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25년에는 1%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2024년에는 여전한 전력난으로 인한 산업생산 비용 증가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으로 성장이 제한되나 2025년에는 전력 인프라가 개선되고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광물 수요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

- [케냐] 정부부채 문제와 쌍둥이 적자가 경제를 압박하지만, 농업 부문의 생산 증가와 비자 면제에 따른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어 2024년 경제성장률은 5.2%, 2025년에도 5.3%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경작기인 3~6월에 충분한 강수량이 기대되면서 농업 부문의 회복이 기대되나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유가 불확실성,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230]

- [앙골라] 앙골라의 원유생산과 정제 역량 증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및 OPEC의 감산 기조 유지로 유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에는 2.7%, 2025년에는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베고니아 유전 생산 개시, 카빈다 및 소요 정제시설 가동 개시, OPEC 탈퇴로 인한 감산 의무 종료로 앙골라의 원유 수출 및 정제유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대를 넘는 물가상승률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함.

- [탄자니아] 물류비용 증가와 홍수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댐 가동, 안정적인 환율 관리 등을 힘입어 탄자니아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 수입에 증가하는 가운데 홍해 사태 및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4월부터 발생한 홍수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현재 파종이 어려워 향후 식량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 고속철도 구축, 줄리어스 니에레레 국제공항 증축, 바가모요 항만 개발 등 정부 주도 투자 사업이 2024년에도 지속될 예정

- [가나] 경상수지 개선과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2024년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고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원유, 금, 코코아 등 가나의 주요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자 및 양자 채권국과의 채무구조조정 협상이 1월에 마무리되면서 단기적 채무 상환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상업채권에 대한 협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228) Oxford Economics(2024. 1.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1.
229) 정유소 가동으로 원유 생산 부족 상황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나, 정유소가 최대 용량(하루 65만 배럴 생산)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추가적인 지연도 발생할 수 있음. Oxford Economics(2024. 1. 15),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2.
230) 2024년 가뭄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와 병충해에 대한 위험 요인이 존재함.

표 4-22. 주요 기관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2024~25년)

(단위: %)

구분	KIEP [2024. 5]		IMF [2024. 4]		World Bank [2024. 1]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6	3.9	3.8	4.0	3.8	4.1
나이지리아	2.9	3.0	3.3	3.0	3.3	3.7
남아공	0.8	1.1	0.9	1.2	1.3	1.5
케냐	5.2	5.3	5.0	5.3	5.2	5.3
가나	2.7	4.4	2.8	4.4	2.8	4.4
탄자니아	5.3	6.0	5.5	6.0	5.5	6.1
앙골라	2.7	3.1	2.6	3.1	2.8	3.1

주: [ ]은 전망치 발표 시점임.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연구진】

총괄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개관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syoon@kiep.go.kr, Tel: 044-414-1151)
	정민철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mcchung@kiep.go.kr, Tel: 044-414-1052)
	이지윤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ljy08@kiep.go.kr, Tel: 044-414-1228)
국제금융시장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hyosangkim@kiep.go.kr, Tel: 044-414-1065)
	윤정은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jyoon@kiep.go.kr, Tel: 044-414-1266)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hanwontae@kiep.go.kr, Tel: 044-414-1358)
국제상품시장	**최홍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aitch.choi@kiep.go.kr, Tel: 044-414-1203)
	송새랑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ssong@kiep.go.kr, Tel: 044-414-1223)
	송예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syena@kiep.go.kr, Tel: 044-414-1214)
미국경제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hjkim@kiep.go.kr, Tel: 044-414-1166)
	김종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jhkim@kiep.go.kr, Tel: 044-414-1193)
유럽경제	**이현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임유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yjlim@kiep.go.kr, Tel: 044-414-1064)
일본경제	**김승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shkim@kiep.go.kr, Tel: 044-414-1035)
	손원주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wjson@kiep.go.kr, Tel: 044-414-1287)
중국경제	**문지영**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박민숙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인도경제	**윤지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chyun@kiep.go.kr, Tel: 044-414-1327)
	강반디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bdkang@kiep.go.kr, Tel: 044-414-1076)
동남아경제	**신민금**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신민이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김제국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러시아경제	**강부균**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중앙아시아경제	**김경민**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kmkim@kiep.go.kr, Tel: 044-414-1507)
브라질경제	**박미숙**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중남미경제	**김진오**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jokim@kiep.go.kr, Tel: 044-414-1085)
중동경제 및	**유광호**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khryou@kiep.go.kr, Tel: 044-414-1165)
북아프리카경제	**이지은**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jnlee22@kiep.go.kr, Tel: 044-414-1096)
사하라이남	**한선이**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seonihan@kiep.go.kr, Tel: 044-414-1345)
아프리카경제	**김예진**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kimyj@kiep.go.kr, Tel: 044-414-1116)